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3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March Vol.255



황태자루돌프

Rudolf

2013년 하반기 부산문화회관 정기대관안내

■대상 : 극장(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전시실(대전시실, 중전시실)

■대관내용

- 대관기간 : 2013. 7. 1 ~ 2013. 12. 31
 - ☞ 극장무대보수 및 시설 점검일은 대관일에서 제외 ▶접수 상담 시 안내
 - ☞ 시립예술단 및 시 자체 공연·행사·전시 우선 배정 ▶접수 상담 시 안내
- 접수기간 : 2013. 3. 18(월)~3. 29(금) 2주간
 - 접수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 대관심의 및 결정 통보
 - 접수 마지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용허가 통보

■기본방향

- 순수문화예술 공연 우선, 대중 예술 공연 제한적 허용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 창작 또는 유망신인 작품 발표 기회 제공
 - ※정치·종교적 목적의 공연 및 행사는 대관 제외

■대관신청 및 허가 절차

- 상담(구두, 전화) → 신청 및 접수(적정여부) → 대관심의(일정조정) → 통보

■대관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프로그램, 프로필 등 첨부) 1부
 - ※공연계획서 없는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으며, 공연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

- 계약금(기본시설 사용료의 10%) : 사용 허가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체결
- 잔 금 : 공연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
 -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운영담당 ☎ 607-6051~6





지휘 오충근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Peace & Unification Concert

평화를 기원하는 사랑의 하모니!



소프라노 김유섬



테너 이현



바리톤 최종우



트럼펫 박고은





시민과 함께하는

2013

평화통일콘서트

2013. 4. 3(수) pm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 후원  부산광역시

■ 문의 051.866.6363 ※ 본 공연은 초대권(좌석교환권) 소지자에 한하여 당일 좌석권 교환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바이올린
이반 포체킨 Ivan Pochekin

지휘
마크 카딘 Mark Kadin

제18회 을숙도명품콘서트

Krasnoyarsk Symphony Orchestra

Tchaikovsky

Polonaise of Opera 'Eugene onegin'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Symphony No.4 in F minor Op.36



입장료 2,000원 (균일) 초등학교이상 입장가능

러시아 국립 크라스노야르스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2013. 3. 14(목)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부산일보 주관 | BravoComm 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후원 | 부산원음방송 BS 팍부산 Homeplus 장림점 사하인터넷뉴스
www.saha7news.co.kr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부산은행 전 지점 나눔티켓 문의 : 051)220-5812~13

※ 스태프 : 무대감독 전광수, 음향감독 이광섭, 조명감독 오종영

CONTENTS

2013 March Vol.255 culture.busan.go.kr

- 06 커버스토리 | 전세계를 뒤흔든 위험한 사랑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
- 10 프리뷰
- 14 문화가 화제 | 2013 제31회 부산연극제
- 16 반갑습니다 | 부산연극협회 신임회장 고인범
- 18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극단 '샘플'이 그리는 '집단의 광기' _ 이흥이
- 22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⑤ | 세르반테스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돈키호테> _ 이동신
- 24 불멸의 거장 - 드뷔시 ③ | 결혼, 그리고 20세기의 드뷔시 _ 최윤희
- 26 그림, 풍류를 만나다 ⑥ | 고목석죽도 _ 변광석
- 28 그곳에 가면 | 오페라 전용 감상실 '서퐁짜리 오페라'
- 30 우리는 문화가족 | 천년의 소리 대금양상블
- 32 리뷰 | 도심 속 일상 탈출, 카페 움 목요음악회_ 박진홍
부산시립극단 '어무이 게사니' _ 신태범
- 34 테마가 있는 여행 | 역사 향기 가득한 충절의 고장 '밀양'
- 37 Culture Life
- 58 부산문화회관 소식
- 59 100자 토크
- 60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년 3월호 통권 255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대연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발행인 | 최동환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3년 2월 25일

인쇄처 | (주)대주애드 Tel. 051)803-6631



표지사진은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 대표이미지입니다. 이번 부산공연에는 안재욱이 출연하지 않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위험한 사랑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

Rudolf

일 시 3월 16일-17일 토-일요일 오후 3:00, 7: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 12만원·R석 10만원·S석 8만원·A석 6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예 매 SPA(1599-7448)

CAST

| 일정 | 시간 | 루돌프 | 마리베라 | 타페 | 프란츠 | 라리쉬 |
|-------------|----|-----|------|-----|-----|-----|
| 3/16 (토) | 3시 | 박은태 | 김보경 | 조휘 | 박철호 | 한지연 |
| | 7시 | 임태경 | 김보경 | 조휘 | 박철호 | 한지연 |
| 3/17 (일) | 3시 | 임태경 | 옥주현 | 민영기 | 류창우 | 한지연 |
| | 7시 | 박은태 | 옥주현 | 민영기 | 류창우 | 한지연 |

2012년 국내 초연 대작 중 가장 많은 화제를 모은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가 3월, 부산문화회관 무대에 오른다.

국내에 뮤지컬 '엘리자벳'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황후 엘리자벳의 아들 루돌프의 가슴 아픈 실존 러브스토리를 다룬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는 2006년, 브로드웨이의 흥행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이 유럽의 제작사 VBW(비엔나 극장협회)와 함께 뮤지컬로 제작, 헝가리에서 초연된 후 오스트리아,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 공연, 화제를 모았다. 뮤지컬 '황태자 루

돌프'는 비엔나 초연 당시 관객을 압도하는 스토리와 화려한 무대로 기립박수를 얻었다. '지킬 앤 하이드' '몬테크리스토' '천국의 눈물' 등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배출해낸 흥행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과 VBW(비엔나 극장협회)의 기획력이 더해져 브로드웨이의 대중성과 화려함, 유럽의 웅장함과 드라마틱한 스토리로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어 냈다. 특히 이번 한국공연은 엄홍현 프로듀서, 로버트 요한슨 연출가 등 최고의 스태프들이 원작자들과 함께 2년여간의 논의 끝에 캐릭터 수



세계인의 감성을 사로잡은 감동적인 선율

모던하고 세련된 무대와 디테일하고 화려한 소품들의 절묘한 조화!

정을 비롯한 몇 번의 대본 수정을 거쳐 한국 관객들에게 맞는 '황태자 루돌프'를 탄생시켰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위험한 사랑

역사적인 내용이나 당시의 시대를 조금 이해하고 본다면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에 더욱 쉽게 빠져들 수 있다.

루돌프 황태자는 한국에는 뮤지컬 '엘리자벳'으로 더욱 알려진 실존인물 프란츠 요제프 1세와 엘리자벳 황후의 장남으로 1858년 비엔나에서 출생했다. 왕위 계승자인 황태자라는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친 프랑스적이며 자유주의적 사상을 가졌던 그는 친 독일적이며 보수적이었던 아버지와 대립, 황태자임에도 불구하고 신문 등에 자유주의 사설을 기고하기도 하며, 헝가리 혁명에 앞장서는 등 오스트리아 황실과 반대되는 정치적 행보를 걸었다.

그러던 중 자신을 이해해 주는 유일한 여인 마리 베체라와 사랑에 빠진 루돌프 황태자는 마리 베체라와의 위험한 사랑이 결국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게 되고, 비엔나 근교의 마이얼링 별장에서 사랑하는 여인 마리 베체라와 권총으로 동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

을 마감한다.

자신의 사랑을 택해 황태자 자리는 물론 목숨까지 포기한 루돌프의 죽음 이후 오스트리아 제국은 점점 위태로워졌으며, 보수 성향을 가진 사촌동생 프란츠 페르디난드가 황태자가 되어 민족주의를 탄압하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 암살됐다. 이 사건이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루돌프가 죽지 않고 황제가 되었다면 자유주의 정책을 펼쳐 제1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당시에 유럽을 혼란에 빠뜨린 '마이얼링 사건'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후 다양한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되어 영화, 드라마, 소설, 발레, 오페라, 뮤지컬 등으로 회자되고 있다.

2006년 헝가리에서 뮤지컬 초연 당시 처음 타

이들이 'Vienna: Affäre Mayerling(비엔나: 마이엘링 어페어)'였으나, 이후 'Rudolf: The Last Kiss(루돌프: 마지막 키스)'로 변경되었고 현재는 '루돌프(Rudolf)'로 공연되고 있다.

최고의 배우, 최고의 스텝이 만났다

한국초연 당시 정치적인 야망도, 불 같은 사랑도 이룰 수 없었던 비운의 황태자 역에는 한류 배우 안재욱을 비롯해 임태경, 박은태가 캐스팅 되어 뮤지컬 팬들에게 3인 3색의 루돌프를 선보였다.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안재욱의 건강악화로 뮤지컬계 황태자 임태경과 '엘리자벳'의 루케니부터 '황태자 루돌프'의 루돌프까지, 끝없는 연기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박은태가 열연한다.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등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가슴 아파하는 감성적인 연기를 선보인 임태경은 '황태자 루돌프'에서 더욱 애절하고 애뜻해진 모습을 보여준다. KBS 예능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의 팬을 확보한 임태경은 '모차르트!'를 통해 세종문화회관 3,000석의 객석을 100% 유료로 채우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2012년 상반기 최고의 흥행 대작 뮤지컬 '엘리자벳'과 '모차르트!'에서 안정된 연기력과 시원한 가창력으로 아이돌 스타 못지않은 티켓파워를 보여주었던 뮤지컬 배우 박은태는 그동안 '햄릿' '모차르트!' '거미여인의 키스' '피맛골 연가' 등 다양한 작품에서 개성 강한 역할을 맡아 연기의 폭을 넓혀왔다. 박은태는 특히 뮤지컬 '엘리자벳'의 루케니 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제6회 더뮤지컬어워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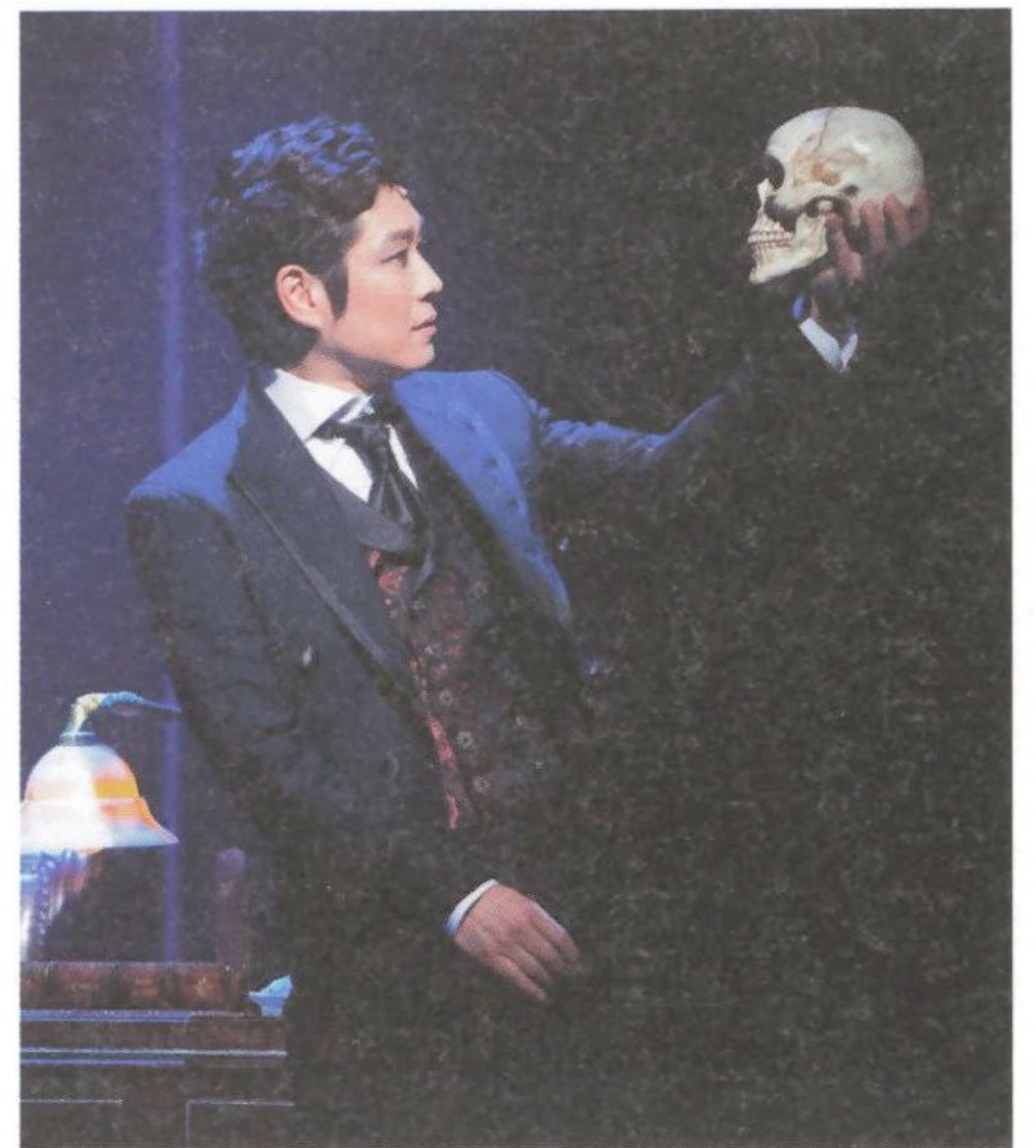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황태자 루돌프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연인 마리 베체라역에는 제6회 더뮤지컬어워즈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 배우 옥주현과 뮤지컬 미스 사이공으로 부산 팬들과 친숙한 김보경이 열연한다. 옥주현은 뮤지컬 '엘리자벳'에서 10대부터 50대까지 한 여인의 일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래를 부르는 음색마저 변화시키며, 연기력이 절정에 올랐다는 평을 얻어냈다. 옥주현은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최대 장점인 폭발적인 가창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곡으로 그의 매력은 한껏 더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마리 베체라에 캐스팅된 김보경은 뮤지컬 '미스 사이공'에서 김 역을 맡아 노래와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하여 외국 스태프들로부터



터 “전 세계의 킴 중에 ‘김보경의 킴’이 최고”라는 찬사를 들은 바 있다. ‘황태자 루돌프’의 오디션 당시에도 전 스태프들이 만장일치로 합격을 결정했을 정도로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으로 ‘킴’을 벗고 황태자의 연인에 도전한다. 그의 루돌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역 타페 수상 역에는 ‘모차르트!’ ‘엘리자벳’ ‘잭 더 리퍼’ ‘삼총사’ 등 국내 흥행작에서 안정되고 깊어진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명품배우 민영기와 뮤지컬 ‘김종욱 찾기’의 깨알 같은 멀티맨에서부터 대형 창작뮤지컬 ‘영웅’의 주인공 안중근 역까지 폭넓은 역할을 소화한 조휘가 캐스팅 되어 안정된 연기와 시원한 가창력으로 극의 분위기를 압도할 최고의 악역을 보여준다. 민영기와 조휘 두 사람은 주인공인 ‘황태자 루돌프’와 아버지 ‘프란츠 요제프’가 겪

는 갈등의 중심에서 극에 긴장감을 더하는 타페 수상 역을 통해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또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황태자 루돌프와 갈등을 일으키는 프란츠 요제프 역에는 TV 드라마와 연극, 뮤지컬 무대를 중형무진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년 뮤지컬 배우 박철호와 뮤지컬 ‘시카고’에서 록시의 착하고 여린 남편 에이모스 역을 맡아 열연했던 뮤지컬 배우 류창우가 캐스팅 되었다. 루돌프와 마리의 옆에서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라리쉬 백작 부인 역에는 한지연이, 스테파니 황태자비에는 오진영이 출연한다. 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는 쉽게 소화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음악과 왈츠, 탱고를 넘나드는 다양한 안무가 매력인 ‘황태자 루돌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주·조연부터 앙상블까지 추가오디션을 거듭하며 탄탄한 연기력과 안정된 노래 실력을 갖춘 배우들만을 캐스팅, 한국 관객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이번 한국버전에서는 황태자 루돌프를 바라보는 두 여인의 감정과 입장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새로운 곡도 추가되었다.

INTERVIEW



임태경

콘서트로써는 지난해 부산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뮤지컬로는 <모차르트> 이후 굉장히 오랜만에 부산 관객들을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의 공연을 기다려주신 부산 관객들께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루돌프는 황태자이기도 하지만,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혁명적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감성적이고, 그의 어머니 엘리자벳을 닮아 자유로운 삶을 늘 꿈꾸는 사람입니다. 루돌프의 그런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나도 그 동안 해왔던 작품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술도 자주 마시고, 흐트러진 생활을 해보고자 했는데, 무척 어렵더라고요(웃음). 그래도 최대한 루돌프의 감정을 살리고자 노력할테니 관객 여러분도 루돌프의 관점에서 함께 공감해주시고, 극을 따라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에서 만나요!



박은태

사실 그 동안 부산에서 공연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2010년에 <모차르트>로 인사드린 이후, 아주 오랜만에 부산 관객들을 만나게 되어 설레는 마음이 큼니다. 이번 <황태자 루돌프> 공연 이후에는 더 자주 부산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황태자 루돌프>가 우리 나라 관객들에게는 생소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이야기이다 보니, 그 시대 오스트리아의 역사에 대해 조금은 알고 오시는 것이 루돌프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이야기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마이얼링 사건’ 실화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오시면 더욱 이야기에 집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을 열고 공연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루돌프와 마리의 이야기에 푹 빠져서 공연 관람을 하시고 나면, 마음 한켠이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황태자 루돌프> 공연을 보고 부산 관객 여러분도 따뜻한 사랑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66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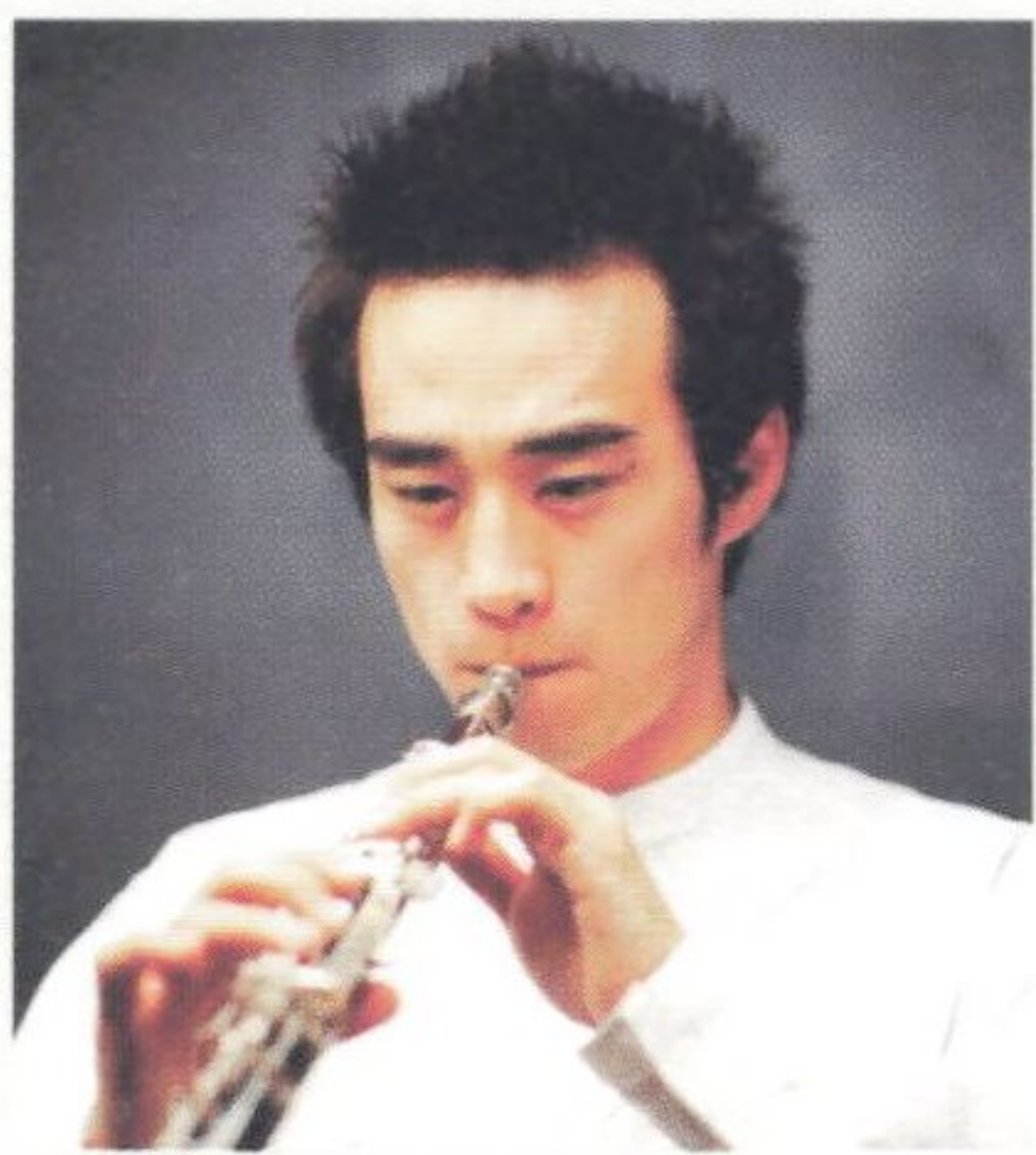
명인과 함께 하는 새봄! 2013 신춘음악회



■ 지휘 김철호



■ 명창 안숙선



■ 장세납 이영훈

생동하는 봄의 문턱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명인과 함께 하는 새봄! 2013 신춘음악회'로 부산국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우리가락으로 빛어내는 관현악의 생생한 울림을 통해 약동하는 봄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이번 무대는 김철호 수석지휘자의 지휘,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예능보유자인 안숙선 명창, 밝고 화려한 음색을 자랑하는 개량악기 장세납 연주자 이영훈이 싱그러운 봄의 무대를 선사한다.

오랜만에 부산을 찾는 안숙선 명창은 1979년 국립창극단에 입단, 타고난 좋은 성음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일약 창극 명인으로 인정받았다. 안숙선 명창은 예인(藝人) 가문의 피를 이어받아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모인 강순금에게 가야금 풍류를 배우면서 국악에 입문했다. 대금산조 강백천 명인이 어머니의 사촌이며 판소리 인간문화재 강도근이 외삼촌, 태평무 인간문화재인 강선영이 이모이다. 1999년 수궁가, 2000년 적벽가, 2001년 심청가, 2003년 흥보가, 2005년 적벽가 완창 무대, 창무극 <춘하추동>, 연극 <태> 등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 안숙선 명창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국립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2000년부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교수로 활동하며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안숙선 명창은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는 하이라이트 무대로 판소리 '심청가' 중 '황성가는 길' 대목을 국악관현악과 함께 들려준다. '황성가는 길' 대목은 중모리 장단의 더듬거리는 심봉사의 걸음걸이가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냇가에서 목욕하는 심

봉사의 시원스러움이 중중모리로 경쾌하게 이어진다. 부산 국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 장세납연주자 이영훈은 북한의 개량악기 '장세납'으로 부산의 봄을 깨운다. 김대성 곡 장세납 협주곡 '봄'은 2001년 이산가족의 상봉 장면을 생각하며 작곡된 곡이다. 만남과 희망을 주제로 이산가족의 만남, 남과 북의 악기와의 만남에 대한 환희를 담은 이곡은 장세납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음량과 화려한 음색적 특징, 민족악기 고유의 특성을 살려 부산초연무대를 열어준다.

일본 금강산 가극단에서 장세납 연수를 받은 이영훈은 국립국악관현악단, 서울로얄심포니오케스트라 등과 장세납 협연 무대를 가지며 아름다운 장세납 선율을 널리 알려왔다.

협연자들과 함께 하는 특별곡 외에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13년 위촉곡인 백규진 곡 국악관현악 '왕의 귀환', 원일 곡 국악관현악 '달빛항해', 정동희 곡 국악관현악 '대지의 숨'을 들려준다.

국악관현악 '왕의 귀환'은 전통 대취타 선율인 '무령지곡'을 통하여 찬란했던 조선왕조의 모습을 그려낸 곡으로 웅장한 대취타 선율로 대지를 깨운다. 황해도 지역 민요인 몽금포타령 주제에 의한 변주곡으로 선율적 모티브와 리듬의 형식이 만나서 빛어내는 국악관현악 '달빛항해'는 각자의 내면속 깊은 곳에 있을 법한 맑은 샘물을 찾아가는 여정을 관현악으로 그려낸 곡이다. 국악관현악 '대지의 숨'은 대지에 대한 경외감을 있고 사는 도시인들을 위해 생명의 숨을 넣어주는 대지의 에너지를 국악선율로 표현한 곡이다.

일 시 3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3)

2013 부산연주인시리즈 2013 신춘음악회



■ 지휘 이동신



■ 피아노 성민주



■ 소프라노 이윤경

음악과 함께 활기찬 새봄의 기운을 느껴보는 부산시립교향악단 2013 신춘음악회가 3월 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의 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차이코프스키 '잠자는 숲속의 미녀' 모음곡을 시작으로 초연 당시부터 눈부신 생기와 무한한 에너지로 일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다양한 타악기들의 경쾌한 롬바 리듬과 대위법적인 선율 전개, 중간부의 명상적인 클라리넷 독주 등으로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는 거슈윈의 쿠바 서곡 등 봄의 느낌을 담고 있는 신선하고 활기찬 레퍼토리로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싱그러운 봄을 선물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출신 또는 부산에서 활동 중인 뛰어난 음악인을 발굴하는 '부산연주인시리즈' 연주자로 선정된 피아니스트 성민주와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소프라노 이윤경이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피아니스트 성민주는 이화여대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로 유학,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2010년 귀국, 피아노연주가클럽, 부산음악협회, 피아노듀오협회, 독일가곡연구회,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회원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성민주는 조선일보사 주최 신인음악회 연주 및 신인상 수상을 비롯해 부산 듀오협회 콩쿠르 전체 1위, 바로크합주단 콩쿠르 등에 입상하였으며 부산음협 주최 '신인음악회' 및 '그랜드 피아노 페스티벌' 등의 무대를 가졌다. 성민주는 독일 유학중 Oberhausen Rotary Club 초청으로 Bochumer

Symphoniker와 협연한 후, 후원 장학금 취득과 함께 독일 현지 일간지 Westdeutsche Allgemeine Zeitung (WAZ)과 Neue Rhein Zeitung(NRZ)로부터 호평받기도 했다.

신춘음악회의 또 다른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소프라노 이윤경은 러시아 국민음악을 이어받은 글리에르의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를 위한 협주곡'으로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1943년에 작곡된 이 작품은 전체 10여분의 두 악장으로 구성, 그중 1악장 안단테는 현의 우울하면서도 불안한 음색으로 시작하여, 관이 들어오면서 바로 소프라노가 노래하고, 깊고 풍부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부터 나온 아주 긴 멜로디의 소프라노는 각 클라이막스를 이끌어간다. 2악장 알레그로는 따뜻하고 명랑한 분위기로 가끔 차이코프스키의 발레나 바그너의 가극마저 연상시킨다.

고태국 성악콩쿠르 대상, 한국음악협회 전국성악콩쿠르 최우수상, 이탈리아 벨리니 성악콩쿠르 1위없는 2위 입상, 이탈리아 De Nardis 콩쿠르 입상, 일본-이탈리아 성악콩쿠르 요미우리 신문사상 등을 수상하고 오페라 '돈 카를로' '라 트라비아타' '투란도트' '라 보엠' '춘향' 등 다양한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해온 이윤정은 쿠바 정부초청 하바나 국립극장 협연, 베네수엘라 엘시스테마 초청 독창회, 플라시도 도밍고 등과 함께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한 데 이어 지휘자 정명훈의 오디션에 발탁되어 도교예술극장 오페라 '리골레토' 공연을 가졌고 동양인 최초로 런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오늘의 음악' 콘서트 초청연주자의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일 시 3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8회 정기연주회

리신차오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I



■ 지휘 리신차오

2013년 새로운 50년의 역사를 시작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음악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 중 한사람인 베토벤의 음악을 재조명해보기 위해 2013년 1년간 '리신차오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을 기획, 50년의 역사가 결집된 하모니와 앙상블을 선사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신차오의 지휘로, 협연자 없이 진행되는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지나온 50년을 되짚어보며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의욕적으로 기획한 무대이다. 3월 20일 그 첫 무대는 베토벤 교향곡 양식의 본질을 보여주는 교향곡 제1번과 그의 열정이 내재된 교향곡 제2번 등 베토벤 초창기 작품과 함께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의 4개의 서곡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사랑받고 있는 레오노레 서곡 제3번을 들려준다.

이번 연주회의 서막을 여는 베토벤 '레오노레' 서곡은 베토벤이 대단히 고심하며 작곡한 곡이다. 오페라 '피델리오'는 상연 때마다 많은 분노를 사는 바람에 여러 차례 대대적인 개작을 거치면서 베토벤은 매번 새로운 서곡을 작곡, '레오노레' 제1번부터 제3번, '피델리오' 서곡 등 모두 4곡의 서곡이 남아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히는 제3번을 연주한다.

이어지는 무대는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교향곡 제1번'. 베토벤 최초의 교향곡인 이 작품은 그의 나이 29세 때인 1799년 작곡에 착수,

1800년 초에 완성되었다. 하이든이 25세부터, 모차르트가 8세부터 교향곡을 작곡한 것에 비하면 다소 늦은 시기이지만, 그가 교향곡 작곡에 얼마나 신중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초연은 1800년 4월 2일 비엔나의 부르크극장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예술미가 넘치고 독창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베토벤은 이 작품에서 강약에 대해 매우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있으며, 다이내믹한 음형을 주의 깊게 다루고 있어 베토벤 양식의 본질적인 측면을 이루고 있다. 연주시간은 약 25분.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는 베토벤 '교향곡 제2번'은 1802년 베토벤의 나이 32세 때,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를 쓴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완성되었다. 당시 그는 청각장애로 정양중이었으며, 유서를 쓸 정도로 가장 비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희망과 기쁨에 차 있는데, 로망 롤랑의 말대로 당시 백작의 딸 줄리에타를 사랑하고 있었던 베토벤의 사랑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작곡 기법에 있어서도 제1번 교향곡에 비해 한층 진전을 보여 새로운 세계와 인류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어 베토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의 전환기로 간주할 수도 있다. 1803년 초연 후 라이프치히의 '알게마이네 음악 신문'은 "이 교향곡이야말로 정열가의 작품이며, 이 시대의 모든 유행 작품이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는 시대가 되어도 이 작품만은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평했다. 연주시간은 35분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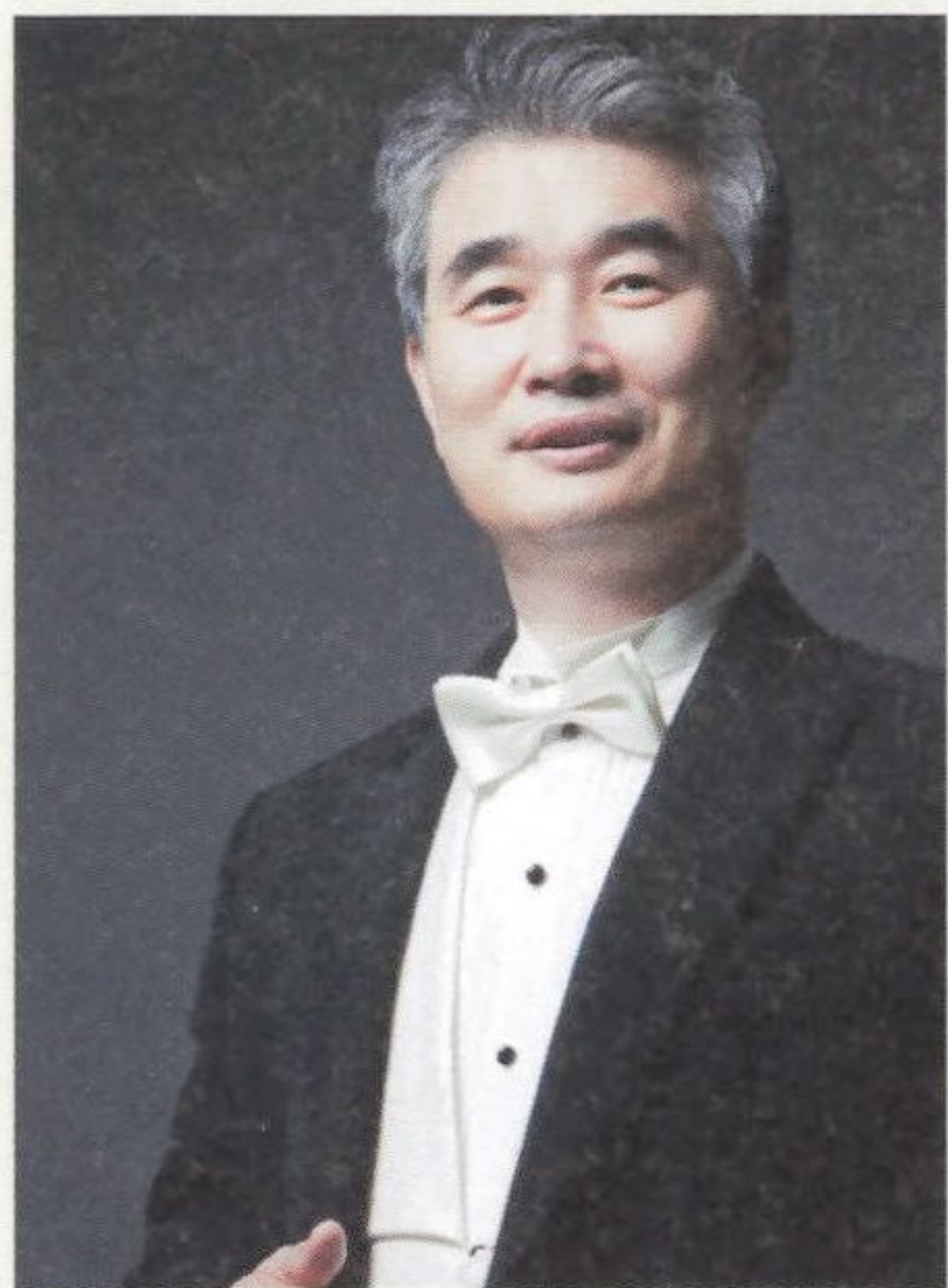
일 시 3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 | | |
|-------------|----------------------|----------------------|
| 리신차오의 | I 3.20 교향곡 제1번, 제2번 | IV 7.11 교향곡 제7번 |
|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 II 5.30 교향곡 제8번, 제3번 | V 11.15 교향곡 제6번, 제5번 |
| | III 6.27 교향곡 제4번 | VI 12.12~13 교향곡 제9번 |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새봄맞이 합창 소리

The Beautiful Chorus Sound



■ 지휘 구천

2월 21일 봄이 오는 길목에서 특별한 신춘 무대를 선보인 부산시립합창단이 4월 2일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구천의 객원지휘로 합창의 전통과 정수를 맛볼 수 있는 2013년 첫 정기연주회 무대를 연다.

르네상스의 다성 합창, 남성, 여성 합창과 현대합창, 뮤지컬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곡, '새봄맞이 합창 소리'를 선사하는 이번 무대는 구천 지휘자와 함께 합창의 역사와 진정한 다성의 어울림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지난해 3개 시·도립합창단 지휘자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 바 있는 지휘자 구천은 20년 동안 국립합창단에서 합창활동을 하며 나영수 선생의 영향을 받아 지휘 공부를 시작, 국립합창단 부지휘자를 시작으로 전주시립합창단 지휘자, 광주시립합창단 단장 겸 상임지휘자,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합창단 지휘자로 재직하며 미국, 캐나다, 피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해외연주를 성공리에 지휘하였고 정기연주회를 통해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심오한 예술성을 표출하였다.

특히 구천 지휘자는 세련된 비딩과 뛰어난 음악적 해석능력으로 합창음악의 진수를 보여주었으며 끊임없는 합창활동으로 '탁월한 음악적 해석 능력으

로 청중을 사로잡는 지휘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휘자 구천은 한국시립합창단연합회 회장과 한국지휘자협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사)한국합창총연합회 명예 이사장, WSCM예술위원, 울산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Thomas Morley의 'Fyer, Fyer', Palestrina의 'Sicut Cervus' 등 르네상스 음악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담은 사랑의 노래 '봉선화(허걸재 곡)', '혼자사랑(이건용 곡)', 남성합창의 중후함을 느낄 수 있는 남성합창곡 'Amarilli, mia Bella(Giulio Caccini)' 'O Danny boy(Londonderry Air)', '하늘(이선택 곡)', 아름다운 여성합창단원들의 화음으로 '바람은 남풍(조혜영곡)'과 팝 'Let It be(Paul McCartney)', 'Yesterday once more (Richard Carpenter)'과 한국인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는 대중음악을 합창으로 풀어낸 '시래기(정덕기 곡)'와 '짜장면(이순교 곡)'을 '합창음식'이라는 재미있는 타이틀로 선곡, 새봄 합창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일 시 4월 2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 2012년 대상작 '여자이야기 Herstory II 죽어 피는 꽃'

2013 제31회 부산연극제

3월 29일(금)-4월 14일(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소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연극계 최대의 축제인 부산연극제 2013년 무대가 4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올해로 31회를 맞는 부산연극제는 특히 지난 2005년부터 경연부문 참가작을 창작 초연작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산연극계의 창작 활성화를 추구하고 연극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왔다. 올해는 지난해 부산연극제 대상을 수상한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극단 맥, 극단 하늘개인날, 극단 세진, 극단 도깨비, 극단 이그라, 극단 더블스테이지, 부산연극제작소 동녘, 극단 누리에 등 부산지역 9개 극단이 경연 부문에 참가, 오는 6월 충남 홍성 및 예산에서 열리는 전국연극제 참가티켓을 놓고 열띤 경연을 펼친다.

특히 올해 참가작 중에서는 지난해 부산연극협회가 주관한 전국창작희곡공모전 대상작인 '뜰 앞의 개고기'를 극단 하늘개인날과 극단 세진이 무대화하면서 두 극단이 보여줄 차별화된 무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연작 외에도 이번 부산연극제에서는 3편의 자유참가작을 만날 수 있다. 자유참가작으로는 극단 배우창고의 '강석봉 베이커리', 극단 세진의 '마마 페스티벌', 뮤직팩토리 라라의 '봄의 축제' 등 다양하면서도 수준 높은 무대가 펼쳐진다.

이밖에도 연극제 기간동안에는 시민들이 직접 무대에 설 수 있는 제6회 부산시민연극제(4월 4일~7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와 역대 부산연극제 대상 수상작 사진전(4월 1일~1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로비), 부산연극정보관 운영(4월 2일~12일 시민회관 소극장 로비), 관객과의 대화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 입장료 |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사랑티켓 참가작)
- 문의 |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45-3759, <http://www.bstheater.or.kr>)

개막식

4월 1일 월요일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경연작

극단 맥 '시골동화'

4월 1일-2일 월-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똥통에 아기를 낳아서 이름을 '똥례'라고 지었다는 소설가 방영웅의 '분례기'를 원작으로, '똥례'라는 주인공을 통해 한국여성의 트라우마와 비참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생활상을 중첩시켜 풀어나간 창작극. 뿌리깊은 우리의 토착신앙과 관혼상제, 빈상여놀이, 가상제놀이, 삼신할머니를 모티브로 극적 재미를 추구한다.

· 원작/방영웅 · 각색, 연출/이정남

극단 하늘개인날 '뜰 앞의 개고기'

4월 2일-3일 화-수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2012 제5회 전국창작희곡공모전 대상 수상작을 무대화한 작품. 인생사를 개와 개고기로 비유, 인생을 관조하는 시각이 재미있다는 평을 받은 작품으로, 주인공인 형사 민호가 절에서 고시공부를 하던 시절 만났던 관하스님과의 인연을 회상하며 현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는 내용이다.

· 작/최수영 · 연출/곽종필

극단 세진 '뜰 앞의 개고기'

4월 4일-5일 목-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극단 하늘개인날과 더불어 2012 제5회 전국창작희곡공모전 대상 수상작을 무대화한 작품. '머릿속에서 그리 는 삶과 실제의 삶의 모습이 주는 괴리감'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해석,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각각의 등장 인물이 핵심이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 작/최수영 · 연출/김세진

극단 도깨비 '깊이 묻다'

4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6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무덤으로 포화상태가 되면서 사망금지령이 내린 마을을 배경으로, 죽은 아버지를 묻기 위한 아들 도굴범의 작전이 시작되는데..., 죽음을 쉽게 생각하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극단 도깨비 '깊이 묻다'.

· 작/김경미 · 연출/최광욱

극단 이그라 '모함의 닷'

4월 7일 일요일 오후 5:00, 8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권력을 탐하는 측근의 모함에 의해 친자식인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 그리고 손자들까지 죽음으로 몰고갔던 조선 제16대 인조임금을 통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병든 우리사회를 비판한다.

· 작/김경화 · 연출/최성우

극단 더블스테이지 '모래폭풍'

4월 8일-9일 월-화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2012 제3회 부산신인창작희곡공모전 대상 수상작으로, 주변환경과 폭력으로부터 고립될 수 밖에 없는 가족을 통해 사람들의 이기심과 야만성을 그린 창작극.

· 작/김동현 · 연출/오정국

부산연극제작소 동넨 '운약'

4월 10일-11일 수-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현진건의 소설 '운수좋은 날'의 10년 후 이야기로, 김첨지의 아들 개똥이를 '나'로 등장시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삶의 순간순간 던지는 선택의 근거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창작극. 사실주의 근대소설을 우리 고유의 전통 연희양식과 접목시켜 신명의 정서를 무대 위에 구현한다.

· 작/양효운 · 연출/윤우진

극단 누리에 '기동슈퍼'

4월 11일-12일 목-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2008년 서천에서 발생한 미스터리 사건인 '기동슈퍼 화재사건'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작품. 사건을 따라가면서 드러나는 사회 부조리와 그 속에 갈등을 빚는 사람들을 그린 사회극이다.

· 작/최서희 · 연출/강성우

극단 바다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워할,戀(연)'

4월 13일-14일 토-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고립된 섬에서 떠나간 남편 귀복을 기다리는 본처 이금 이와 후처 첫술이를 주인공으로, 시대를 초월한 고립의 공간에서 인간의 가장 나중 지닌 그리움과 외로움을 이야기한다.

· 작, 연출/최은영

// 자유참가작

극단 배우창고 '강석봉 베이커리'

3월 29일(금)-4월 3일(수)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16년째 건강한 빵을 굽고 있는 공주제과 제빵사 강석봉, 어느날 가게 맞은편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서면서 그동안 굳건히 지켜오던 빵에 대한 원칙까지 버리지만 옛 제자와의 만남을 통해 변하지 말아야 할 것, 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 작, 연출/박훈영

극단 세진 '마마 페스티벌'

4월 10일(수)-14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마음 맞는 마임이스트 두 사람이 만드는 작은 마임축제'라는 뜻의 '마마 페스티벌'. 2009년 예술제전 세계델픽대회에서 나란히 메달을 수상하며 예술적 능력을 인정받은 마임이스트 김세진, 이정훈의 창작 마임공연이 펼쳐진다.

· 작/김세진, 이정훈 · 연출/김세진

뮤직팩토리 라라 '봄의 축제'

4월 13일-14일 토-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우리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뮤직팩토리 라라가 생동감 넘치는 봄의 소리를 우리의 국악기와 판소리, 민요, 춤으로 들려주는 음악극.

▶ 프로그램

관현악 '세상풍경', 봄노래 연곡, 관현악과 함께하는 '사랑가', 관현악 '광야의 숨결', 상사몽, 마법의 성, 아름다운 나라, LOVE, 사랑사랑사랑

· 음악감독/하정희

시상 및 폐막식

4월 14일 일요일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연극협회
신임회장

고인범

재미있는 연극, 즐거운 연극 보러오세요

연극무대와 드라마, 영화 등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온 고인범 씨가 부산연극협회 제21대 지회장으로 2013년 부산연극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3월 29일 막이 오르는 제31회 부산연극제를 앞두고 고인범 신임회장은 물론 새롭게 구성된 연극협회 집행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50년 부산연극의 전통성과 정통성을 굳건하게 지켜가면서 부산연극협회 회원들의 연극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하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 당선의 영광을 안은 고인범 회장은 '바쁜 활동가'라는 주위의 우려도 잠시, 당선 후 부산연극계 활성화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979년 연극에 입문한 고인범 회장은 34년간 부산연극계를 지켜온 토박이다. 다른 동료 배우들처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런 저런 부업을 해가며 연극계를 지켜온 그는 PSB(현 KNN)로 방송활동을 시작하면서

부산시민들에게는 방송 KNN 쏘! TV유랑극단의 진행자로 이웃집 아저씨, 삼촌처럼 친근하다. 고인범 회장은 2005년 KBS드라마 '황금사과'를 시작으로 메이퀸, 해운대 연인들, 각시탈 등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발히 활동해 오면서도 매년 부산 연극 무대에 오르며 부산 연극계를 떠나지 않았다. 지난해 제30회 부산연극제에서 우수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한 고인범 회장은 부산광대연극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5년 동안 행사를 개최해 왔다.

"몇몇 분들은 바빠서 협회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연극인의 명예, 자존심을 걸고 일에 매달린 만큼 이제 지역 연극 발전을 위해 땀 흘리고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화두로 내건 고인범 회장은 부산연극인의 위상정립과 부산연극의 활성화를 통해 함께 노력하는 신명나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1990년 부산연극협회 총무로 협회 일을 보기 시작한 고인범 회장은 그동안 부산연극협회 사무국장, 이사, 감사, 부회장으로 20년간 활동해온 부산연극계의 산 증인이다. 그는 전임 김동석 회장 재임시 감사, 부회장으로 9년간 함께 협회를 지켜왔다.

"김동석 지회장이 협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부담이 앞섭니다. 앞으로 3년간 그동안 부산연극협회가 일구어 놓은 많은 일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인범 회장은 무엇보다 연극은 재미있어야 한다는 지론이다. 연극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드라마로 쌓은 지명도와 부산연극에 대한 열정으로 무장, 기업 메세나 유치를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닐 계획이다. 현재 부산연극협회는 24개 극단, 267명의 배우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연극인들을 위한 복지기금, 부산연극인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 마련에서부터 지난 50년 부산연극사를 돌아볼 수 있는 부산연극인 인명사전 발행 등 할 일이 많다.

"선 후배가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많이 없는데 연극인들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매달 회원들과 함께 연극 한 편을 볼 계획입니다. 1월에 신고합니다, 2월에는 어무이 게사니를 관람했습니다. 연극관람을 통해 선배들은 후배의 참신함을 배우고 후배들은 선배의 연륜을 흡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0년전 48세의 나이에 거처도 없이 서울, 부산을 오가며 수차례 오디션을 받으며 새로운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 했던 고인범 회장은 촬영장에서 부산배우의 자존심을 걸고 오기로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며 연기에 임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지금까지 그 래왔던 것처럼 부산토박이의 욕심으로 부산연극계를 지켜나가고 싶다는 고인범 회장과 그와 함께 펼쳐 나갈 부산연극계에 기대가 크다.

일본연극의 차세대 주역, 마츠이 슈(松井周)

극단 '샘플'이 그리는 '집단의 광기'



일본의 연극계는 젊다. 물론 최근 내한공연을 했던 니나가와 유키오 연출가나 극단 문화좌를 생각하면 일본연극에서 원로들의 활약이 얼마나 눈부신지 감탄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의 소극장을 둘러보고 있으면, 소극장 연극계에 얼마나 자주 어린 연출가들이 혜성처럼 나타나는지 새삼 놀라고 만다. 그 이유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 비해 일본인은 사회생활을 일찍부터 한다는 사실이다. 병역의 의무가 없고, 대학생들은 우리처럼 어학연수 등 스펙 쌓기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 20대 초반부터 취업활동에 돌입한다. 연극이라는 세계를 한정해 생각해보면, 대학교에 연극 관련 전공 학과가 매우 드물어(특히 실기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일본 전국 대학을 놓고 세어보아도 다섯 손가락을 넘기기 힘들다) 연극계에 입문하기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로 인해 미숙한 상태에서 프로가 되는 나쁜 사례도 있겠지만, 20대에 키시다 쿠니오 희곡상(일본 희곡상 중 가장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고, 도쿄 도심의 주요 중·대극장에 진출하는 젊은 연출가들을 보면 그들이 이끄는 일본연극의 앞날이 더욱 궁금해진다.

이렇게 활기찬 일본의 연극계에서 1972년생인 마츠이 슈는 사실 '차세대'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이미 개성있는 작품과 현대미술을 연상케 하는 무대연출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한 작/연출가이다. 1996년, 히라타 오리자의 청년단에 배우로 입단한 이래, 극작과 연출을 병행한 그는 2007년 극단 '샘플'을 창단해 <통과>, <월드프리미어>, <지하실>, <칼로리 소비>, <가족의 초상> 등등 수많은 작품으로 명성을 쌓아갔고, 2010년에 <자랑스러운 아들>로 제55회 키시다 쿠니오 희곡상을 수상했다. 사라 케인 작의 <페드라의 사랑>, 마리우스 폰마이엔부르크 작의 <파이어 페이스(Fire Face)>를 연출하면서 외국 희곡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일본어 대사를 선보였고, 그의 희곡 <성지>는 니나가와 유키오의 연출로 공연되면서 작가로서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작가이자 연출가, 무대와 브라운관을 넘나드는 배우이자 강사, 그리고 잡지 발행인까지, 그의 앞에 수식되는 많은 역할들은 그가 단지 '일본의 젊은 연출가'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대변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도쿄의 코마바 아고라 극장에서 공연된 <지하실>은 마츠이 슈에게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은 2006년에 초연되었던 공연으로, 재공연된 것이었다. 자칭 타칭 극단 샘플의 '입문편'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츠이 슈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가장 '무난한' 작품이라고 소개할 수 있다. 그의 작품은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용 측면에서는 가장 덜 거부감이 있는, 그리고 형식적인 면



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연극에 가깝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겠다. 오랜만에 자기 연극의 원점으로 되돌아가보는 경험은 분명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도쿄 어느 외곽에 작은 '자연식품 가게'가 있다. 거기에는 점장과 그의 아들, 그리고 점원들이 함께 살며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해, '물'과 그 밖의 자연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들의 대표 상품 '물'을 만드는 것은 점장의 아들인데, 그는 어느 날 가게로 들어와 일하게 된 여자에게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더 이상 물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 이 사건은 그들 공동체의 운명을 뒤흔들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이 가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손님이 등장한다. 결국 공동체는 깨지고, 그 후에도 가게에 남은 점장과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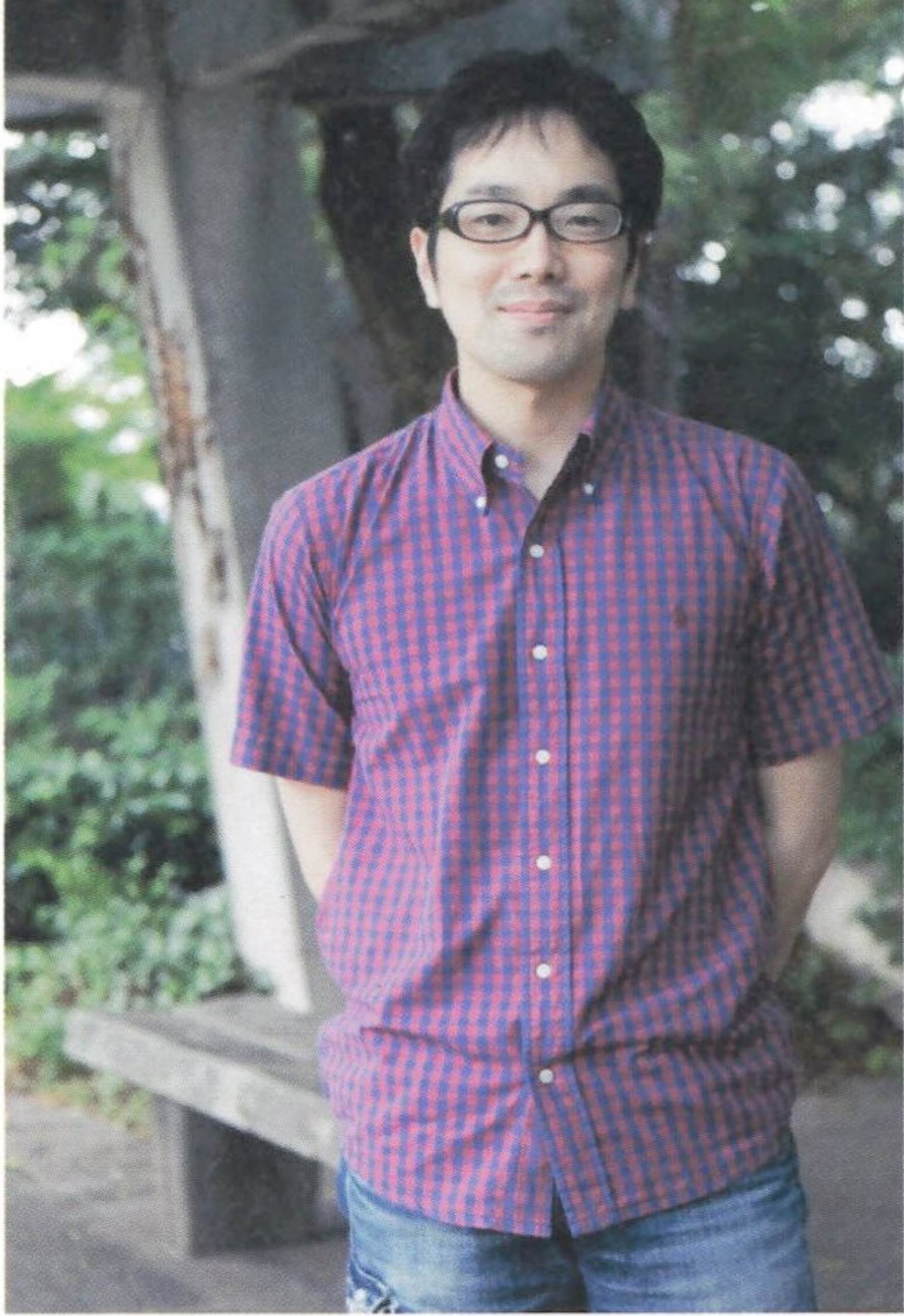
원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괴기스러운 부분은, 바로 점장 아들이 물을 만드는 방식이다. 가게의 공동체 일원들은 그의 배설물을 받아 정화시키는 장치를 만들어 물을 만들고, 판매까지 하는 것이다. 아들의 변까지 입에 넣는 점장은 마치 사이비종교의 교주를 떠올리게 하는데, 일본 전국을 경악시킨 옴진리교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집단이 그렇게 허무맹랑하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마츠이 슈는 이런 미치광이를 통해 어떤 세계를 그리고 싶었던 것일까? 그는 오히려 이렇게 묻는다. "현대사회에서 이 작품 속에 있는 집단이 그렇게 특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나보다는 '우리'가 더 중요시되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감하며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무대 위에서 점장과 점원이 믿어 의심치 않는 가치와 신념이라는 것이 무대 밖에 있는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집단 안에서는 그것을 구별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지금 일본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지하실〉 공연에 있어서 초연 때와 지금의 큰 차이는, 바로 3·11 대지진을 겪기 전과 후라는 점이다. 그 날의 공포를 함께 나눈 일본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폐쇄된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무대 밖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보든, 특별한 경험을 나

■ 연극 '지하실' ©Tsukasa Aoki





■ 연출가 마츠이 슈(松井周) ©岩村美佳

눈 그들은 자신들만의 믿음으로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있다.

마츠이 슈의 또 하나의 대표작 <자랑스러운 아들>은 바로 이러한 그의 통찰력과 이어진다. 어느 연립주택에 사는 남자가 자신의 집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 안으로 남자의 어머니와 일본을 떠나 망명하려는 남매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다. 여기에서 이 남매가 근친상간의 관계라는 점이 파격적인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마츠이 슈는 “사람들이 오락을 위해 개들한테 싸움을 시키죠. 그 개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친혼도 시킵니다. 여기서 저는 만약에 이런 행위를 인간에게 하면 어떨까, 하고 상상을 합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세상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가 아닌, 인간이 아닌 시점에서 인간을 그려나가는 작가이다. 그 과정에서 ‘집단’이라는 테마는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될 것이다. 사람은 모두가 다 다르지만,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뭉치면 ‘이상한 동질감’ 같은 것이 생기면서 비슷비슷한 하나의 덩어리가 되기 때문이다. 마츠이 슈는 바로 거기에서 그로테스크를 느끼고, 그 느낌을 생생하게, 또 극대화시켜 무대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 존재인가, 그의 눈에 비친 ‘인간들이 만드는 광기’는 과연 특수한 것일까 보편적인 것일까, 이 같은 마츠이 슈의 강렬한 물음은 간혹 방관적이고 소극적이라고 비난받은 많은 일본 젊은 연극인들의 작품세계와는 분명히 다르다.

■ 연극 '지하실' ©Tsukasa Aoki



세르반테스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돈키호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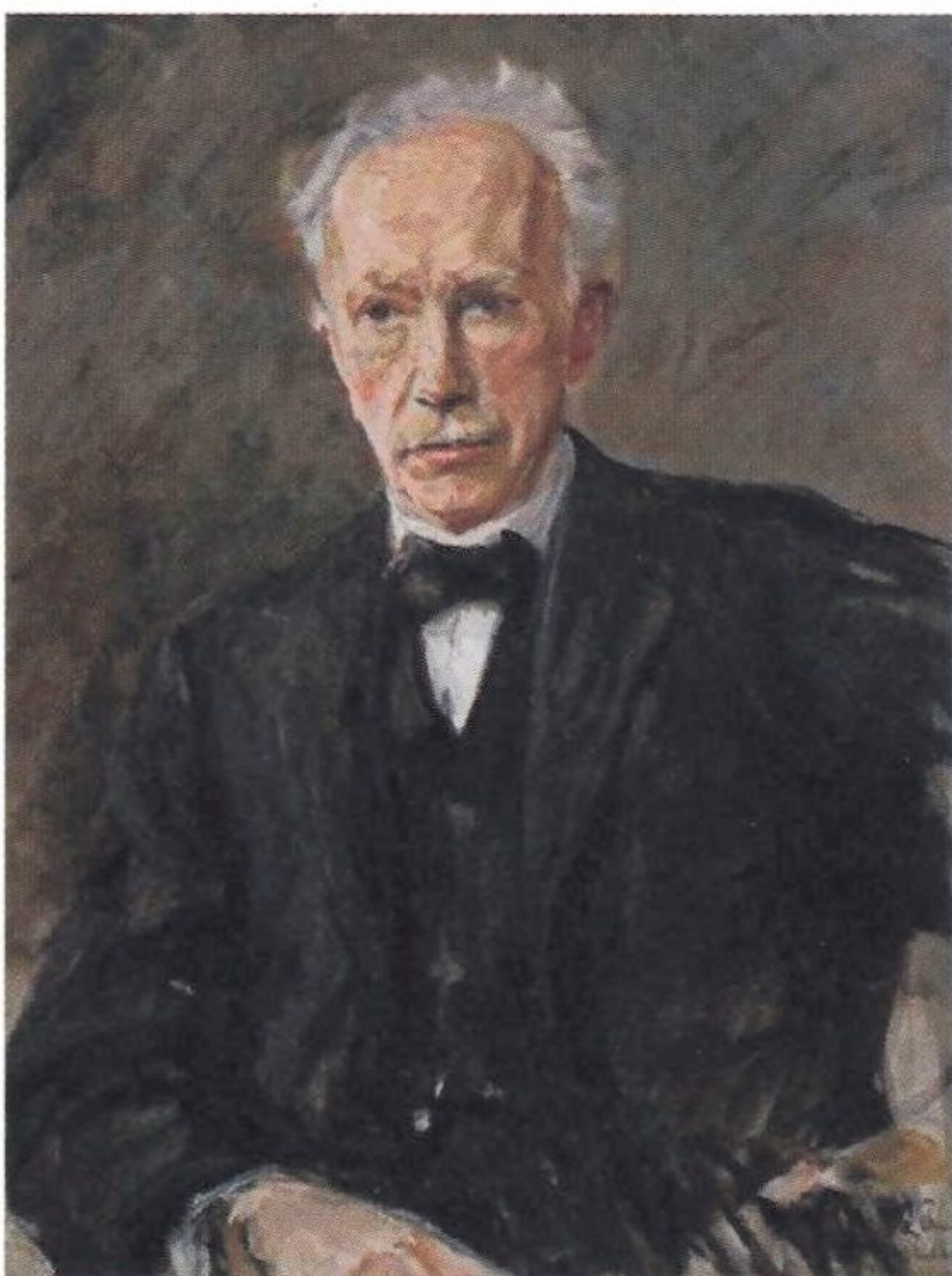
■ 이동신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최초의 근대 소설로 평가되는 《돈키호테》는 스페인의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1547-1616)가 지은 소설이자 주인공의 이름이다. 1605년 《재치 있는 신사 라만차의 돈키호테》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 소설은 출판 즉시 큰 인기를 얻어서 당시 스페인 국왕 펠리페 3세는 길가에서 책을 들고 울고 웃는 사람을 보면 “저 자는 미친 게 아니라면 돈키호테를 읽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말한 일화마저 전해진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1615년에는 속편이 발표되었으며 이 작품은 지금도 스페인 황금기의 대표적인 문학일 뿐 아니라 문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으로 꼽힌다.

스페인에서 출생한 세르반테스는 가난한 외과의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때문에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 스물네 살 때 그는 스페인의 연합함대가 오스만제국을 물리친 레판토 해전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왼손이 불구가 되었는데, 그는 ‘오른손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왼손이 불구가 되었다고 익살을 떨었다. 불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아 귀국 길에 오르던 중 그가 탄 배가 터키 해적들에게 피랍되어 5년간 억류 생활을 했고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에 그의 가족이 거액의 몸값을 지불함으로써 겨우 풀려났다. 그는 마드리드로 돌아와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돈벌이가 되지 않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세금징수원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송사가 끊이지 않아 투옥과 석방이 반복되는 빈곤한 생활을 계속하던 중 신여덟 살 옥중에서 구상한 《돈키호테》를 출판한 후 일약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 당시 스페인의 대중들은 기사들의 상투적 무용담을 즐겨 읽고 있었는데 그는 발상을 달리 하여 기사도를 풍자하는 소설을 쓴 것이다. 세르반테스는 우연히도 셰익스피어가 사망한 날인 4월 23일에 세상을 떠났다.

《돈키호테》의 주인공 케하나는 시골귀족이다. 그는 경작지를 모두 팔아 서가를 기사소설들로 채우고 밤낮으로 읽은 후 마침내는 정신이상이 되고 만다. 점차 상상 속에 빠져든 그는 스스로를 ‘돈키호테 데 라만차’라 칭하며 원래는 농부인 그의 하인 산초 판사와 함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자신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 방랑기사의 길에 나선다. 기사로서 마땅히 기사도를 발휘해야 할 연인은 돌시네아 델 토보소인데 사실은 이웃에 있는 농부의 딸이다. 이후 그는 스페인을 돌아다니며 사라진 전설의 기사를 모델로 하여 처녀들의 순결을 지키고, 과부들을 보호하고, 불쌍한 사람이나 고아들을 구제하는 일, 즉 기사도를 복원하고자 노력한다.

《돈키호테》는 문학사상 가장 재미있는 작품 가운데 하나다. 그 이유는 첫째로 서양 근대 소설의 효시로서 후대 작가들의 창작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 소설의 근대성은 특히 인물 묘사와 그것의 발전 과정에서 두드러진다. 둘째로 이 소설은 호메로스의 ‘오뒷세이아’의 뒤를 잇는 기상천외한 모험담이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은 해학과 풍자의 극치다. 돈키호테의 엉뚱한 행동 뿐 아니라 기사도의 이상에 몰입한 돈키호테와 지극히 현실적인 산초 판사 사이의 엇나가는 대화가 웃음을 자아낸다. 세르반테스는 이 소설에서 유익한 즐거움을 강조하는 고전주의 이상을 따라서 귀찮은 설교를 늘어놓기보다는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추구한다. 돈키호테가 만인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가 눈앞에



■ 슈트라우스

보이는 현실을 부정하고 보다 가치 있는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의 전형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깡마른 말을 탄 늙은 기사와 통통한 당나귀를 탄 작달막한 종자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후기 낭만주의의 거장 리하르트 슈트라우스(1864~1949)는 이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를 가지고 표제음악을 만들었다.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의 기본 주제와 함께 그들의 모험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음악적이면서도 사실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 풍차를 향해 돌진해 가는 중에 불어오는 돌풍, 풍차에서 떨어지는 모습, 상상의 여인에 대한 환상, 사랑의 이중창, 충성의 맹세, 돈키호테와 산초와의 대화, 강물을 따라 떠가는 나룻배, 흠뻑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돈키호테의 죽음 등 이 작품에는 슈트라우스의 음악적 표현력이 가히 천재적이라고 할 만큼 잘 묘사돼 있다.

슈트라우스가 <돈키호테>를 작곡한 것은 그의 나이 서른세 살 때이다. 니체의 저작에서 영감을 얻은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발표한 후 작곡한 이 작품은 그 내용의 폭과 깊이 면에서 <차라투스트라>에 비해 결코 모자라지 않으면서도 한결 여유롭다. 즉 이 작품의 밑바탕에는 <차라투스트라>를 통해서 다져진 슈트라우스 특유의 철학적 사유가 깔려 있으며, 나아가 전작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것을 보다 성숙한 시선과 필치로 풀어낼 수 있었다.

슈트라우스는 이 작품을 '기사적 성격을 지닌 하나의 주제에 의한, 대관현악을 위한 환상적 변주곡'이라고 불렀는데 교향시로서는 드물게 변주곡 양식으로 작곡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주제'란 물론 '돈키호테'를 가리킨다. 악곡은 여기에 '산초 판사' '둘시네아' 등을 나타내는 동기들이 독주 악기들이 연주하는 일종의 협주곡 형태로 얹히면서 다채롭게 전개되며 특히 첼로를 위한 협주곡 형태로 10가지 변주를 통해 장편소설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각 변주는 돈키호테의 유명한 에피소드들을 슈트라우스 특유의 생생하고 절묘한 관현악 기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돈키호테의 이면성, 즉 현실과 공상의 세계, 의지와 가능성을 교묘하게 대립시킴으로써 그의 갖가지 기행을 보여주고 거기에 슈트라우스의 탁월한 관현악법이 유머러스한 색채감을 더하여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한 느낌을 주는 교향시의 걸작이다.

서주는 플루트와 오보에가 보편적인 중세기사의 성격을 묘사한 멜로디를 연주하는 가운데 돈키호테의 주제가 독주첼로로 들어감으로써 중세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사모하는 귀부인 둘시네아를 묘사한 바이올린 선율이 이어서 나타난다. 이어 산초 판사의 주제가 등장한다. 돈키호테가 섬을 정복하면 그 영주로 삼겠다고 약속한 촌스럽고 아둔한 산초 판사의 모습을 베이스 클라리넷과 테너 튜바, 독주 비올라로 경박하게 그린다. 서주가 끝나면 '왕년의 달리기 선수'라는 뜻의 비쩍 마른 말 '로시난테'와 함께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가 모험의 길을 떠나는 장면부터 변주가 시작된다.

제1변주는 돈키호테가 거인으로 오해한 풍차로 돌진하는 장면이며 독주첼로의 역할이 눈부시다. 돈키호테가 추락하는 순간 첼로소리도 멈춘다. 제2변주는 대규모 군대라고



■ 스페인광장 앞에 서있는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의 동상. 그 뒤로 작가 세르반테스의 동상이 보인다.

생각한 양떼를 만났을 때 독주 첼로가 기세등등하게 돌진하는 돈키호테의 모습을 그린다. 제3변주는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와의 대화와 갈등을 그린 판타지로 변주곡 중 가장 장대한 규모이다. 제4변주는 돈키호테가 흰 옷을 입은 한 무리의 참회자들을 만났을 때 여자 옷으로 감싼 나무조각상을 보고 귀부인이 납치되었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구출하려고 한다. 역시 독주첼로가 눈부신 활약을 한다. 제5변주는 둘시네아의 멜로디와 그녀에 대한 사랑을 우아하고 매혹적인 독주바이올린과 하프의 선율로 보여준다. 제6변주는 현악기 없이 목관과 작은 북으로 시작하면서 둘시네아에 대한 끝없는 열정에 사로잡힌 돈키호테를 독주첼로가 유머러스하게 묘사한다. 제7변주는 거인족을 정복하는 착각에 빠진 모습을 슈트라우스 특유의 풍성한 관현악법으로 보여준다. 제8변주는 물에 흠뻑 젖은 돈키호테의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독주첼로로, 산초 판사는 파곳과 튜바로 묘사하고 있다. 제9변주 빠르게 폭풍처럼 연주하는 비올라와 첼로가 의기양양한 돈키호테의 주제를 연주한다. 마지막인 제10변주는 돈키호테의 친구 칼라스코가 화려한 관악기로 표현되며 그와의 결투에서 진 돈키호테는 그에게 명예와 찬사를 보낸 후 쓸쓸히 귀향길에 오르는 풍경이 그려진다. 피날레에서 돈키호테는 꿈에서 깨어난다. 독주 첼로가 쓸쓸하게 과거의 회상을 그리면서 공상을 쫓던 한 인간의 삶이 막을 내린다.

결혼, 그리고 20세기의 드뷔시

드뷔시는 그의 오페라 'Pelléas et Mélisande(펠리아스와 멜리장드)'에서 여 주인공 멜리장드를 연상시키는 Lilly를 만났다. 그녀와의 결혼을 위해 드뷔시는 매우 설득력 있는 편지를 보낸다. '나는 더 이상 젊은 청년이 아니며 정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껏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부드러움과 헌신과 보살핌으로써 당신을 행복하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삶의 매 순간에 보살피겠습니다'라고 쓴다.

그러나 1890년대 말 계속된 경제적 불안은 결혼식 당일 아침에 피아노 레슨을 해야 했고 결혼식 식사를 마치고 버스를 탈 돈이 없어 걸어 돌아와야 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1894년 출판업자 Georges Hartmann이 드뷔시의 작품을 출판하는 조건으로 매 달 500프랑을 약속했음에도 그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다. '만약 당신을 만나는 굉장한 행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쓰는 등 드뷔시는 Hartmann에게 감사의 마음과 그의 기분을 맞추어주기 위한 편지를 많이 쓴다.

1901년 펠리아스와 멜리장드의 성공 이후에 드뷔시는 유명해졌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현대 작곡가로 알려져 그의 삶과 음악 모두가 대중에게 공개되게 된다. 드뷔시와 그의 부모는 그의 성공을 즐기지만 친구인 사티는 부유함을 쫓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펠리아스와 멜리장드의 초연 이후에 드뷔시는 피아노 음악에 신경을 쓰게 되며 Suite pour le piano와 Estampes를 작곡한다. Pour le piano(피아노를 위하여)는 바흐, 쿠프랭, 그리고 라모의 영향을 받은 곡이며, Estampes(판화)는 동양과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를 묘사하는 그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00년 4월, 매월 500프랑씩을 지급해주던 출판업자 Hartmann이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 드뷔시는 또다시 큰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드뷔시 부부는 빈민에 불과한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은 둘의 관계까지도 좀 먹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드뷔시는 어려움을 극복해 냈고 몇 년 후에는 그의 유명세로 인해 연주 여행을 하는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1901년부터 드뷔시에게 새로운 인연이 나타난다. 1890년대에 포레의 내연녀였던 Madame Emma Bardac은 드뷔시의 어린 시절 Marie Vasnier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겠다. Marie의 경우와 같이 Emma도 열일곱의 나이에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었고 또한 성악가였다. 포레의 경우에는 그녀로 인해 La Bonne Chanson을 작곡했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1904년 드뷔시의 아내 Lilly는 자살시도를 한다. 그 해 드뷔시의 나이가 마흔 둘이었고 결국 Lilly와의 관계는 종말을 맞이한다.

■ 최윤희

피아니스트, 고신대학교 및 동대학원 출강



■ Claude와 Lilly Debussy(19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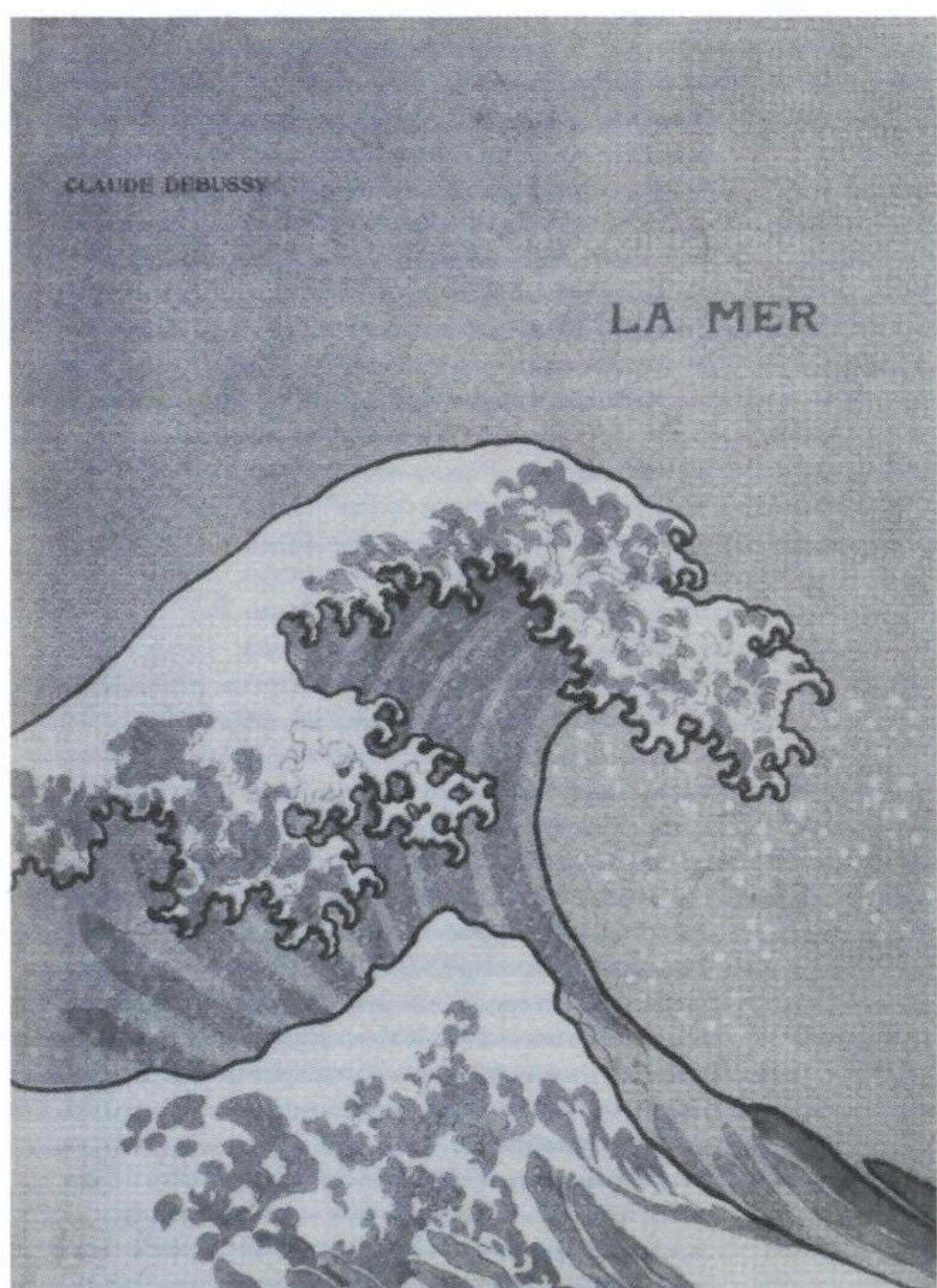
■ 드뷔시와 딸 Chouchou(1916년)



■ Emma Bardac(1904년)

1905년 5월에는 Emma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드뷔시는 8월에 이혼을 한다. 같은 해 10월에는 딸 Claude-Emma(CHouchou)가 탄생한다. 그러나 Emma와 Debussy는 실제 결혼을 1908년까지 미루었다.

20세기에 들어 인상주의 성격이 더욱 강해진 드뷔시의 작품에는 La Mer(바다), L'Isle joyeuse(기쁨의 섬), Images(영상) 등을 들 수 있다. 그는 이제 계속해서 시각적인 은유를 마음에 담고 있다. Images는 1894년 출판되지 않은 피아노 음악에 사용한 제목인데 그 아이디어를 이제 확실히 하고 있다. La Mer의 초판 표지에는 일본화가 호쿠사이의 파도 그림을 넣고 싶어 했다. 제목 바다와 마찬가지로 각 악장도 그림의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첫 악장은 새벽부터 정오까지의 바다, 둘째 악장은 파도의 장난, 그리고 셋째 악장은 바람과 바다의 대화이다. La Mer와 관련해서 드뷔시는 '생각하지 말고 들을 것'을 강조했다. L'Isle joyeuse은 1904년 드뷔시가 Emma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작곡했다. 피아노 음악이지만 교향곡의 소리를 가지고 있고 금관 악기와 타악기가 들리는 듯하다.



■ LA MER의 표지

La Mer를 초연하면서 드뷔시는 새로운 출판업자로부터 매년 12,000프랑을 약속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뷔시는 경제적으로 여전히 압박을 받는다. Emma는 드뷔시와의 결혼 때문에 유산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고 드뷔시의 전 부인 Lilly에게 매년 5,000프랑을 주어야 했다. 집세도 비쌌고 한편으로 드뷔시가 여러가지 물건들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 경제적 어려움은 더 컸다. 이 무렵 집세는 지난 번 살던 집의 여덟 배 가격인 연 8,000 프랑이었다. 이 집은 방이 열 여덟 개가 있었고 드뷔시는 일 하는 사람

들과 차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Erik Satie를 제외한 당시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드뷔시와 비슷한 생활을 했었으며 드뷔시만 유일하게 경제관념이 없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그가 말했듯이 '예술가란 꿈과 환상 속에 사는 사람'이니 말이다.

1910년 즈음에 드뷔시는 시대를 이끄는 중요한 작곡가로 알려져 있었고 연주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해에는 드뷔시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큰 해였다. Emma와의 관계가 문제였지만 그는 문제라고만 언급할 뿐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당시 드뷔시는 그의 아내 Emma와 딸 Chouchou 그리고 Emma의 자녀들로 인해 행복한 생활을 해 오던 터였지만 그의 몸에는 이미 암이 존재하고 있었다.

1905년에서 1913년 사이에는 오케스트라를 위한 Images를 작곡했다. 라벨은 이 곡을 무척 좋아했다. 같은 시대 독일에서는 쇤베르크가 무조성음악을 작곡하고 있었으나 드뷔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길이었다. 또한 사티가 가는 방향과도 무관한 길을 걷고 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드뷔시는 연주 여행과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병을 극복하고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뷔시는 1918년 3월 25일 마지막 숨을 거둔다. 56년을 채 살지 못한 위대한 프랑스 작곡가의 삶이 막을 내린 것이다.

단원이 고목을 그려 마음의 평정을 얻다 고목석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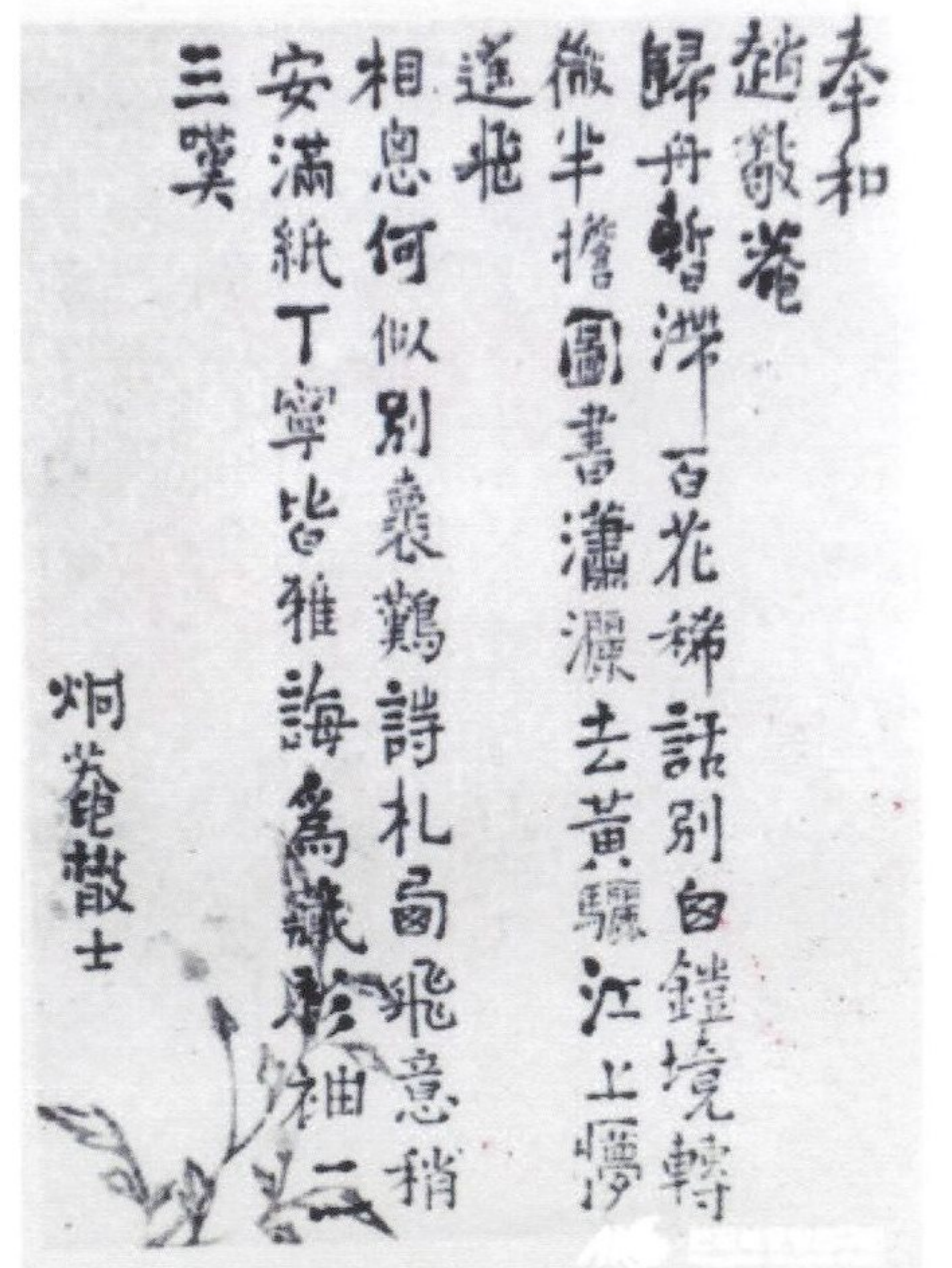
■ 변광석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호된 추위에 고목의 그루터기에서 새 움이 싹트고 여기에도 꽃망울 몇 점이 발롱발롱 터지면 얼마나 반가울손가. 조선중기 문인 간이(簡易) 최립(崔崧:1539~1612)은 임진왜란 위기를 겪은 뒤에 이런 꽃망울을 보고 옛 추억이 새삼스럽게 북받쳐 올라오면서 마음이 꼭 상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윽한 행원(杏園)을 그리는 마음으로 쓴 글이다. 전쟁통을 겪은 뒤의 마음과 몸을 추스르려는 속내가 이해된다. 원래 고목은 더 이상 잎과 꽃을 피우지 못하더라도 드러눕지 않는 법이다. 게다가 아무리 춥기로서니 쉬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찾아줄 새를 기다리며 옹골차게 견뎌낸다.

고목의 늠름함을 생각하며 오늘 감상할 작품은 김홍도의 <고목석죽도(古木石竹圖)>, 종이수묵, 109.1×60.6cm, 개인소장이다. 담백하면서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문인화풍의 수묵화다. 화면의 중앙공간을 움켜지고 고목이 뻗어 있다. 개울을 끼고 선 고목의 줄기는 앙상한 가지를 펼쳐 놓았는데, 뒤쪽의 대밭과 바위가 공간감을 도와주고 있다. 외유내강이라고 했던가. 고목이 부드러우면서도 기품이 느껴진다. 그루터기와 바위운곽의 묵선이 안정감이 있는 반면에 가지에 배열된 묵점이 약간 까칠한 느낌을 준다. 여기서 화제의 시를 통해 그림을 읽어보자.

비탈진 돌을 감싼 나무 성긴 가지에 태고빛 의연한데 / 籠巖石上木 枝疎太古色
연주객을 울면서 보낼 저녁 까마귀 없음이 한스럽네 / 只恨無夕鷓 啼送蓮舟客
비원평(肥園評)

숲속의 고목이 비록 성긴 가지를 안고 있지만 의연한 태고색의 자태를 품고 있음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아뵘새 저녁을 맞아 울어줄 까마귀를 빠뜨렸으니 안타까움을 남겼다. 이처럼 제화시로 그림을 찬평한 사람은 조선후기 문신 비원(肥園) 박규순(朴奎淳:1740~?)이다. 그다지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정조가 즉위한 직후 문과에 급제하였고 시파(時派)로서 부수찬·교리·공조참의 등을 역임하며 사치 풍조를 막는데 힘썼던 인물이다. 우연히 형암 이덕무(李德懋:1741~1793)와 인연이 된 적이 있었다. 박학다식하기 그지없고 기문이서(奇文異書)에도 통달했던 이덕무는 북학과 실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에 평소 가



■ 이덕무의 필적

고싶어 했던 중국에 마침 초재(蕉齋) 심엄조(沈念祖:1734 ~1783)가 사 은겸진주사(謝恩兼陳奏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서 가게 되자, 친분이 있던 차에 함께 가기를 청하여 따라가게 되었다. 그 때 고양(高陽)에서 첫 날밤 유숙하면서 박규순을 처음 만났는데, 그 소감을 다음과 같이 썼다.

〈홍제원에서 주서(注書) 박규순(朴奎淳)을 만났다. 초면이었다. 그는 나와 문예(文藝)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청하면서 상사(上使)를 전송한 서(序)와 시(詩)를 내보였다. 그 글은 모두 속기를 벗어나 진부한 말이 없었다. X청장관전서〉 제66권, 입연기 상(入燕記上), 정조 2년 3월 17일

대문장가의 눈에 비친 박규순의 문기(文氣)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은 연경(북경)에 체류하면서 서책이나 시서화를 많이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화면 왼쪽에는 문신학자 청성관(靑城館) 성대중(成大中 :1732~1812)이 이름과 호를 관지와 도인으로 눌러 놓았다. 성대중은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했으나 서얼이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순조로운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다. 영조의 탕평정책 분위기를 타고 서얼들이 이에 편승하여 신분상승을 위한 서얼통청운동(庶孽通淸運動)을 일으키자, 이에 힘입어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일본에 통신사를 수행하여 다녀온 적이 있고, 흥해군수로서 선정을 베푼 바 있다. 나중엔 정조가 극진하게 보살펴 주었으나 신분적 한계로 인해 벼슬이 부사에 그쳤다. 무엇보다도 그는 육경고문(六經古文)에 조예가 깊어 패관문체를 일신하려는 정조의 문체반정(文體反正) 정책에 적극 호응했으니 북학과 실학 분위기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었다. 그림 속에 그의 흔적이 들어간 이유는 오래 전부터 김홍도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784년 여름 단원이 안기찰방 시절에는 경상감사 이병모(李秉模:1742~1806)가 대구감영에 불러모은 징청각아집(淸淸閣雅集)과 청량산의 유람행에 마침 인근 흥해에 목민관으로 와있던 성대중과 동행한 바도 있었다. 당시 이병모는 김홍도의 그림을 무척 좋아했고 임기를 마치고 한양에 올라갈 때 〈징청각아집축〉의 시화축을 받아가기도 했다. 이렇게 지방에서도 김홍도는 사대부들과 함께 시서화와 풍류로 교류하고 있었다. 바로 옆에는 김홍도가 북송의 대문호 '동파(東坡) 소식(蘇軾:1036~1101)의 필법으로 그렸다'(以東坡筆法寫)고 밝히고는 '단원'의 관지를 눌렀다. 그렇지만 필법의 모방이라기보다는 동파를 비롯하여 여러 문인들에 의해 북송대에 유행했던 화풍을 의식하면서 조선적 문인화풍으로 구사해 놓았다. 일찍이 동파는 남종화(南宗畫)의 비조로 불리는 왕유(王維)의 그림과 시를 보고 감탄하며 '시를 읽으면 그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을 읽으면 그 속에 시가 있다'(詩中有畫 畫中有詩)고 갈파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김홍도는



■ 고목석죽도

고목석죽을 그윽하게 묘사했고 박규순은 그림을 보고 마음의 즉흥을 시로 옮겨 놓았다.

동파보다 한세대 앞서 태어나 북송대에 문학으로 이름 날린 송상(宋庠:996~1066)의 시에 '고요한 마음은 거의 자기의 재가 식으려네'(冥心將冷子綦灰)라는 구절이 있다.〈동문선〉제13권, 칠언율시. 이는 〈장자〉에 남곽자기(南郭子綦)가 의자에 앉아 명상하고 있는데, 안성 자유(顏成子游)가 모시고 있다가 말하기를, "어떻습니까. 몸을 진실로 고목같이 하고 마음을 진실로 식은 재같이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한테서 유래한 말이다. 이렇게 고목처럼 몸과 마음을 침잠시켜 명상을 하면 새로운 한 생각을 얻을 수 있다. 고목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오페라를 대중 속으로

오페라 전용 감상실 서퐁짜리 오페라



■ 운영자 서진식

오페라만을 감상할 수 있는 전용감상실이 부산에 문을 열었다. 지난 1월 19일 중앙동 백산기념관 맞은편에 문을 연 오페라 전용 감상실 '서퐁짜리 오페라'가 바로 그 주인공. 브레히트의 희곡에 작곡가 쿠르트 바일이 곡을 부친 서사극 '서퐁짜리 오페라'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다.

'서퐁짜리 오페라'는 1728년 런던에서 초연되어 인기를 끌었던 존 게이의 '거지 오페라'를 개작한 작품이다. '거지 오페라'는 그 당시 유행하던 이탈리아 궁정 오페라나 헨델의 오페라에 대한 대안으로, 18세기 영국사회의 부패상을 풍자하는 새로운 형식의 발라드 오페라였다. 즉 화려하고 돈이 많이 드는 '귀족적인 오페라'에 대한 비판적 풍자로, 오페라는 거지들도 볼 수 있을 만큼 저렴한, 즉 '서퐁짜리 오페라'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클래식 애호가들이 늘면서 오페라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지만 아직도 비싼 관람료 때문에 오페라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누구나 이 곳에서 오페라를 편하게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서푼짜리 오페라’ 운영자인 서진식 씨는 오페라의 저변확대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름을 선택했다. 서진식 씨는 ‘서푼짜리 오페라’를 부산 지역 오페라 애호가들 뿐 아니라 오페라라는 낯선 장르가 궁금하지만 그 접근방법을 잘 모르는 입문자들을 위한 사랑방으로 만들고 싶다.

오랫동안 금융계에서 일해오다 지난해 퇴사한 서진식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클래식매니아이다. 4~5년 전 오페라의 매력에 빠지면서 그동안 1,000여편이 넘는 오페라를 감상했다는 그는 클래식동호회인 국도클래식동호회와 음악감상실 무지크바움에서 70여차례 오페라 강좌를 이끌기도 했다.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구덕도서관 목요오페라감상회를 시작으로 4월 중앙도서관 청소년 오페라 길라잡이 등 공공도서관의 문화강좌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을 오페라의 세계로 이끌 계획이다.

감상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4평 규모의 공간에 중앙 벽면을 채운 스크린과 오디오 시스템, 객석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제대로 된 오페라 감상을 위해 전체 경비의 80%를 오디오 시스템에 투자했다. 스크린과 객석까지의 거리 또한 4m이상 떨어지게 하는가 하면 객석 의자의 높이를 다르게 하여 관람에 방해받지 않도록 꼼꼼히 신경썼다. 또 쾌적한 감상 환경을 위해 정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푼짜리 오페라’에서는 매일 다른 주제별로 상영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밀라노 라 스칼라, 빈 국립극장 등 세계 유수의 오페라하우스에서 올려진 2000년 이후 공연 중 한글 자막이 지원되는 최신 공연물을 우선 상영한다.

특히 올해는 베르디 탄생 200주년, 바그너 탄생 200주년을 맞아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베르디 오페라 26편 전작과 레퀴엠까

지 총 27편의 작품을 감상하는 일명 ‘베르디 대장정’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글자막이 지원되는 최신 블루레이 영상물을 통해 올해동안 베르디 오페라 전작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악극이라는 새로운 분야로 오페라라는 장르를 극한으로까지 몰고간 바그너의 작품을 소개하는 ‘바이로이트 대장정’도 함께 진행한다. 바그너 작품 전용극장인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에서 공식적으로 올려지는 10작품을 모두 감상하는 자리로, 역시 한글자막 지원 영상물로 준비된다. ‘바이로이트 대장정’은 상영시간만 4시간이 넘는 작품들이라 주로 주말을 이용해 감상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 2월과 4일과 6일에는 오페라 칼럼니스트이자 국내 최초의 클래식 전문 음반매장 ‘풍월당’ 대표인 박종호씨가 ‘서푼짜리 오페라’를 찾아 클래식 강좌를 열기도 했다.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입문자들에게는 반드시 한글자막이 지원되는 영상물을 권합니다. 아무리 내용을 숙지하고 보더라도 그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작품을 즐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대부분의 오페라 작품이 고전문학을 기반으로 했기에 원작소설을 함께 접하는 것도 오페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서진식 씨. 전체 맥락을 꿰고 느끼는 감동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그래서 유명 아리아 중심으로 편집된 음반은 되도록 듣지 않기를 권한다.

“2018년에는 부산에 오페라하우스가 개관합니다. 그 오페라하우스의 객석을 채우는 것, 그것이 서푼짜리 오페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푼짜리 오페라’는 올해 감상실 공간을 알려나가는데 치중하고 내년 부터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와 연주회를 가져나갈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 당분간은 일주일에 한번 열리는 부산오페라동호회 모임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을 위한 오페라 감상실로만 운영할 계획이다. 입장료 5천원, 월요일은 휴관한다.

문의_ 서푼짜리 오페라(991-8541, cafe.daum.net/dreigroschenoper)





천년을 이어온 우리의 소리로 생활의 즐거움을 찾은

대금양상블 **천년의 소리**

세상의 근심거리를 없애고 평온하게 하는 힘을 지닌 만파식적(萬波息笛)의 정신을 잇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아마추어 대금양상블 '천년의 소리'. 2월 16일 자신만의 만파식적을 찾아 수련에 열심인 천년의 소리 대금양상블 연습실을 찾았다.

만파식적처럼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고 싶은 열정가들로 구성된 대금양상블 '천년의 소리'는 을숙도문화회관 문화교실 대금강좌 1기생 5명이 강좌 수료 후 지속적인 공부를 위해 의기투합, 지금의 연습실에서 대금을 배우고 있던 수강생들과 뜻을 모아 결성되었다. 2007년 3월, 정식으로 출범한 천년의 소리는 현재 30대



■ 아마추어 대금양상블 '천년의 소리'는 세상의 근심거리를 없애고 평온하게 하는 힘을 지닌 만파식적(萬波息笛)의 정신을 잇기 위해 땀 흘리고 있다.

부터 60대에 이르는 아마추어 연주자 20명이 천년을 이어온 우리의 소리를 전승하고 있다. 직업 또한 다양해 직원에서부터 경찰, KTX 기관사, 의사, 공무원, 스님 등이 대금을 인연으로 만나 심금을 울리는 최고의 앙상블을 만들고 있다.

“우리 음악이 좋아 함께 모인 만큼 가족 같은 분위기로 재미있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배우면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매달 1, 3주 토요일 사직동에 있는 연습실에 모이는 회원들은 '천년의 소리' 활동 이전부터 문화센터나 학원에서 대금을 배워온 열성파들. 평균 강습 기간이 만 10년이 넘는다.

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국 씨와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병곤 씨의 직업은 경찰이다. 달빛 아래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청아한 대금선율에 매료되어 더욱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김종국 회장은 딱딱한 업무의 스트레스를 대금으로 풀고 있다. KTX 기관사인 정선용 회원은 대금과 인연을 맺은 지 14년. 16일 출근시간 때문에 보통 때 보다 일찍 연습장을 나서면서도 정기연주회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정춘식 회원은 천년의 소리 회원들이 인정하는 모범회원이다. 그는 정해진 연습일 외에도 주 3일, 대저에서 사직동까지 오가며 연습에 열심이다. 천년의 소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을숙도문화회관 신선봉 관장은 '천년의 소리' 때문에 을숙도문화회관장에 지원했을 정도로 우리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우리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던 탓에 다들 배움에 대한 갈증이 컸던 것 같습니다. 프로 연주자가 아니면서도 한 악기를 10년 이상 연마하고 즐기는 회원들을 보며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웁니다.”

천년의 소리 지도위원으로 회원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국악인 강영진 씨, 김기표 씨는 회원들의 열정에 매번 놀란다. 그동안 문화생활에 취약한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공연을 열어온 '천년의 소리'는 창단 이후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정에서 위탁된 불우아동과 난치병 아동 등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정기연주회를 매년 개최해왔다. 국악대중화를 위해 천년의 소리 연습실에서는 기존 회원들 외에도 관심있는 일반인들이 대금강습을 받고 있고 1년간 수료한 강습생들은 '천년의 소리' 준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요즘은 3월 30일로 예정된 제6회 정기연주를 앞두고 회원들의 열기가 더 뜨겁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서용석류 대금산조를 비롯해 청성곡, 수연장지곡, 춤 산조, 국악관현악 '월광' 등 새로운 레퍼토리로 국악애호가들과 만날 계획이다.

문의_ 대금양상블 '천년의 소리' (010-5567-5318, <http://cafe.daum.net/daesori.com>)



도심 속 일상 탈출, 카페 움 목요일음악회

소프라노 장회진과 소리꾼 김아름이 들려주는 동서양의 음악 이야기

■ 박진홍_음악평론가

동래 교차로에서 명륜동 방향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 평범해 보이는 카페 '움'이 있다. 밖에서 보기에는 도심 속 어디서건 만날 수 있는 일상적인 장면일 뿐이다. 몇 개의 계단을 올라 안으로 들어서면 깔끔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인테리어가 된 카페의 정경과 함께 향기로운 커피향이 기분 좋음을 선사한다. 여기서 커피 한 잔의 여유만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다시 길을 나선다면 카페 '움'의 맛을 반도 즐기지 못한 것이다.

카페 안의 좌우측에 마련된 문은 자그마한 갤러리로 통한다. 커피향과 더불어 눈을 만족시키는 미술 작품들이 상설로 전시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부산 지역의 음악인들과 함께 만 들어가는 목요일음악회가 열린다.

커피와 미술, 그리고 음악을 모두 맛보아야 진정한 곳의 진미를 느껴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코끝으로 전해지는 향과 입안에 감도는 커피에, 눈으로 즐기는 미술 작품, 그리고 귀를 통해 마음으로 전해오는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까지. 그렇게 오감을 만족시키는 음악이 있는 '움'의 97회 목요일음악회를 찾았다.

2월 14일 저녁 8시, 카페 움에서는 소프라노 장회진과 소리꾼 김아름이 들려주는 동서양의 음악 이야기가 펼쳐졌다. 작은 공간에 놓여진 의자가 금새 차서 70여명의 관객이 자리한 가운데 연주가 시작되었다. 이날 김아름은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 등 남도민요와 춘향가 중 사랑가, 심청가 중 심봉사가 눈 뜨는 대목 등 판소리를 연주했다. 소프라노 장회진은 강 건너 봄이 오듯, 새타령, 아리아리랑 등 우리 가곡과 민요풍의 노래들을 선보였다. 그리고 두 연주자가 박타령과 아름다운 나라를 듀엣으로 노래했다. 이날 연주의 프로그램은 화려하거나 기교적이지 않고, 담백하면서도 애잔한 느낌을 주어 봄을 기다리는 늦겨울의 정취와 잘 어울리는 것이었다. 특히 맑고 힘 있는 소프라노의 음색과 구성진 우리의 소리가 가진 음색이 어우러진 듀엣 부분에서는 어깨를 맞대고 있는 관객들의 감흥을 한껏 느낄 수 있었다.

작은 공간에서의 음악회가 주는 매력은 불과 1미터

남짓의 거리를 두고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함으로써 느끼는 친밀감이다. 연주자의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함께 호흡하며 음악을 듣고 있노라면 짧은 순간에 작품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날 역시 소프라노와 소리꾼으로부터 번갈아가며 뿜어져 나오는 서로 다른 감성과 울림 속에 온 몸을 담그고 있는 듯한 편안함이 좋았다.

민요를 부르기 전 김아름은 관객들에게 추임새를 넣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쑥스러운 듯 따라하는 관객들의 모습이 작은 갤러리 안의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어색하게 앉아 있던 한 무리의 러시아인들의 입에서도 이국적인 정취를 함께 느껴 보려는 작은 추임새들이 흘러 나왔다. 연주 도중 김아름의 손짓에 따라 서투른 관객들의 추임새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때는 모두가 웃으며 유쾌한 마음으로 노래의 정취를 맛볼 수 있었다.

이날 연주는 한국적 발성과 유럽식 발성의 조화라는 대중들에게는 생소한 기획을 가지고 있었다. 늘 그렇듯 생소함은 신선한 맛을 느끼게 한다. 이 맛은 무대와 객석이 분리된 권위적 공연장이 가진 무게감을 벗어 던졌기에 더욱 맛이 깊다. 연주회를 마칠 즈음 객석은 좁은 공간에 100여명의 관객들이 앉거나 서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음악을 감상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음색과 표현들이 만나 하나의 조화로운 느낌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마치, 적절히 잘 블렌딩된 갓 볶은 신선한 커피원두를 갈아 마시는 것 같은 상쾌함과 맛을 느끼게 하는 음악회였다.



부산시립극단 제46회 정기공연

어무이 계사니

■ 신태범_소설가

부산과 평안도 사투리의 조합인 '어무이 계사니'라는 새 제목이 조금 의아했다. '어무이'는 어머니를, '계사니'는 거위를 말한다. 원작을 각색하더라도 내용을 뒤집는 패러디가 아니면 대개 제목은 바꾸지 않는다.

지난 2월 16일 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막을 올린 '어무이 계사니'는 부산시립극단 초대 예술감독 문석봉이 부산관객에게 처음 선보인 야심작이다. 이근삼(1929~2003) 희곡 '계사니'를 음악극으로 각색했다. 연간 제작비의 절반과 연기자 스태프 등 60여명이 동원된 준대작이라 기대도 컸다.

첫 장의 막이 오르면, 시대적 배경인 임진왜란의 시발점을 알리는 동래성 전투의 송상현 부사가 등장한다. 이어 무대는 평양성 밖의 외딴 주막으로 옮겨지고, 주모 '계사니'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의 대사에는 부산과 평안도 사투리가 절묘하게 뒤섞인다. 동래성 전투나 두 지역의 사투리 혼용, 모두 원작에는 없다. 제목처럼 재구성 과정에 덧붙인 것들이다.

그제야 처음의 의문이 풀린다. 로칼 칼라를 최대한 붙여넣어 부산관객과의 소통과 친화를 꾀하는 한편, 부산시립극단의 향후 정체성을 지향하려는 문 감독의 의지의 일단이 읽혀졌다.

이번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계사니'를 음악극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탐하는 오늘의 관객 취향에 다가서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작업이다. 특히 무대공간의 적절한 분할과 각종 무대 메카니즘의 폭넓고 다양한 활용은 공연 2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관객의 시선을 붙들었다.

작품에는 두 개의 큰 줄거리가 서로 교직한다. 하나는 민족사의 일대 참화였던 임진왜란 7년 전쟁의 축소판 기록으로, 임금을 비롯한 당대 지도층의 무능하고 한심한 대처에 대한 회화이다. 다른 하나는 '계사니'라는 억척스런 주모와 가족들의 비극을 통한 민초



들의 애환과 그 저변에 응축되어 있는 강력한 민중의 지의 발현이다.

다만 이번 공연에서는 그 두 개의 중첩적 열개를 거의 대등한 분량으로 확연하게 양분하여 병렬 전개하는 과감한 연출을 시도했다. 이는 성공여부를 떠나, 작품 속에 담긴 메시지들을 보다 강력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정리 전파하려 의도한 것으로 보여,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다.

그러나 도입부부터 작은 배경으로 따로 떼어 홀로그램(?)으로 처리하다가, 중반에는 실물 춤사위로 보여준 '살풀이'는 숨겨진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는 사족처럼 느껴졌다. 너무 잦은 회전무대의 활용과 공간이동, 더하여 독립된 두 개의 스토리 전개도 자연스러운 교집합으로 조화를 얻지 못하고 때로는 산만했다. 춤꾼과 고수 등 엑스트라들의 극 속에 녹아들지 못한 서툰 연기도 관객의 호응과 공감을 반감시키는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대담한 원작의 재구성과 개작으로 부산관객과 손잡으려 한 정성과 로칼 칼라로 시립극단의 정체성을 모색하려는 문 감독의 뜨거운 열정과 의욕은 앞으로의 향방에 더욱 큰 기대를 걸게 만들었다.



■ 영남루

매섭던 추위도 한풀 꺾이고 따스한 봄기운이 느껴지던 지난 2월 15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매월 둘째주 금요일 열리던 테마여행이 이번 2월에는 설 연휴와 겹치지면서 셋째주 금요일로 날짜를 옮겨 진행됐다. 2월의 테마여행지는 역사향기 가득한 충절의 고장 밀양. 이번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이화성, 윤은하 씨가 동참해 정기회원 가족들과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역사 향기가 가득한 충절의 고장 밀양



■김종직 선생을 기리고 있는 예림서원



■밀양의 3대 신비중의 하나인 땀흘리는 표충비각

한시간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진주 축석루, 평양 부벽루와 함께 조선의 3대 누각으로 꼽히는 영남루. 미리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 문성남 씨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밀양강변 절벽 위에 자리한 영남루는 강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화려하면서도 뛰어난 건축미가 조화를 이루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이다. 창건된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1365년(고려 공민왕 14년) 남아있던 사찰의 작은 누각을 헐고 새로 지은 뒤 영남루라 명명했다고 한다. 현재의 건물은 1834년(조선 순조 34년) 실화로 불타버린 것을 1844년(현종 10년)에 재건한 것이다.

특히 영남루에 가면 오랜 세월 동안 누대에 걸쳐 유명 시인묵객이나 관료들이 남긴 개성적인 필체와 시문을 만날 수 있다. 가히 현판 글씨의 전시장이라 할 만한데, 옛사람들이 영남루에 바친 찬사는 이곳에 걸린 현판만 읽어도 알 수 있다. 누각 안쪽 가운데 딱하니 걸려 있는 '嶺南第一樓(영남제일루)'를 비롯해 嶠南名樓(교남명루·문경새재 남쪽의 이름난 누각), 江左雄府(강좌웅부·낙동강 왼쪽에 있는 아름다운 고을), 湧金樓(용금루·높은 절벽에 우뚝 솟은 누각), 顯敞觀(현창관·사방이 높고 넓게 나타난다), 江城如畫(강성여화·강과 성이 그림 같다) 등 현판의 글귀만 봐도 영남루에 대한 자부심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더불어 퇴계 이황, 목은 이색, 삼우당 문익점 등이 남긴 현판은 영남루에 대한 옛사람들의 애정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영남루 한켠에는 '애수의 소야곡' '낭랑 18세' 등 대중가요 3천여곡을 작곡한 박시춘 선생의 생가와 밀양아리랑비가 자리하고 있다. 밀양아리랑비 앞에 서자 흥겨운 밀양아리랑 한자락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영남루 아래로 내려가자 이번에는 아랑전설이 깃든 아랑각이 회원가족들을 맞는다. 정절을 지키기 위해 억울하게 죽은 밀양부사의 외동딸 아랑을 애도하고 그 정절을 기리기 위해 지은 사당으로, 사당 안에는 이당(以堂) 김은호 선생이 그린 아랑의 영정과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얼마전 아랑전설을 소재로 한 TV드라마가 이 곳에서 촬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영남루를 떠나 도착한 곳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강직함과 기품을 확인할 수 있는 예림서원. 조선시대 영남 유림의 수장이었던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학문과 덕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예림서원은 1567년(명종 22년) 이도우(李度祐)가 창건해 덕성서원이라 이름붙였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져 1606년(선조 39년) 다시 지었다. 그 후 이름을 예림서원이라 바꾸고 지금의 위치로 옮겼는데 흥선대원군 시절 서원철폐령으로 헐렸던 것을 고종 11년에 다시 지어 오늘에 이른다. 경내에는 위패를 모신 육덕사를 비롯해 학문을 배우는 강당인 구영당, 생활공간인 돈선재와 직방재, 누각과 출입문을 겸하는 독서루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곳 장판고에는 김종직이 쓴 '이준록(彝尊錄)'과 '점필재집'의 목판이 보관되어 있다.



- 1. 밀양에서 태어난 사명대사를 기리는 유적지
- 2. 허브화분만들기 체험
- 3. 밀양아리랑 음악에 맞추어 부산시립무용단과 함께한 우리춤 체조



4월에는 청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당첨되신분은 정기회원 본인을 포함해 2인이 부산시립예술단과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엽서 부산문화회관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테마여행게시판
 마감 3월 15일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엽서당첨자

박옥희(남구 문현동)
 박희순(수영구 광안3동)
 이무룡(금정구 구서동)
 이애재(해운대구 좌4동)
 이운용(사하구 과정동)
 이정복(연제구 연산9동)
 한미영(영구 동삼동)
 한순주(서구 토성동)
 허종관(해운대구 중1동)
 황미숙(사상구 덕포동)

●신규가입자

김경태(금정구 구서2동)
 김동림(수영구 수영동)
 김성규(남구 남천동)
 김은경(남구 대연4동)
 김혜정(사하구 다대2동)
 박명옥(사하구 신평1동)
 유헌림(금정구 구서동)
 임옥남(사하구 장림1동)
 조재옥(부산진구 범천1동)
 최지훈(양산시 물금읍)

오전 일정의 마지막 장소는 '땀 흘리는 비'로 유명한 표충비각. 무안면 홍제사 내에 자리한 표충비는 사명대사(1544~1610)의 충의와 공적을 새긴 비석으로 일명 '사명대사비'라고도 불린다. 나라에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땀을 흘렸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신비한 비석으로, 얼음골, 만어사 경석과 더불어 '밀양 3대 신비'로 알려져 있다.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오후 체험일정을 위해 꽃새미 전통테마마을 입구에 자리한 참샘허브나라로 자리를 옮겼다. 꽃새미 전통테마마을과 참샘허브나라는 평생 농부로 살아온 손정태 대표가 꾸민 곳으로, 지난 2003년 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되었다.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향긋한 허브로 맛을 낸 허브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회원들은 식사 후 허브 수백 종이 전시된 허브온실을 비롯해 야생화가든, 기찻길, 108 돌탑길, 참샘쉼터, 원두막 등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허브마을을 돌며 여유로움을 만끽했다. 잠시 후 허브화분 만들기 체험이 열렸다. 이날의 체험 허브는 로즈마리. 저마다 분같이 한 로즈마리 화분을 들고 기념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이어지는 시간은 부산시립예술단 단원과의 만남. 부산시립무용단 이화성, 윤은하 씨의 지도에 따라 우리 춤사위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반주로 흘러나오는 흥겨운 밀양아리랑 선율에 어깨춤이 절로 추어진다. 테마여행의 마지막 일정을 위해 표충비각 인근에 자리한 '사명대사 유적지'로 자리를 옮겼다. 1만 여평이 넘는 이곳에는 복원된 사명대사 생가를 비롯해 사명대사의 약력과 영정이 전시된 기념전시관과 높이 3m, 폭 4m 규모의 충의문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역사, 문화가 함께했던 2월 테마여행. 생동하는 새 봄의 기운처럼 정기회원 가족들의 일상에 오랫동안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다.

Culture Life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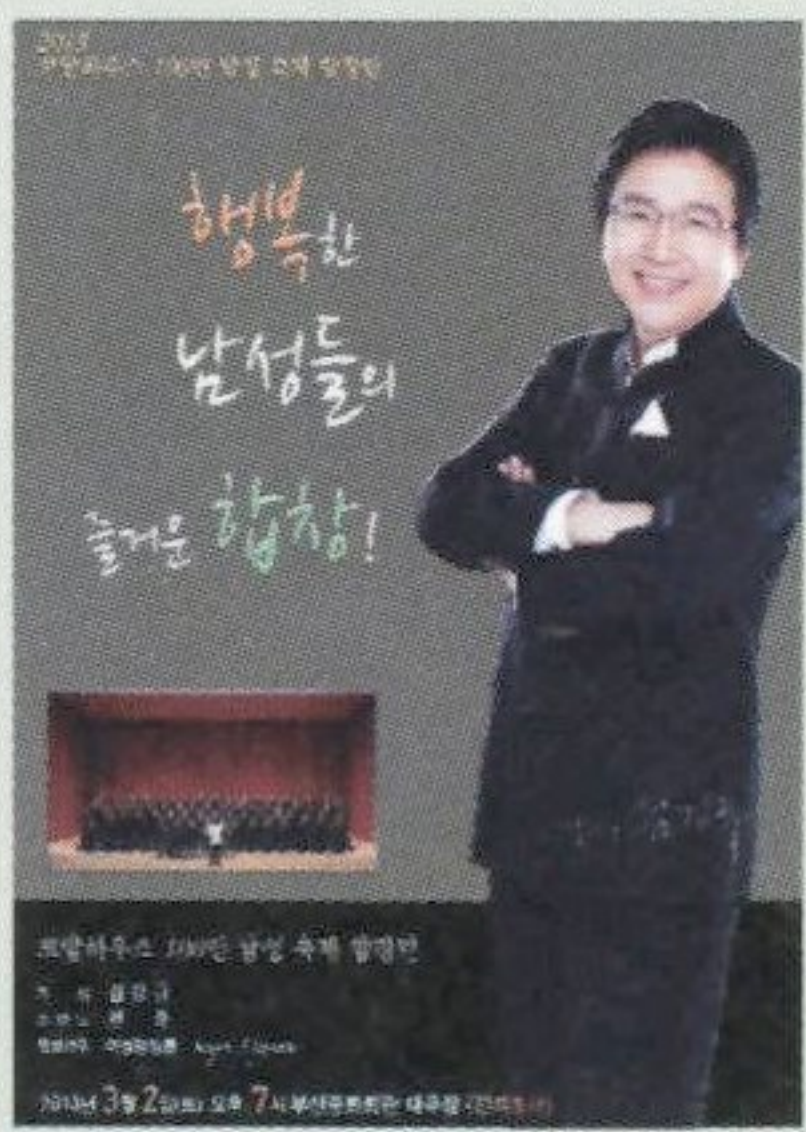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마골소극장 | 1588-9155
가온아트홀 | 1600-1602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향아트센터 | 1544-1555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 38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 44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 54 New Music
- 55 New Book
- 56 Special Movie
- 57 Special Event



2013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축제합창단
행복한 남성들의 즐거운 합창

3월 2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성만(010-4183-2293)



(사)송인문화재단(이사장/변원탄)에서 기획한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축제합창단'의 두 번째 무대. 전 부산시립합창단 수석 지휘자, 송인문화재단 음악감독 김강규의 지휘, 서울대학교,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과 미국 신시네티움대(박사)를 졸업한 권준의 피아노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역임한 이영조 교수의 특별 위촉곡, 성가, 가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거룩하게/만유의 주 앞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고백 둘 그리고 광야에서/우리들의 이야기(윤지영 편곡),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천영진 편곡), 광야에서(백헌주 편곡)
이영조 위촉합창곡/월정명(月正明), 줄 없는 거문고(無鉉琴銘) 등 수곡
· 지휘/김강규 · 피아노/권준
· 특별연주/여성앙상블 Sempre Elegante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66회 정기연주회
명인과 함께 하는 새봄! 2013, 신춘음악회

3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3)

생동하는 봄의 문턱에서 들려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명인과 함께 하는 새봄! 2013, 신춘음악회'. 우리가락으로 빚어내는 관현악의 생생한 울림을 통해 약동하는 봄의 풋풋함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이번 무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예능보유자로 안숙선 명인, 밝고 화려한 음색을 자랑하는 북한의 개량악기 장새납 연주자 이영훈이 부산국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지휘 김철호 창 안숙선 장새납 이영훈

▶프로그램

백규진/국악관현악 '왕의 귀환' (2013년 위촉 초연)
원일/국악관현악 '달빛 향해' (부산초연)
정동희/국악관현악 '대지의 숨'
김대성/장새납 협주곡 '봄' (부산초연)
김희조(편곡)/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 지휘/김철호(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안숙선(창), 이영훈(장새납)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3 신춘음악회(2013 부산연주인시리즈)

3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지휘 이동신 피아노 성민주 소프라노 이윤경

음악과 함께 활기찬 새봄의 기운을 느껴보는 부산시립교향악단 2013 신춘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의 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발레 모음곡, 왈츠 등 봄의 느낌을 담고 있는 신선하고 활기찬 레퍼토리로 싱그러운 봄을 선물한다. 부산출신 또는 부산에서 활동 중인 뛰어난 음악인을 발굴하는 '부산연주인시리즈' 연주자로 선정된 피아니스트 성민주가 들려주는 화려하고 풍부한 화성의 라벨 피

아노 협주곡과 함께 소프라노 이윤경의 글리에르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를 위한 협주곡' 등으로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 '잠자는 숲속의 미녀' 모음곡 중 라벨/피아노 협주곡
거슈윈/ '쿠바' 서곡
글리에르/콜로라투라 소프라노를 위한 협주곡 등
· 지휘/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피아노/성민주 · 소프라노/이윤경

전장수 기타 독주회

3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문의 | 위 뮤직(031-321-8958)



'한국인 기타리스트 최초 카네기홀 독주회' '한국인 최초 예일대 출신 클래식 기타리스트' '끊임없는 열정이 만든 섬세한 감동의 울림' '가슴이 뜨거운 연주자'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전장수의 부산

연주회.

▶프로그램

바흐/Andante from BWV 1003
빌라 로보스/에튀드 제4, 5, 6번
타르가/기타와 스트링과르넷을 위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 수곡
· 특별출연/곽승웅, 아르스현악4중주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키우는
부산시민오케스트라 창립콘서트
보통사람을 위한 팡파레

3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VIP 5만원 · R석 3만원 ·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 부산시민오케스트라 사무국(907-8808)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
주형 오케스트라 '부산시민
오케스트라' 창립콘서트 '보
통사람을 위한 팡파레'
지난해 음악계 인사, 공무원,
일반 회사원, 의료인, 지역 언
론인 등으로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 시민주주를 모집한

부산시민오케스트라는 시민이 원하는 음악을 프로 연주
자들이 제공하고, 악단이 필요로 하는 운영비를 시민이
후원하는 오케스트라이다.

부산, 울산, 창원시향의 수·차석급 연주자와 부산의 청
년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시민오케스트라는 장진 지휘
자와 박경희 악장의 주도 하에 2관 편성(60명)으로 결성
되었다. 이번 창립콘서트에는 사하지역아동센터·부산근
육장애인협회·두송종합사회복지관·아시아공동체학교
등 300명을 초청한다.

▶프로그램

- 코플란드/ '보통사람을 위한 팡파레'
- 호너/영화 '타이타닉' 주제곡
- 번스타인/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주제곡
- 웨버/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주제곡
- 짐머/영화 '캐러비안의 해적' 주제곡
- 베토벤/교향곡 제5번 '운명' 전악장
- 지휘/장진(수석지휘자)
- 악장/박경희 · 자문위원/최우석

이현정 첼로 독주회

3월 9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예인예술기획(02-586-0945)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음색과
탁월한 음악성으로 주목받는
첼리스트 이현정 부산연주회.
서울대학교 졸업 후 도미, 인
디애나 음악대학, 예일대학
교에서 음악수업을 한 이현
정은 그동안 선화 실내악 콩
쿠르, 월간음악 콩쿠르, Ar-
lington Young Artist Competition, Indianapolis Scholarship
Competition 등에 입상하여 실력을 인정받았다.

▶프로그램

- A. 히나스테라/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Pampeana No. 2 Rhapsody' 작품21
- J. 브람스/첼로소나타 제2번 바장조 작품 99
- R 슈트라우스/첼로소나타 바장조 작품
- 피아노/이윤희

부산시립무용단
2013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
'방귀쟁이 며느리'

3월 12일-14일 화-목요일,
3월 18일-22일 월-금요일 오전 11: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천원
(36개월이상 관람, 단체 사전예약필수)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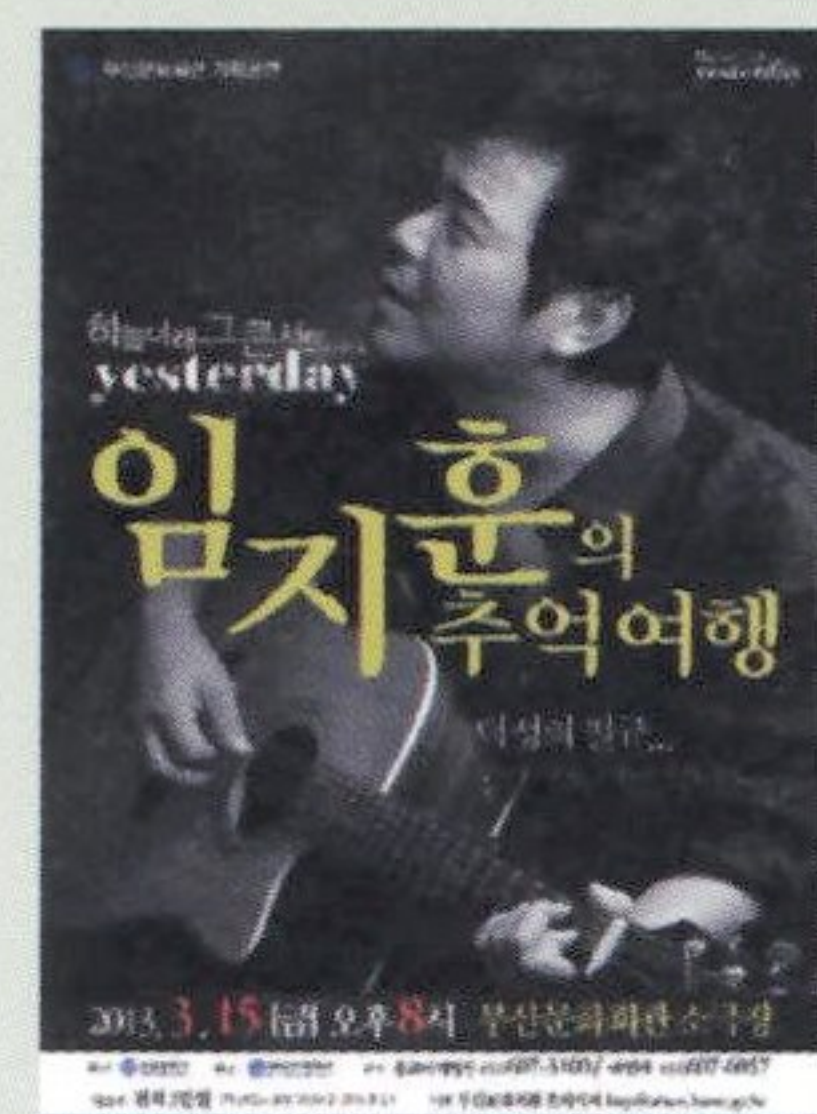


미취학아동들에게 우리 춤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주기 위
해 부산시립무용단이 선보이는 인기 레퍼토리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속 이야기'.
올해는 전래동화 방귀쟁이 며느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
한 마당춤판 '방귀쟁이 며느리'를 '춤으로 보여주는 동
화속 이야기'로 각색,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안겨준다.

▶작품구성

- 에피소드 1: 봉순이 신랑에게 첫눈에 반하다
- 에피소드 2: 봉순이 방귀, 집 벽을 무너 뜨리다
- 에피소드 3: 소박맞은 봉순이
- 에피소드 4: 봉순이의 방귀, 감을 따다
- 에피소드 5: 봉순이 다시 찾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춤을
추다
- 예술감독/홍경희(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출연/권봉정(뽕뽕이), 김시현(봉순이), 황동해(신랑), 이정식(시아버지), 이현숙(시아머니)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Yesterday
임지훈의 추억여행
3월 15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7)



부산문화회관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Yesterday
의 2013년 첫 주인공으로 부
산을 찾는 가수 임지훈 초청
무대.
7080세대의 청년문화를 이
끌었던 가수 임지훈은 허스
키한 음색으로 1982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을 수상하며 가수로 데뷔, '사랑의 썬
물' '내 그리운 나라'로 최정상에 오르며 1980년대 포
크음악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평소 사람의 눈빛과 감성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소극장
공연을 즐기는 임지훈은 이번 부산 무대에서 옛 향수에
목말라하는 7080세대와 마니아들에게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된 '사랑의 썬물'을 비롯하여 '회상' 등 다양한 히
트곡들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Das Musical Rudolf)'
3월 16일-17일 **토-일요일** 오후 3:00, 7:00
대극장
입장료 | VIP 12만원 · R석 10만원 · S석 8만원
A석 6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8)
예 매 | SPA(1599-7448)

브로드웨이의 대중성과 화려함, 유럽의 웅장함과 드라
마틱한 스토리로 많은 화제를 모은 뮤지컬 '황태자 루
돌프' 부산공연.

뮤지컬 '엘리자벳'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황후 엘리
자벳의 아들 루돌프의 가슴 아픈 실존 러브스토리를 다
룬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는 2006년, 브로드웨이의 흥
행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과 유럽 제작사 VBW가 함께
제작, 헝가리에서 초연된 이후 일본, 비엔나 등에서 흥
행을 거둔 화제작이다.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뮤지컬 계 황태자 임태경과 끝없는 연기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박은태가 루돌프로, 연인 마리 베체라역에는 제6화 더뮤지컬어워즈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옥주현과 뮤지컬 미스 사이공으로 부산 팬들과 친숙한 김보경이 열연한다.

· 출연/임태경, 박은태, 옥주현, 김보경, 민영기, 조휘, 박철호, 류창우, 한지연 외



UKO(United Korean Orchestra) 정기연주회 제28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3월 18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UKO(011-591-3342)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결성된 민간 자선오케스트라 United Korean Orchestra(U.K.O)의 제28회 사랑나눔 음악회.

2006년 11월, 창단연주회를 기점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UKO는 그동안 40회의 연주회를 통해 약 150명의 난치병을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2004년 칼 닐센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9세의 나이로 한국인 최초 우승과 함께 덴마크 작곡가 작품 특별상, 젊은이 인기상을 석권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가 UKO와 함께 사랑나눔을 실천한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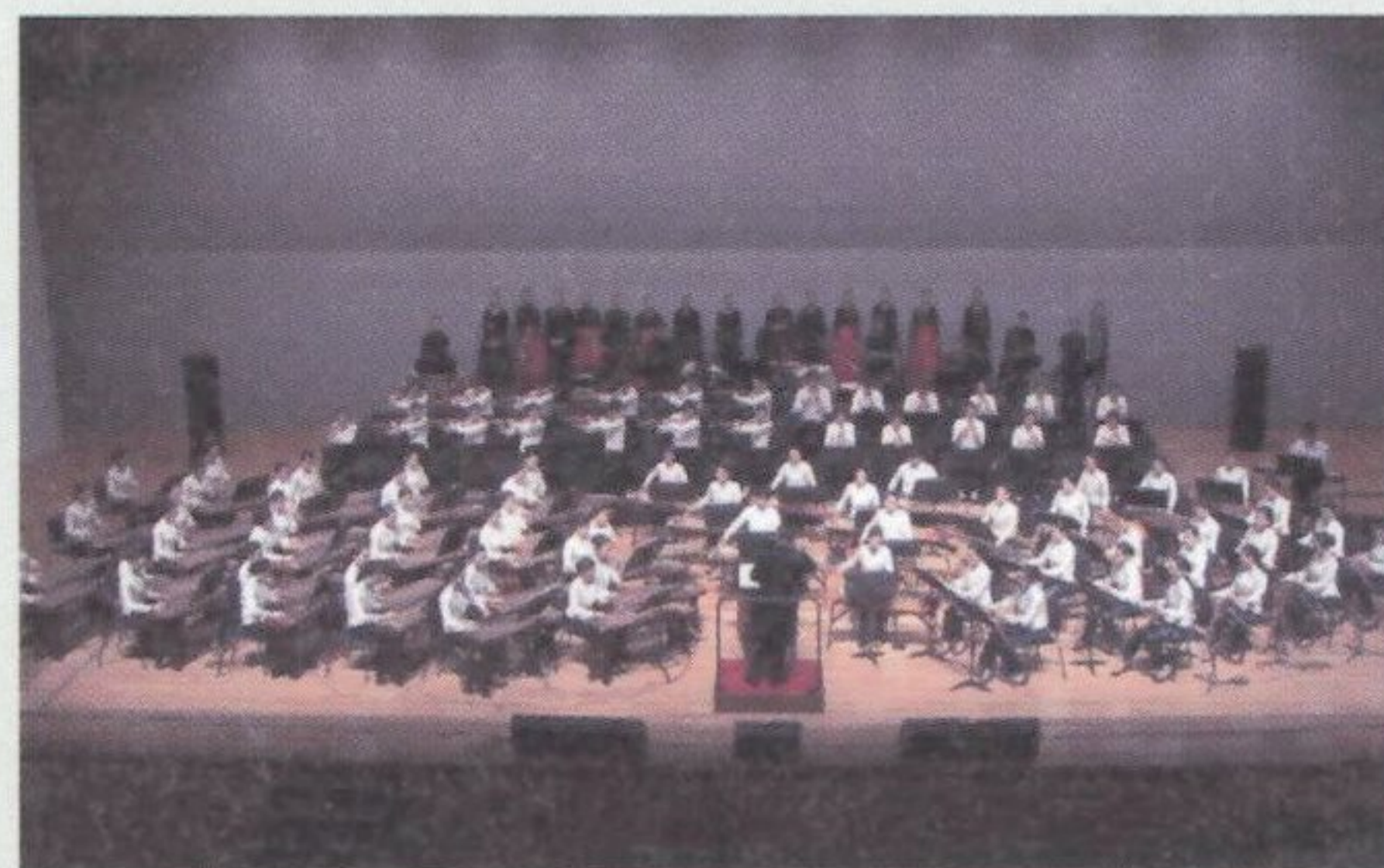
오펜바흐/‘천국과 지옥’ 서곡
생상스/교향시 ‘죽음의 무도’ 사단조 작품 40
브람스/헝가리 무곡 제1번, 제17번, 제5번 등
· 지휘/이동신 · 바이올린/권혁주

부산대학교 시민과 함께하는 신춘음악회

3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2월 25일-3월 11일까지 신청
(<http://concert.pusan.ac.kr>)

문의 | 부산대학교(510-1291, 4)



기부와 나눔을 실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산대학교에서 마련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신춘음악회. 배양현이 지휘하는 한국음악학과 오케스트라와 국악명인, 부산대학교 출신 국악인들이 새봄,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흥겨운 무대를 연다.

▶프로그램

이준호/국악관현악 '축제'
백규진/창과 관현악 '효원가'
홍동기/전자바이올린과 국악관현악 '고구려의 혼'
장사익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짚레꽃, 꽃구경
박범훈/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신모듬' 등 수곡
· 지휘/배양현(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 협연/김덕수 사물놀이패, 장사익, 김권식, 박성희, 부산가야금연주단(단장/김남순), 국악그룹 아비오, 박준현(첼로)
· 연주/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오케스트라



부산낙동로타리클럽 창립 30주년 기념 자선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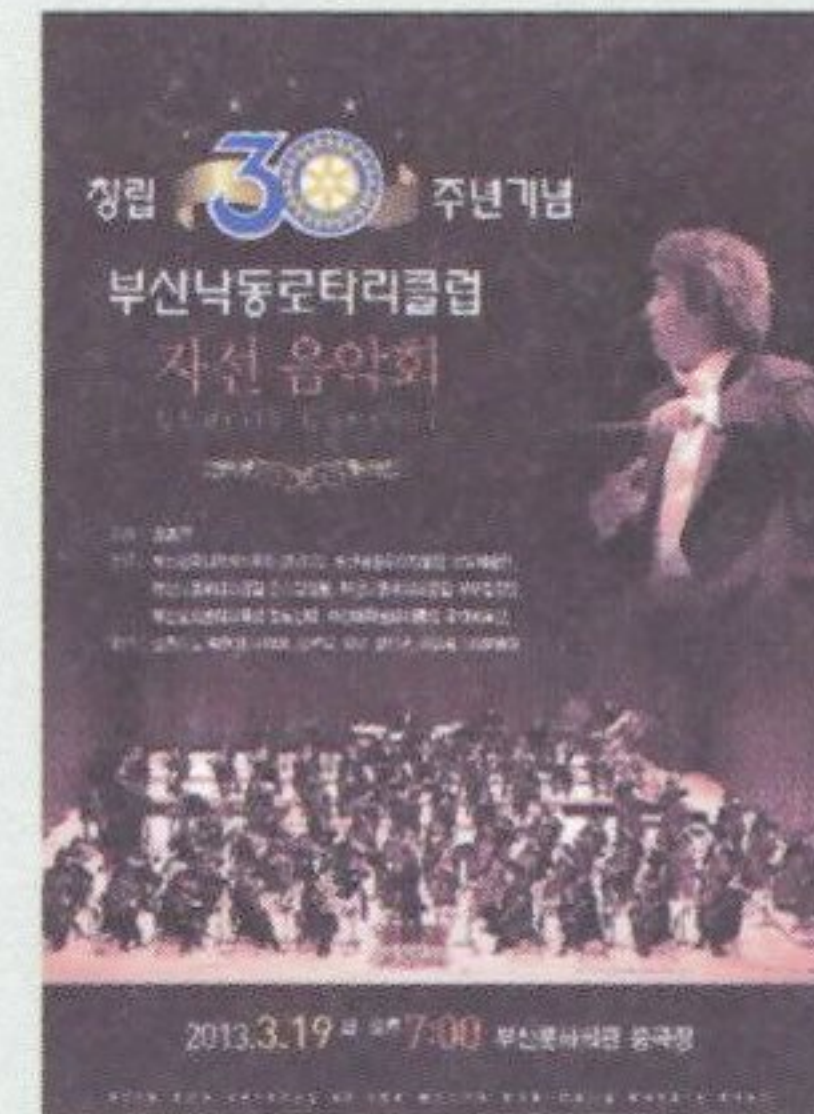
3월 19일 화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부산낙동로타리클럽(325-6402)

사회를 위한 따뜻한 손길로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부산낙동로타리클럽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자선음악회.

부산낙동로타리클럽 회원들로 구성된 부부합창단, 국악예술단, 윈드앙상블 등 동호회 회원들과 오충근이 지휘



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감미로운 사랑의 선물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윈드앙상블/에델바이스, 독도는 우리땅
마스카니/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푸치니/오페라 '리보엠' 중 '뮤제타의 왈츠'

민요/경복궁 타령 등 수곡

· 지휘/오충근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낙동로타리클럽 윈드앙상블, 부산낙동로타리클럽 국악예술단, 부산낙동로타리클럽 부부합창단
· 우정출연/부산오성로타리클럽 힐링난타
· 협연/소프라노 박현정, 바리톤 장은익, 테너 장진규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8회 정기연주회 리신차오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I

3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지나온 50년을 되짚어보며 결집된 하모니와 앙상블을 선사하기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의욕적으로 기획한 '리신차오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첫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양식의 본질을 보여주는 교향곡 제1번과 그의 열정이 내재된 교향곡 제2번 등 베토벤 초기 작품과 함께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의 4개의 서곡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사랑받고 있는 레오노레 서곡 제3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토벤/레오노레 서곡 제3번
베토벤/교향곡 제1번
베토벤/교향곡 제2번
· 지휘/리신차오

**부산YMCA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페라 스타일2 '라 트라비아타'**

3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440-3372,
010-2926-8801)

2009년 7월 창단이후 폭 넓은 연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부산YMCA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오페라스타일 두번째 무대.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가족사랑 기획 음악회, 오페라 출연,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예술성 높고 친근한 연주상품으로 시민들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전주곡, 축배의 노래, 애 그대인가, 내 끊어 오르는 마음, 내겐 천사같은 딸이 있는데, 사랑하는 이여, 파리를 떠나서, 애 비올레타 등 수곡



**양상블 디 마레 제6회 정기연주회
'♥the Spring'**

3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양상블 디 마레(010-3863-8081)



거친 파도와 바람, 수많은 생명체들이 내는 다양한 소리들의 어울림처럼 포근하고 잔잔한 바다의 속삭임을 선사해온 '양상블 디 마레'의 제6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제바이올린 수석 이은옥을 비롯해 조양희, 강선덕, 김명주, 김은아, 민정화, 홍영선, 김상철, 신지현, 김근아, 서송은, 박정숙 등 양상블 디 마레 단원들이 '봄'을 테마로 싱그러운 앙상블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수크/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8
비발디/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봄'
피아졸라/사계 중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봄'
그리그/슬픈 멜로디 제2번 '지난 봄' 등 수곡
· 협연/김희정(바이올린)



황성훈 피아노 리사이틀 예술가의 詩(시)

3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5만원 · R석 4만원 · S석 3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부산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파리 에콜 노르말, 독일 하노버 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독일을 중심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황성훈의 부산연주회. 황성훈은 Bellini 국제음악콩쿠르 1위, Epinal 국제피아노

콩쿠르 2위, 프랑스작품해석 특별상 등 30여개의 국제콩쿠르에서 우승 및 입상을 하고 국제콩쿠르 심사위원으로, 독일 Hildesheim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프로그램

리게티/에튀드 제5번 'Arc-en-ciel'
브람스/7개의 환타지 작품 116
드뷔시/기쁨의 성
베토벤/소나타 제31번 작품 110 등



**아미치 세펠레 제3회 정기연주회
2013 신춘음악회**

3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학생 1만원(지역민들을 위한 이벤트로 뱀띠, 만 65세이상, 장애인, 생일자 무료 초대)
문 의 | 김정아(010-9334-6105)

오페라 갈라콘서트, 가곡의 밤, 찾아가는 음악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미치 세펠레가 들려주는 제3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가곡과 외



국가곡, 우리가요 및 오페라, 뮤지컬 독창과 중창 및 합창 등 우리 귀에 익은 음악들로 생동하는 봄의 환희를 노래한다.

▶프로그램

김동진/목련화, 신 아리랑
이수인/고향의노래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임금수/강건너 봄이 오듯
가요/빨간구두아가씨, 아빠의청춘
로시니/나는 거리의 만물박사 등 수곡
· 출연/김정아, 김현지, 김지혜, 왕기현, 이은미, 권수현(이상 소프라노), 이철성, 한우인, 이태성, 박진철, 강윤광(이상 테너), 김기환, 지광윤, 김성결(이상 바리톤)
· 피아노/박재나, 표세구



제4회 메디캠퍼스 태교음악회

3월 23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메디캠퍼스(070-8902-2307)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임신육아교실, 행복한 가정만들기, 아이들의 자유로운 세상 만들기 등을 진행해 온 참여기업 메디캠퍼스가 들려주는 제4회 태교음악회. 메디캠퍼스는 2010년 7월 제1회 부산광역시 공식후원 '메디캠퍼스 태교음악회'를 시작으로 온가족이 함께하는 '메디캠퍼스 매직콘서트' 등을 통해 임산부, 육아맘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프로그램

캐논변주곡, 놀라운 은혜, 사운드 오브 뮤직, 라수스트롬본, 아프리카 심모니, 내 환상 속에서, 나의길, 신세계 교향곡 메들리, 아리랑, 아바 메들리, 마법의 성, 아름다운 강산 등 수곡

제1회 전국 오카리나 앙상블 페스티벌

3월 24일 일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한국오카리나지도자교육협회
(070-8924-0528)

아름다운 오카리나 선율을 보급해온 한국오카리나지도자교육협회 소속 Poem 오카리나 앙상블(부산), 토우 오카리나 앙상블(여수), 바람소리 오카리나 앙상블(김해), 아르모니 오카리나 앙상블(창원), 루나 오카리나 앙상블(울산)이 출연, 아름다운 오카리나 음악을 들려준다.
· 찬조출연/Poem 우쿨렐레 앙상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43회 정기연주회 2013 발레 음악 시리즈 | '백조의 호수'

3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지휘 이동신 바이올린 김응수 비올라 김가영

2013년 다양한 발레 음악 연주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2013년 그 첫 번째 무대로 들려주는 차이코프스키의 명작 '백조의 호수'. 수석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고 '오이스트라흐를 연상케 하는 새로운 마에스트'라는 격찬을 받으며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 장르를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비올리스트 김가영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고급의 발레 음악의 대표작으로 대중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음악 '백조의 호수'를 기존 모음곡이 아닌 전곡에서 발채하여 연주, 모음곡과는 또 다른 발레 음악의 정수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토벤/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모차르트/협주 교향곡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중 발채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김응수(바이올린, 한양대학교 교수)

김가영(비올라,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2013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배우창고 '강석봉 베이커리'

3월 29일-4월 3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 5천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 부산연극협회(645-3769)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의 무차별한 공격에서도 꿋꿋하게 새벽마다 신선한 빵을 굽는 공주제과 제빵사 강석봉을 통해 고유한 자신만의 색깔을 지키며 경쟁자들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변하지 말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극단 배우창고의 '강석봉 베이커리'.

· 작, 연출/박훈영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40주년 기념 및 제38회 정기연주회 'Memoria'

3월 30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1973년 전국시립단체 중 두번째로 창단,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창단 40년 기념음악회 'Memoria'.

한국작곡가 시리즈 다섯번째 무대로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곡가 정애련의 위촉곡 무대를 비롯해 국립합창단 단원을 역임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출신 소프라노 강태경과 경성대학교 장



지휘 전상철 지휘 오세종 테너 장원상

원상 교수, 부산시립합창단이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는 특별한 무대를 연다.

▶프로그램

우리 동요/반달(윤극영 곡), 고향의 봄(홍난파 곡), 따오기(윤극영 곡), 파란마음 하얀마음(한용희 곡), 우리가곡/수선화(김동진 곡), 그리운 금강산(최영섭 곡), 동무생각(박태준 곡), 뱃노래(조두남 곡)

한국작곡가 시리즈 V-정애련/동개 동개 동개 동, 웃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민요(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도라지, 신고산타령, 춤추는 춘향이, 추천가, 경북궁타령 등 수곡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이승윤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재(합창)

· 위촉작곡/정애련

· 특별출연/소프라노 강태경, 테너 장원상

· 특별출연/부산시립합창단(지휘/오세종)

2013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맥 '시골동화'

4월 1일-2일 월-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 5천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 부산연극협회(645-3769)

9개 극단이 경연에 참가하는 2013 부산연극제 첫 경연작 극단 맥의 '시골동화'.

똥통에 아기를 낳아서, 이름을 똥레라고 지었다는 작가 방영웅의 분례기를 모티브로 한 이 작품은 똥레라는 주인공의 이름을 통해 한국여성의 트라우마와 현대사회의 황폐한 실정, 비참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생활상을 중첩시켜 작품을 풀어낸다.

· 원작/방영웅 · 각색, 연출/이정남



낙동민속보존회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교향악단

토요상설무대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3월 2일

낙동민속보존회 '낙동두들소리'

▶ 프로그램

비나리 '부모은중경'(출연/김귀수, 김정근, 이기범, 최익규, 최성용, 황영미, 구미숙, 김경규, 박준영)

한국무용 '입춤'(출연/임일숙)

삼도사물놀이(출연/최익규, 김정근, 황영미, 구미숙, 이기범, 손희자, 최성용, 박준영, 김경규, 정석규)

판소리 '춘향가' 중 '동헌경사 대목'(출연/김귀수, 공정희)

모듬북(출연/김정근, 황영미, 구미숙, 이기범, 최익규, 손희자, 임일숙, 최성용)

· 단장/김귀수 · 사회/최진근



3월 9일

부산시립합창단 'L...O...V...E and LOVE(사...랑... 그리고 사랑)'

▶ 프로그램

사랑 그리고 사랑(사랑노래모음)

- 씨시봉 매들리

- 사랑하는 이에게

- 모두가 천사라면

- 김밥

- 초혼(창작곡)

- 동백

· 소프라노/김나영, 남순천, 기미현, 최난영, 최선희, 이혜진, 김달의

· 앨토/손미숙, 정은영, 박성혜, 김미경, 신소운, 배소영, 박진희

· 테너/강종철, 김진영, 김추리, 권정은, 최준식, 김정하

· 베이스/안재형, 김태우, 최기호, 오승중, 최성규

· 피아노/이승윤

· 지휘/오세중(수석지휘자)

3월 16일

부산시립무용단

▶ 프로그램

오고무(출연/권봉정, 오수연 · 악사/이현숙, 김미란, 허태성, 장영진)

입춤(출연/장래훈)

태평무(출연/류권홍, 이현정)

장고춤(출연/이화성)

소고춤(출연/황선희, 김동숙, 강미향)

처용무(출연/김병주, 박상용, 강모세, 최의옥, 김윤호)

· 안무, 구성/홍경희(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수석 안무자)



3월 23일

부산시립교향악단 '레이디스 필 앙상블'

▶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내림나장조 작품 137

파헬렐/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캐논 라장조

헨델/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번 내림나장조

글린카/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비창 삼중주 라단조 중 제 1, 4악장

본 윌리엄스/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피아노를 위한 5중주 다단조 중 제1악장

· 바이올린/김은정, 최방주, 한아름, 양혜은

· 비올라/최영화

· 첼로/전수정

· 더블베이스/임미형

· 피아노/김일주(객원)

Music

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

2013년 겨울음악페스티벌

3월 1일 금요일 오후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박선연(010-4509-6846)

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가 매년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2일 프로그램

검무, 수룡음, 태평무, 가야금병창 '재비노정기', 승무, 창부타령 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박범훈 곡), 사물놀이

▶9일 프로그램

전폐희문, 수영아류 중 영감·할미과장, 구음시나위, 동래한량춤, 동부민요 '벚노래, 자진벚노래', 판굿 등

▶16일 프로그램

선유락, 가곡 '태평가', 산조춤, 가야금병창 '님그린 회포, 청산별곡', 세상풍경(강상구 곡), 강강술래, 사물놀이와 호적시나위

▶27일 프로그램

승전무 중 북춤, 남도민요(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 동래학춤, 영남성주굿, 가새(죽지사), 대풍류, 좌수 영어방놀이춤

국립부산국악원 신년인사회 신춘다회(新春茶會)

3월 5일 화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전석 초대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옛 선조가 예의를 갖춰 손님에게 차를 대접했던 접빈다례(接賓茶禮)와 함께 노래, 국악연주, 춤, 글, 그림이 어우러지는 풍류다회(風流茶會)가 펼쳐지는 국립부산국악원 특별무대.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

▶6일 멀리 있는 연인에게

피아니스트 권준, 바리톤 강경원, 소프라노 구민영이 베토벤 최초의 연가곡 '멀리있는 연인에게(An die ferne Geliebte)' 등 아름다운 예술가곡을 들려준다.

▶13일 2013 칸타빌레남성앙상블 '교과서음악회'



1997년 정상급 성악가들로 결성된 후 고전적인 레퍼토리의 답습을 지양하고 새로운 음악을 발굴, 다양한 무대를 가져온 칸타빌레남성앙상블 교과서음악회.

교과서에 등장하는 국내외 가곡과 민요를 상세한 해설

과 함께 들려준다.

· 출연/테너 이흥득, 이은민, 김화정, 양승엽, 바리톤 김길수, 안상철, 베이스 박기범, 김정대

▶20일 베이스 최현욱 귀국독창회

영남대학교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여성합창단 West Chester Woman's Choir 지휘자, 펜실베이니아 Libera 오페라단 단원으로 활동한 베이스 최현욱 귀국 독창회.

▶27일 베르디 오페라 갈라 콘서트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되는 베르디 오페라 갈라 콘서트.

소프라노 이은미,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테너 이승우, 바리톤 심정보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돈 카를로' '리골레토' 등 베르디 오페라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아트카페 움 목요일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8:00 아트카페 움

입장료 : 무료

문의 : 아트카페 움(557-3369)

▶7일 트리오 노트와 함께하는 움 100회 축하연주회



김성은 박현영 최정윤

바이올리니스트 김성은, 첼리스트 박현영, 피아니스트 최정윤으로 결성된 트리오 노트(Trio Nota)가 '아트카페 움 목요일음악회' 100회를 축하하며 마련하는 무대.

▶14일 벨리씨미와 함께하는 101번째 콘서트

부산지역 여성 성악인들로 결성된 후 가족음악회, 영화속의 뮤지컬, 오페라 파티 등 다양한 테마로 관객들과 만나온 벨리씨미의 무대로 꾸며지는 아트카페 움 목요일음악회 101번째 무대.

· 출연/소프라노 이은미, 장은영, 정혜리,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성미진
· 피아노/임소영

▶21일 피아노 트리오의 봄의 앙상블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장호, 조이오브스트링스, 비르투오조앙상블, 섀토챔버소사이어티 단원인 서승은, 피아니스트 정문정이 들려주는 앙상블 무대.

▶28일 한수연의 피아노와 노래가 그리는 이야기

피아니스트 한수연의 연주와 해설로 펼쳐지는 이야기가 있는 무대.

해외관광객을 위한 공연 'Heritage of Korea'

매주 금요일 오후 7:30(1일 공연없음)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부산을 찾은 해외관광객들에게 유네스코가 지정한 한국의 인류무형 문화유산 중 종묘제례악, 처용무, 판소리, 가곡, 아리랑, 강강술래 등 엄선된 6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사랑의 묘약

3월 9일 토요일 오전 11: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일반 5천원 · 학생 2천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진실한 사랑을 되찾는 청춘 남녀의 사랑을 그린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갈라콘서트. 소프라노 김정은, 테너 김성, 바리톤 조성빈, 베이스 최현욱이 출연, '남몰래 흘리는 눈물' '산들바람에게 물어봐' 등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동성화학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서희태의 영화가 들리는 콘서트 4-영화배우 김영호

3월 12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지휘자 서희태와 함께 영화의 감춰진 이야기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풀어보는 마티네 콘서트 3월 무대. 미인도, 부산, 밤과 낮 등 영화에서부터 연극, 뮤지컬,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그만의 매력을 선보여온 영화배우 김영호의 영화이야기, 인생이야기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MAMA, 홀로 된다는 것은, 비처럼 음악처럼, 왈츠(쇼스타코비치 곡), 리베르탱고(피아졸라 곡), 미뉴엣 사장조 BWV 114(바흐 곡)

제14회 숲속의 열린음악회

PRIMO CANTANTE와 함께하는 신춘음악회

3월 12일 화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새 봄의 길목에서 소프라노 김정은, 테너 김성, 바리톤 조성빈, 베이스 최현욱, 피아니스트 손소연, 강미가 함께하는 신춘음악회.

▶프로그램

브람스/헝가리무곡

김규환/남촌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중 '그리운 이름이여'

김일권(편곡)/친구여, 지난날, 난 아직 모르잖아요 등 수곡 · 음악감독/장진규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최희연, 배익환, 피터 스템프의 베토벤 트리오

3월 12일 목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입장료 : 균일 1만원(사전 예약)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 (010-4781-5959, www.goeunmuseum.org)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최희연과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배익환, 첼리스트 피터 스템프가 들려주는 베토벤 앙상블 무대.

성민주 · 조무종 듀오 리사이틀

Healing and Friendship Harmony

3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부산예고 동문인 피아니스트 성민주와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종의 듀오무대.

성민주는 이화여자대학교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을 졸업하고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조무종은 현재 독일 에센 폴크방음대 실내악 최고연주자 과정에 재학중이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다장조 KV.296

브람스/소나타 제3번 라단조 작품 108

베토벤/소나타 제 9번 가장조 작품 47 '크로이처'

제18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3월 14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



러시아 국립 크라노스야르스크 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마크 카딘)와 2005년 파가니니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이반 포체킨의 협연으로 마련되는 을숙도 명품 콘서트.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

쇼스타코비치/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쇼스타코비치/교향곡 제4번 바단조 작품 36

Jubilee Quartet 제2회 연주회

3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뮤직클레프(02-3379-3387)

미국 오빌린음대와 영국 길드홀음대를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박민영, 영국 골드스미스대학교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대구 계명대학교 석사과정에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주은, 영국왕립음악원, 길드홀 음악대학교를 졸업한 비올리스트 이가영, 영국왕립음악원을 졸업한 첼리스트 한미성으로 구성된 Jubilee Quartet 의 두 번째 무대.

정준수 · 오윤복 듀오 리사이틀

3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연세대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오스트리아 째츠부르크 모짜르테움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과 서울에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 정준수와 울산대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오윤복의 듀오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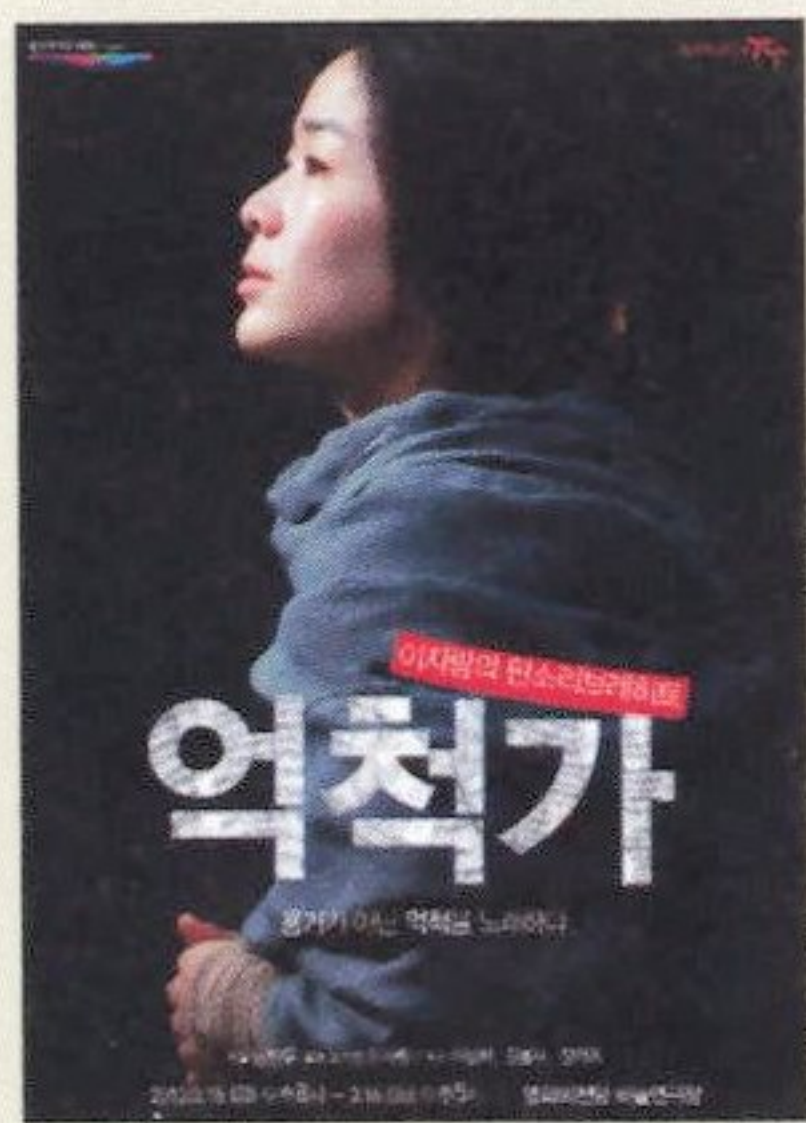
▶프로그램

슈만/환타지 다장조 작품 17
브람스/소나타 제2번 바장조 작품 99 등



이자람의 판소리 - 브레히트 '억척가'

3월 15일 금요일 오후 8:00, 16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5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독일 극작가 브레히트의 원작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을 재창작한 소리꾼 이자람의 판소리극.

시골마을의 순박한 여인 김순종이 전쟁이라는 풍파에 시달리며 김안나, 김억척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통해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느끼는 공포, 연민, 분노, 슬픔 등을 판소리 특유의 풍자와 해학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2012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2011년 더뮤지컬어워즈 여우신인상, 2010년 올해의 젊은예술가상, 2010년 폴란드 콘택국제연극제 최고여배우상에 빛나는 젊은 소리꾼 이자람이 대본, 작창 외에도 1인 15역을 맡아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Gem 목관오중주'

3월 16일 토요일 오후 7: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플루티스트 공유현, 오보이스트 박시연, 호른니스트 김지은, 바수니스트 윤이나, 클라리네티스트 손예람으로 결성된 Gem 목관오중주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3월 무대.



제77회 한낮의 유U; 콘서트

베르디 탄생 200주년 특별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3월 19일 화요일 오전 11:00 롯데호텔부산 아트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국제신문(500-5222)



박대용

박은주

전병호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의 대표작인 '라 트라비아타' 갈라무대로 마련되는 제77회 한낮의 유U; 콘서트. 알렉상드르 뒤마 2세의 소설 '동백 아가씨'를 원작으로 한 '라 트라비아타'는 사교계 여성과 평범한 청년의 비극적 사랑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주요 아리아로 '축배의 노래', '아 그대인가', '파리를 떠나서' 등이 있다.

- 지휘/박성완
- 연주/KPO(Kookje Promusica Orchestra)
- 협연/소프라노 박은주, 테너 전병호, 바리톤 박대용

듀오의 밤

3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바하악기사(553-8009, 010-6549-0802)

바이올리니스트 이예스더, 피아니스트 김은희, 첼리스트 전명희가 함께하는 듀오무대.

▶프로그램

슈만/바이올린 소나타 제2번 라단조 작품 121
비에냐프스키/스케르초-타란텔라 작품 16 등
· 게스트/주윤석(클래식기타), 이승환(퍼쿠션), 배채은, 신호은(이상 바이올린)



힐링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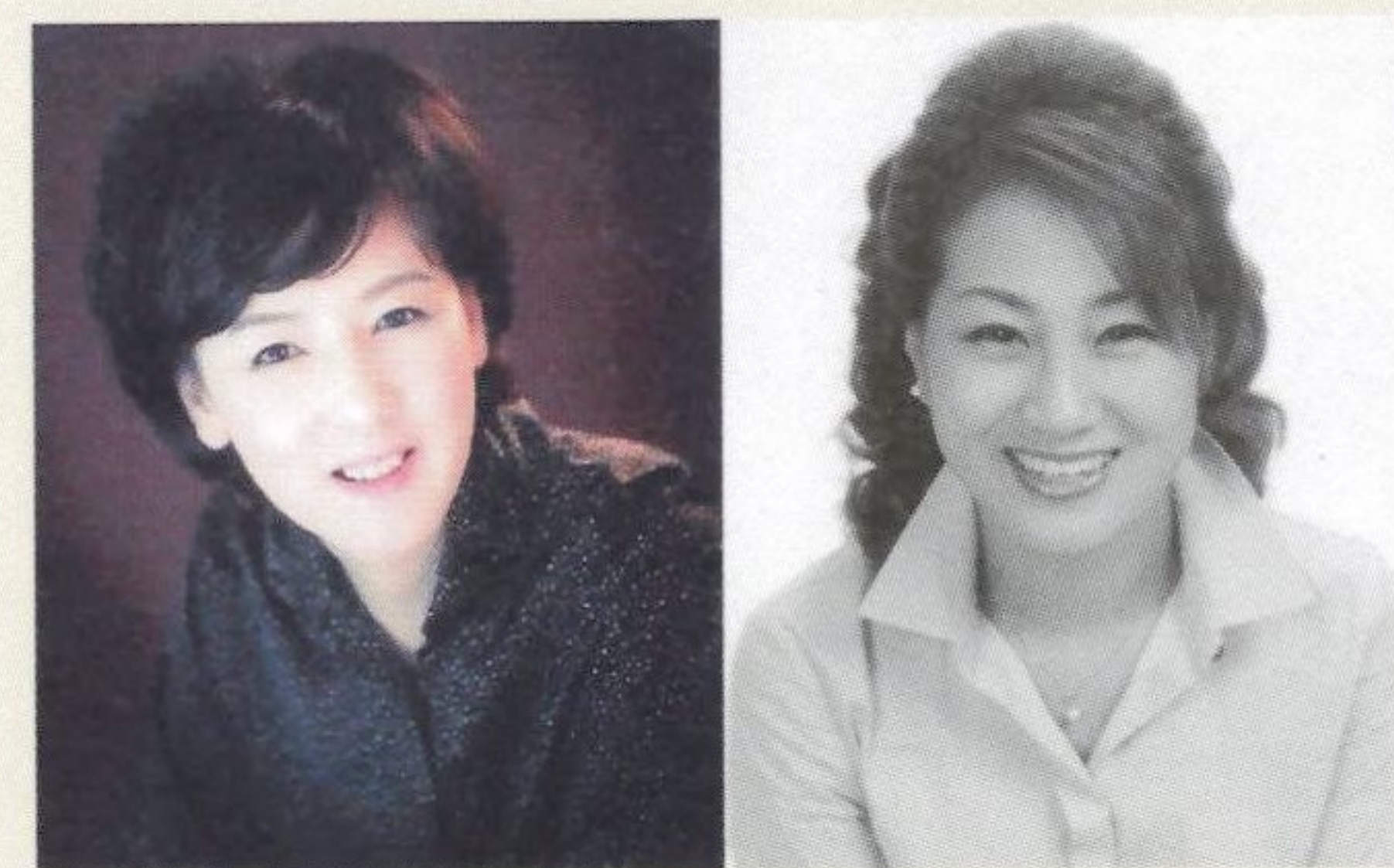
3월 20일 수요일 오후 8: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805)

부산대학교 국악학과를 졸업한 젊은 국악연주자들로 결성된 퓨전 국악실내악단 '음악대륙 가이아'가 7개 테마로 구성된 다채로운 연주곡을 들려준다.



고은경 · 금찬이 듀오 리사이틀

3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금찬이(010-2850-6424)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동문으로, 현재 고신대학교 교수인 고은경과 신라대학교 초빙교수, 경성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금찬이의 피아노 듀오무대. '독일 작곡가의 밤'으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브람스, 베버 등 독일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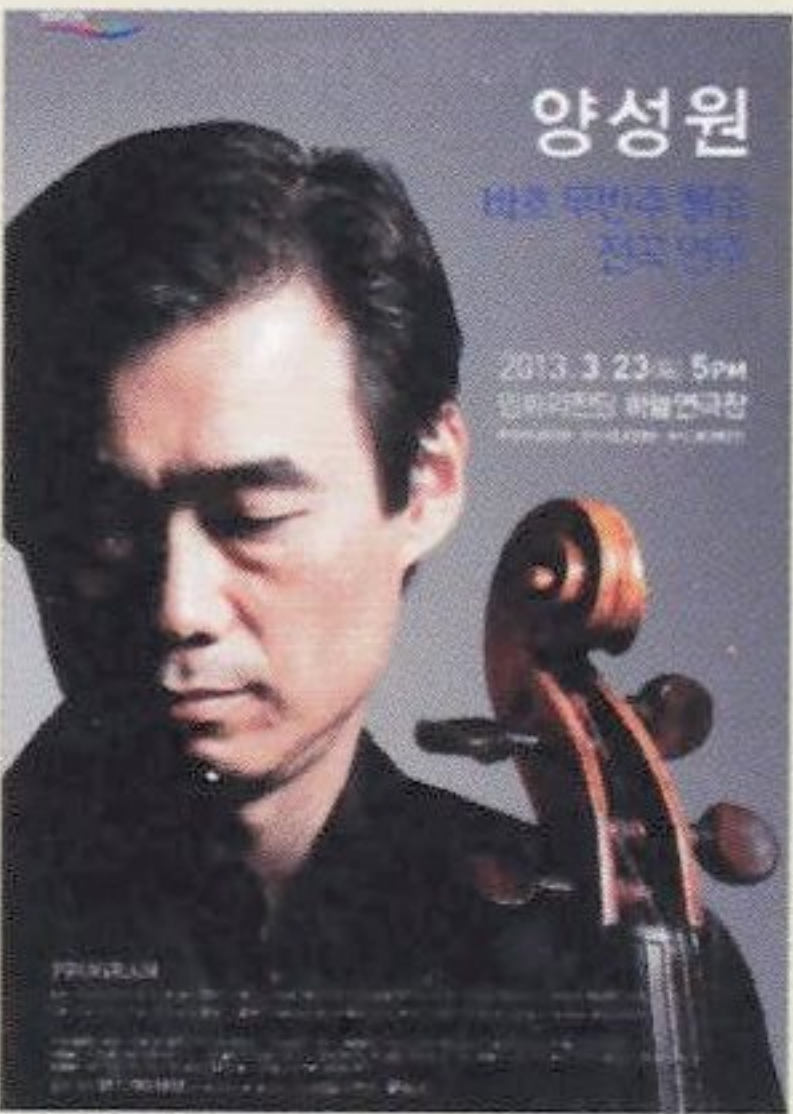
창극 '심청'

3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23일 토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한국적 정서와 현대적 감성을 절묘하게 결합시킨 창극 '심청'은 실력과 소리꾼들의 농익은 소리와 국악관현악단의 풍성한 선율 속에 세련된 무대와 아름다운 의상이 어우러져 환상의 무대를 선사한다.

양성원 바흐 무반주 첼로 전곡 연주

3월 23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지적이고 독창적인 해석과 연주로 세계 주요 언론과 청중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첼리스트 양성원의 2013년 대 프로젝트 '바흐 무반주 첼로' 전곡 무대. '첼로 레퍼토리의 구약성서'라고 불리며 연주시간만 3시간 10분이 소요되는 바흐의 6개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을 들려준다.

김판수 첼로 독주회

3월 25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김판수(010-2520-5020)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판수의 첼로독주회
▶프로그램
슈만/아다지오와 알레그로 쇼팽/첼로소나타 작품 65 등
· 피아노/이진성

· 특별출연/황지원(바이올린)

장경미 제자 발표회

3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장경미(010-6431-6440)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및 동대학원 한국음악과를 수석 졸업하고 퓨전국악 The모리 리더, 신비 리더, 일파가야금 합주단 총무로 있는 가야금 주자 장경미 제자발표회. 장경미는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은상, 창원국악대전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3월 27일 수요일 오후 2: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사)경현시니어센터(519-5662)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경현실버아카데미 수료생들로 결성된 경현종합예술단이 연주와 풍물, 합창, 무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부산신포니에타 특별연주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3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영희(010-8519-0448)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인 부산신포니에타가 매년 차세대 유망주들을 위해 마련하는 청소년 협주곡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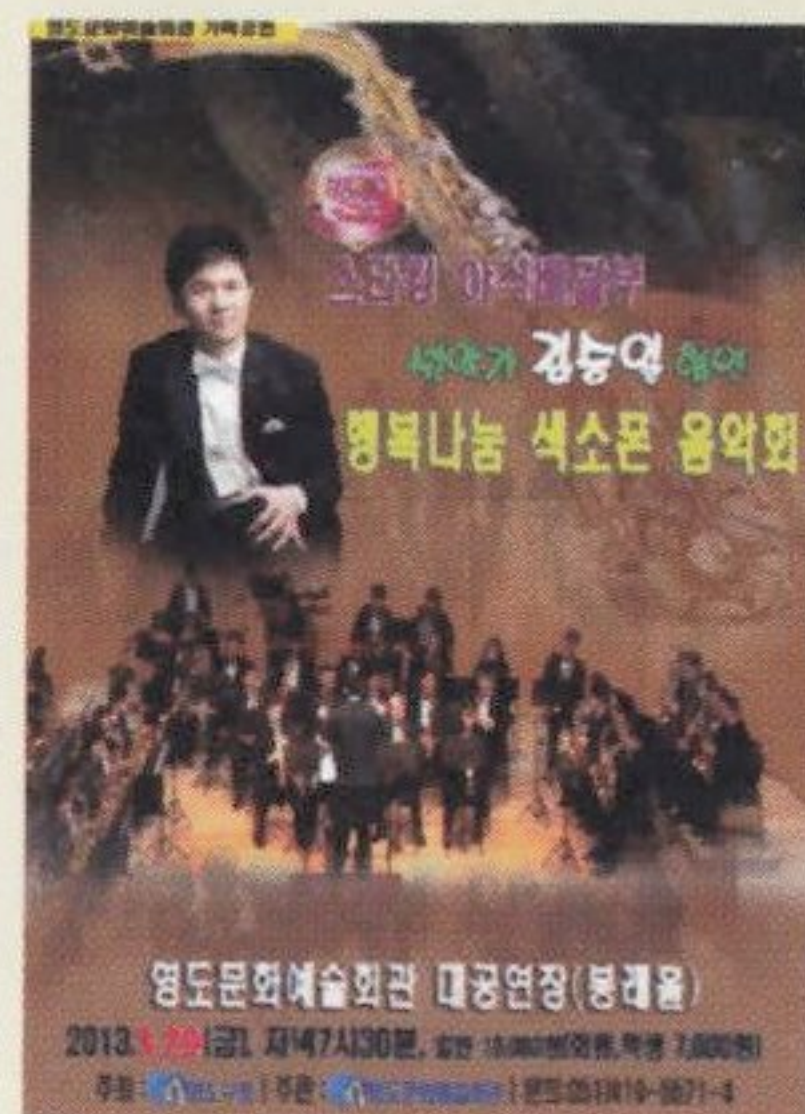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가장조 K.414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1번 다장조 작품 15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단장조 작품 18
헨델/내 사랑이여 등 수곡

· 피아노/이유빈(부산예중 2년), 이의선(부산예고 1년), 김지원(부산예고 1년), 양희진, 김나리, 박민혜(부산예고 2년), 김채현(부산예고 2년)
· 보컬/권가민(부산예고 1년)

스타킹 야식배달부 성악가 김승일 협연 행복나눔 색소폰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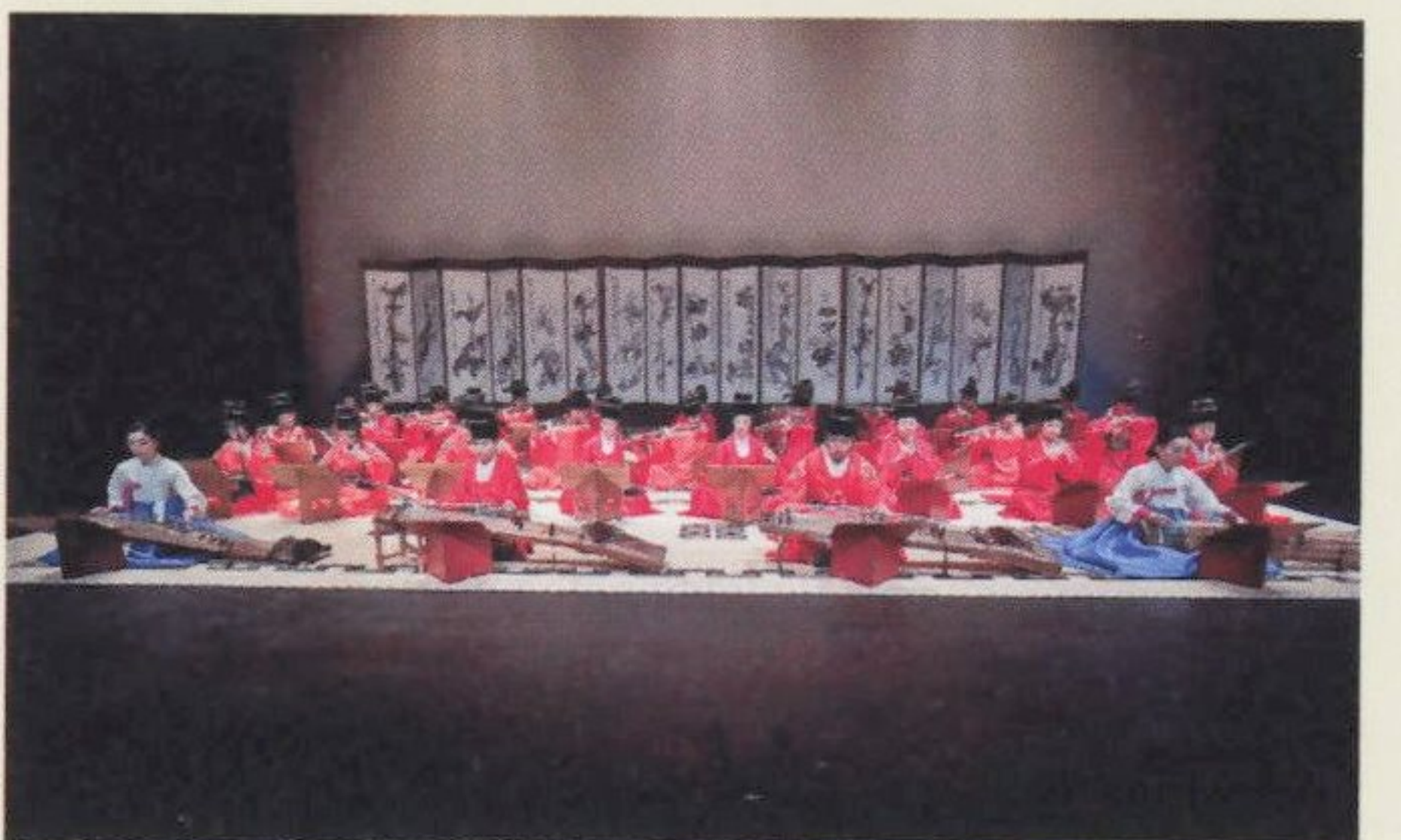
3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7천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다소니 뮤직소사이어티가 마련하는 행복나눔 색소폰 음악회. 색소폰 앙상블인 다소니 쿼텟과 협동조합 모래내 벨칸토,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포기했으나 지난 2010년 TV프로그램 스타킹에 출연해 감동을 안겨주었던 늦깎이 성악가 김승일이 출연, 음악사랑을 펼친다.

제6회 가정 위탁 아동돕기 천년의 소리 대금앙상블 정기연주회

3월 30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의 : 강영진(010-5567-5318)



2007년 3월 우리 전통음악을 사랑하는 교직원, 의사,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아마추어 대금 연주자들로 결성된 '천년의 소리 대금앙상블'은 매년 자녀양육이 어려운 가정에 위탁된 불우아동과 난치병 아동을 돕기 위한 정기연주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프로그램

서용석류 대금산조, 청성곡, 춤산조, 수연장지곡, 대금중주 '한양가', 국악관현악 '월광', 가요메들리 '목포의 눈물, 불효자는 읊니다, 애수의 소야곡' 등 수곡
· 지휘/김기표
· 찬조출연/서정연(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제61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3월 31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청소년 장학금 기금)
 문 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 ● ●

김선영 피아노 독주회

4월 1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선영(010-9985-0998)



부산예술고등학교 재학중 도블, 프랑스 Cergy-Pontoise 국립음악원 디플롬과정, 최고연주자과정과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학사, 석사,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김선영 독주회.

Play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2012년 1월 1일(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수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R석 4만 5천원 ·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주)WSM(1566-5490)

자선쇼를 준비하는 못말리는 다섯 수녀들의 화끈한 춤과 노래, 코믹한 연기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뮤지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2012년 12월 18일(화)-2013년 3월 3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월요일 공연없음)
전용관 부산 햇살가득한날에
 입장료 : 일반 3만 5천원 · 대학생 2만 5천원
 청소년 2만원
 문 의 : 햇살가득한날에(1899-3253)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주는 두 쌍의 연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 뮤지컬.

· 작, 작사, 작곡, 연출/김인성

● ● ●

로맨틱 코미디극 '뉴 잇츠유'

1월 29일(화)-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대학로 최고의 로맨틱 코미디극으로 10만 관객을 돌파한 '잇츠유'의 새로운 무대. 지방 방송국을 배경으로 네 명의 남녀가 펼치는 알콩달콩 사랑이야기가 웃음과 감동을 전한다.

● ● ●

뮤지컬 '레미제라블'

2월 1일(금)-3월 3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8:00, 일요일 오후 2:00, 7:00
센텀시티 소향아트센터
 입장료 : VIP 14만원 · R석 12만원
 S석 9만원 · A석 6만원
 문 의 : 예술기획 성우(1599-1980)

빅토르 위고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징발장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연령과 시대를 초월한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는 뮤지컬 '레미제라블'. 한국어 초연무대
 · 작/알랭 부빌 · 연출/로렌스 코너, 제임스 파우웰
 · 출연/정성화, 문종원, 조정은, 조상웅, 박지연, 이지수, 김우형, 임준길, 박준면

연극 '신고합니다'

2월 7일(목)-3월 15일(금)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4:00(월-화요일 휴관)
소극장 6번 출구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극단 맥(625-2117, www.mac1986.com)



신병의 자대배치를 시작으로 선임의 동작 그만, 긴장감이 넘치는 점호시간, 능글능글 말년고참 등 남자들이라면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군대이야기를 재미있게 구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

· 작, 연출/이정남

● ● ●

코믹 호러극 '막무가네들'

2월 14일(목)-3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플레이 더 부산(1600-0316)

천년 된 여자귀신에서부터 귀신을 쫓는 퇴마사와 저승사자, 사채회사 말단직원과 막장반장 김반장까지 5명의 캐릭터들이 빚어내는 공포 속 폭소가 특별한 재미를 선사한다.

● ● ●

폭소코믹연극 '달링'

2월 14일(목)-3월 31일(일) 화-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5:00,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 의 : (주)문화락(1600-1602)

모피를 얻기 위해 벗는 여자와 모피를 찾기 위해 벗기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반전속에서 폭소를 유발하는 코믹극 '달링'.

연극 '검정고무신'

2월 15일(금)-3월 17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용천지랄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미니티켓(1600-1716)

1960~70년대를 배경으로 부모 없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참고 이겨내는 육남매의 사랑과 우애를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낸 연극 '검정고무신'.

· 작, 연출/최재민 · 각색/김문홍

연극 '범수(犯獸)'

2월 15일(금)-3월 3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공간소극장(611-8518)

가족마저 모든 사실을 숨기고 모른 척 해야만 하는 가족 성폭력의 현실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편견으로 인한 세상으로 부터의 고립을 그린 문제작.

· 작, 연출/백대현 · 출연/강혜경, 김범수

연극 '극적인 하룻밤'

2월 22일(금)-3월 2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휴관)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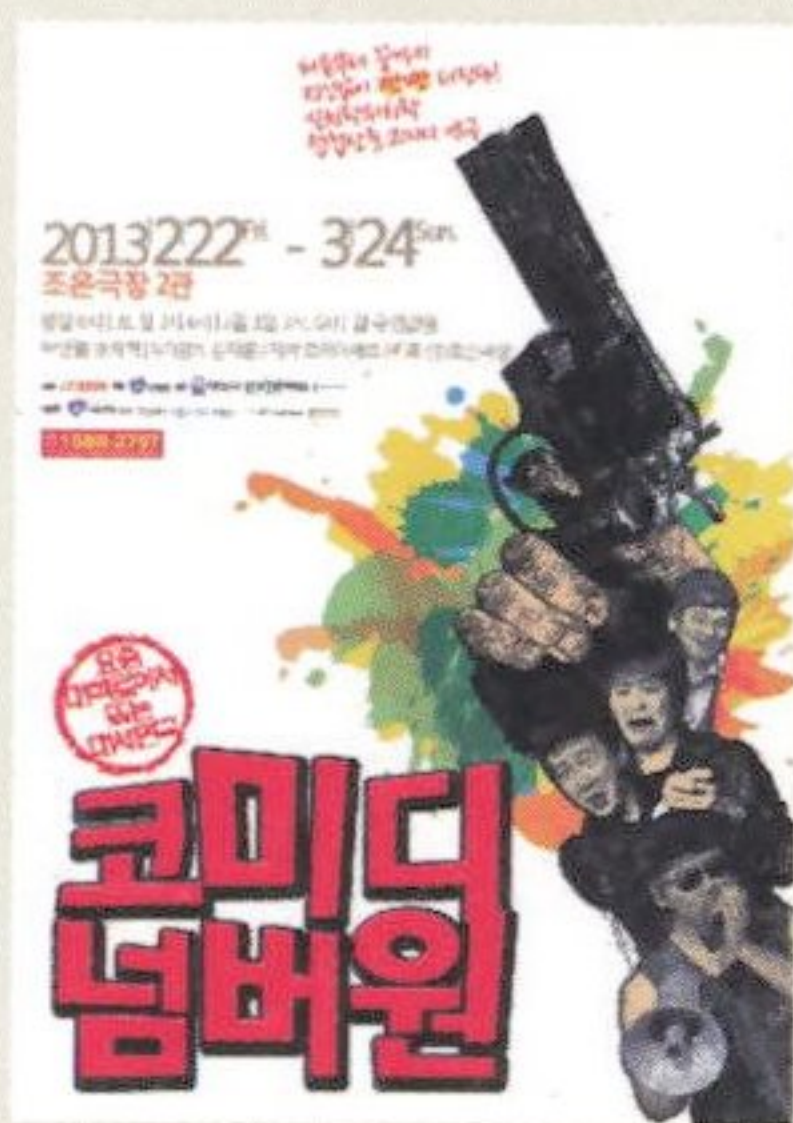


거침없는 사랑관을 솔직담백하게 그려낸 로맨틱 코미디극으로, 사랑에 배신당한 여자와 다시는 사랑을 믿지 않을 남자가 서로의 빈 가슴을 채워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 작/황윤정 · 연출/이중욱
 · 출연/이이림, 최진호, 김보정, 손희승(교차출연)

연극 '코미디 넘버원'

2월 22일(금)-3월 2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휴관)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B급 장르의 특성을 연극적 장치로 풀어낸 창작 코미디극으로, 강력계 형사 기남과 그의 첫사랑 도희, 그리고 기남의 전부인 이지, 이지의 애인 춘배 등이 얽히고 설켜면서 끊임없는 웃음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

3월 1일-2일 금-토요일 오후 3:00, 6:00, 3일 일요일 오후 3:00 **MBC롯데아트홀**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문 의 : (주)문화CONG(1688-8998)



사랑과 이별을 반복했던 한 중년남녀의 로맨틱한 우정을 그린 연극.

애정과 증오, 갈등과 화해가 하나로 얽힌 진한 감동의 남녀탐구보고서가 배우 배종옥, 조재현, 정웅인, 정재은의 명품연기로 펼쳐진다.

· 작/연출 황재현
 · 출연/배종옥, 조재현, 정재은, 정웅인, 성열석, 나경민, 신유주, 조윤지, 김수량, 김정원, 이예슬

액션라이브쇼 '파워레인저 캡틴포스'

3월 2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3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4만 5천원 · S석 3만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화예매시 5천원 할인)
 문 의 : 아트컴퍼니(1588-8477)



35년 전통을 자랑하는 파워레인저 시리즈의 완결판 '파워레인저 캡틴포스'. 역대 최강 캐릭터들의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화려한 특수효과로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액션라이브쇼의 진수를 선보인다.

2013 뮤지컬 '루나틱' 부산

3월 5일(화)-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4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주)WSM(1566-5490)



2005년 초연 이후 80만 관객이 관람한 창작뮤지컬의 신화 '루나틱' 2013년 무대. 노래와 춤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특별한 감성의 소유자인 굿닥터의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각자의 아픈 사연을 가진 환자들의 치유과정이 아름다운 선율속에 유쾌하게 펼쳐진다.

극단 아센 '메카, 그해 따뜻한 겨울'

3월 8일(금)-2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미리내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미리내소극장(504-254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민작가 아돌 후가드의 '메카로 가는 길'을 각색, 현실속에서의 메카의 의미와 우리가 가져야 할 신념을 이야기하는 작품.

· 연출/호민
 · 출연/구민주, 박규남, 호민

본격토론극 '천벌'

3월 8일(금)-2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공간소극장(611-8518)
부산문화혁명(070-8762-1005)



싱글 아일랜드의 소유권을 두고 벌어지는 두 기업간의 분쟁을 통해 일본, 중국 등 인근국가의 역사왜곡에 대처하는 우리의 현재를 되돌아보는 본격토론극 '천벌'.

· 작/박정우
· 연출/윤성호

· 출연/박준성, 김윤수, 박정상

코믹컬 '드립걸즈'

3월 9일 토요일 오후 3:00, 7:0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7만 7천원 · S석 5만 5천원
A석 3만 3천원
문의 : 아토 커뮤니케이션(714-3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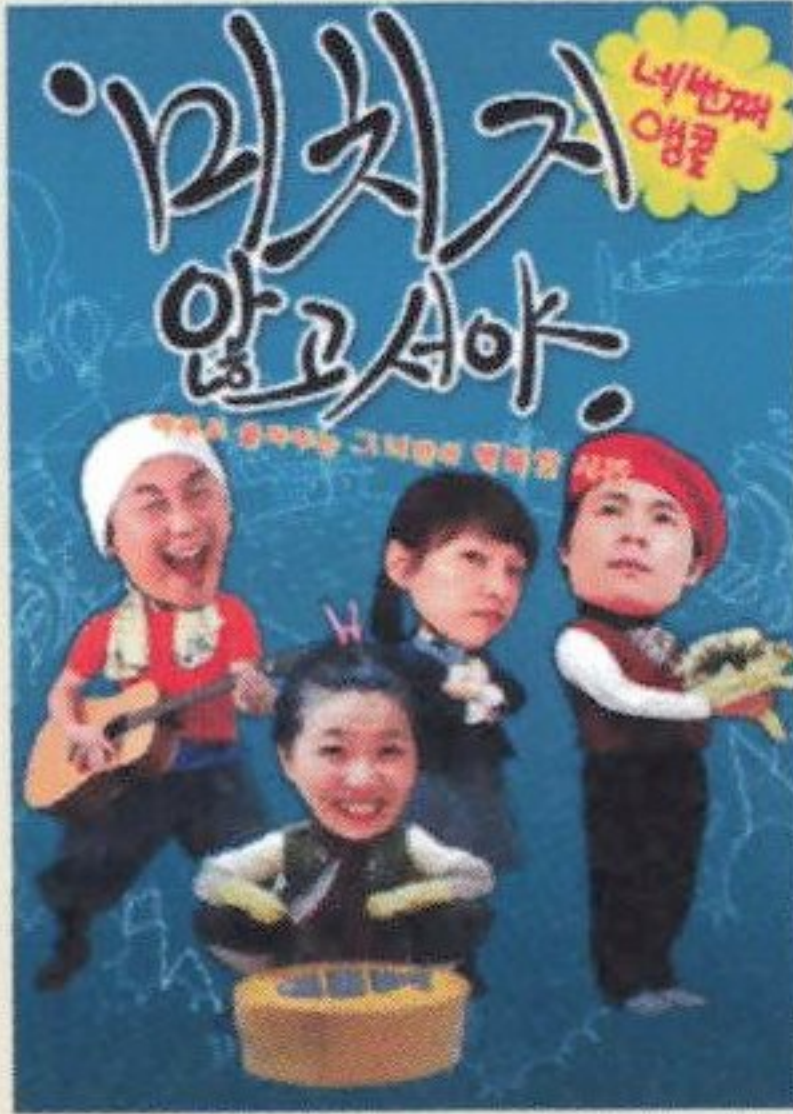


TV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에서 '분장실의 강선생님' 코너를 통해 웃음을 줬던 개그우먼 안영미, 강유미, 정경미, 김경아가 뭉친 코믹컬 '드립걸즈'.

개그와 노래, 춤,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가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개그버라이어티쇼가 펼쳐진다.

연극 '미치지않고서야'

3월 15일(금)-5월 1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 플레이 더 부산(1600-0316)



연극 'A Love Song' '못생겨서 죄송합니다'에 이은 여성 공감 3부작 '미치지않고서야'.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워내기 위한 어머니 박정봉의 고군분투기가 유쾌한 웃음과 짙은 감동으로 펼쳐진다.

· 작, 연출/김민우
· 출연/황자미, 황하규, 조아라, 김민우

연극 '왕초 품바'

3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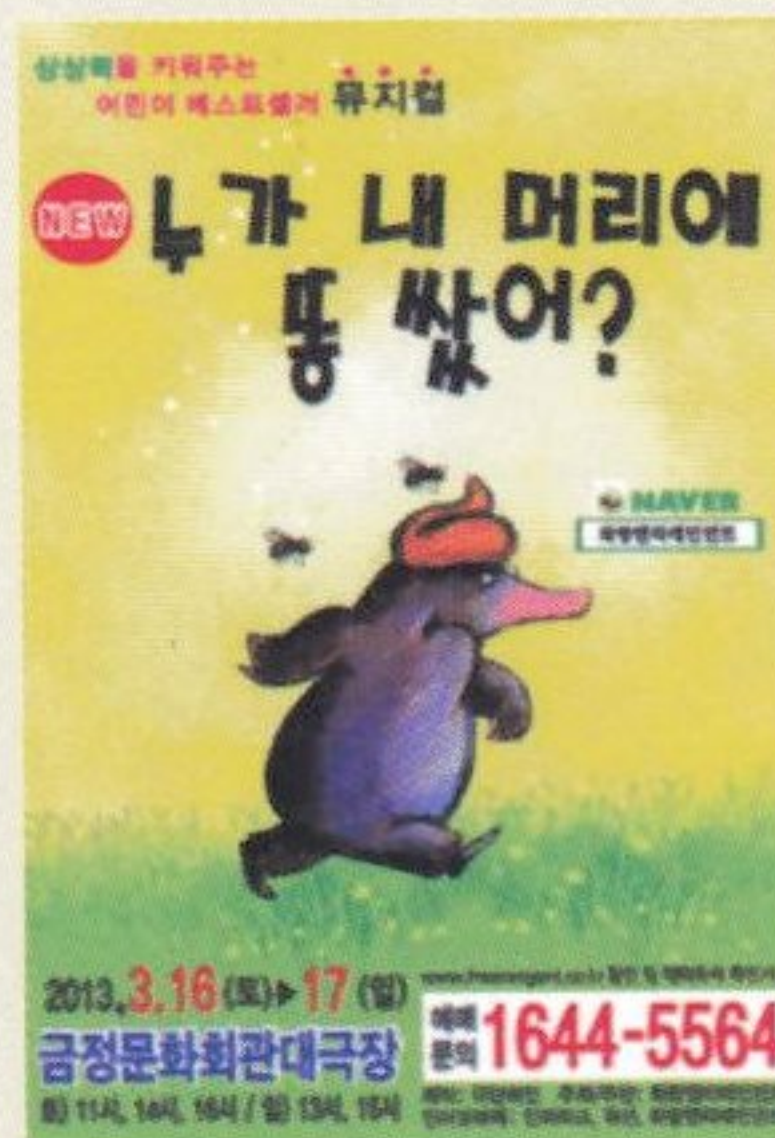


극단 강통 대표로 있으면서 그동안 1,500여회가 넘는 품바공연을 가져온 이 시대 마지막 품바 이계준의 '왕초 품바'.

품바의 삶을 통해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풍자와 해학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어린이뮤지컬 '누가 내머리에 똥쌌어?'

3월 16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7일 일요일 오후 1:00, 3: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2만 5천원 · S석 2만원
문의 :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땅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동세례를 받은 두더지의 범인 찾기를 통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관찰력을 키워주는 어린이 뮤지컬.

· 작, 연출/김영주
· 출연/김영주, 박기선, 주애경, 오하영, 엄태영

극단 에저또 '붕어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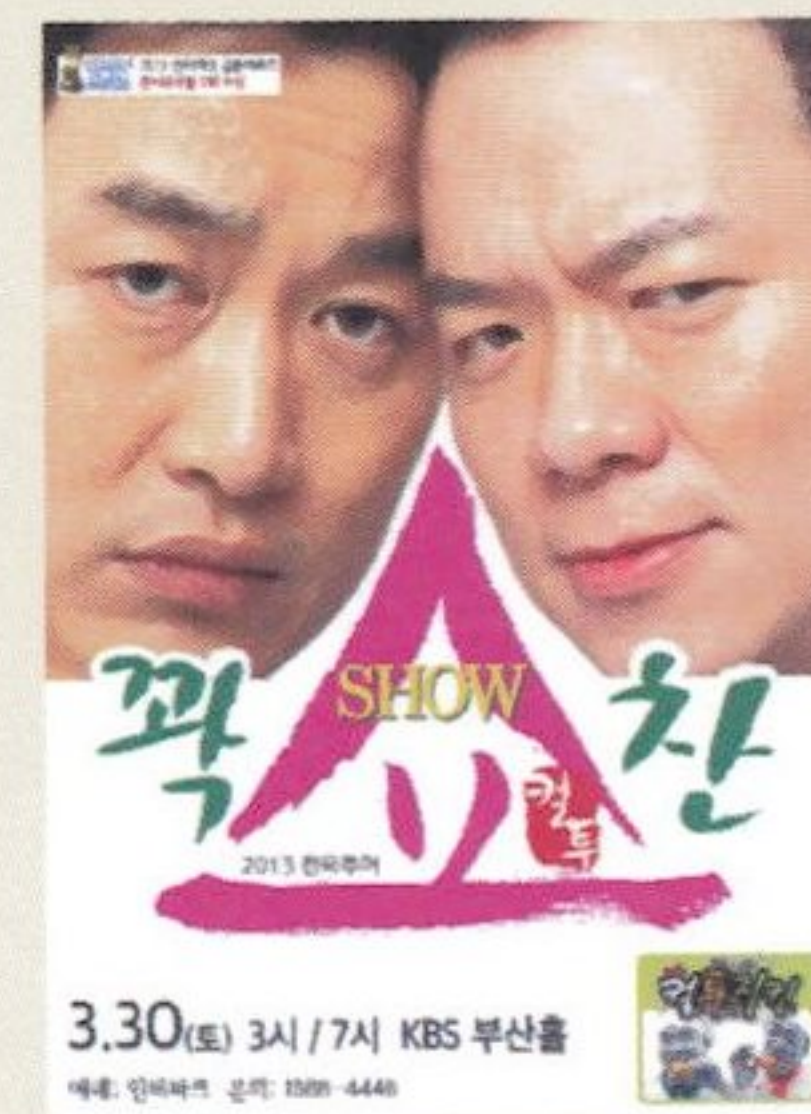
3월 27일(수)-30(금)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다툼도 갈등도 있지만 결국 '붕어빵'처럼 서로 닮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극단 에저또 창작극.

· 연출/최재민
· 출연/이지훈, 김지연, 변창렬, 임철진, 김진구, 장선아

2013 컬투 팍찬쇼

3월 30일 토요일 오후 3:00, 7:0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8만 8천원 · S석 7만 7천원
A석 5만 5천원
문의 : 컬투쇼팩토리(1588-4446)



개그맨 정찬우, 김태균의 컬투가 펼치는 국내 최고의 버라이어티쇼 '2013 컬투 팍찬쇼'.

라스베가스를 뛰어넘는 초호화 무대연출로, 웃음과 재미, 감동까지 다양한 볼거리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2013 제31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하늘개인날 '뜰 앞의 개고기'

4월 2일-3일 화-수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 5천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 한국연극협회 부산지회(645-3759)

2012 제5회 전국창작희곡공모전 대상 수상작을 무대화한 극단 하늘개인날의 경연참가작 '뜰 앞의 개고기'. 세상사 구르고 닳은 형사 유민호에게 예전 인연을 맺었던 관하스님의 부고가 전해지면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지금의 삶을 이야기한다.

· 작/최수영
· 연출/곽종필

2013 제31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도깨비 '깊이 묻다'

4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 5천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 의 : 한국연극협회 부산지회(645-3759)

사망 금지령이 내려진 마을을 배경으로, 죽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시신을 묻기 위한 도굴범 아들의 고군분투 기로, 죽음을 통해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는 극단 도깨비의 '깊이 묻다'.
· 작/김경미 · 연출/최광욱

Concert

Jazz...와인에 빠지다 43번째 이야기
컨템포러리 재즈밴드 Soulloge

3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3만 5천원 · S석 2만 5천원
문 의 : 문화기획단 무대공감(623-0678,
www.mudae.kr)



트럼펫 김성민을 주축으로 색소폰 김수환, 드럼 정원식, 베이스 김도용, 키보드 정진욱 등으로 결성된 컨템포러리 재즈그룹 'Soulloge(소울로지)' 초청무대.

PRAY ART CONC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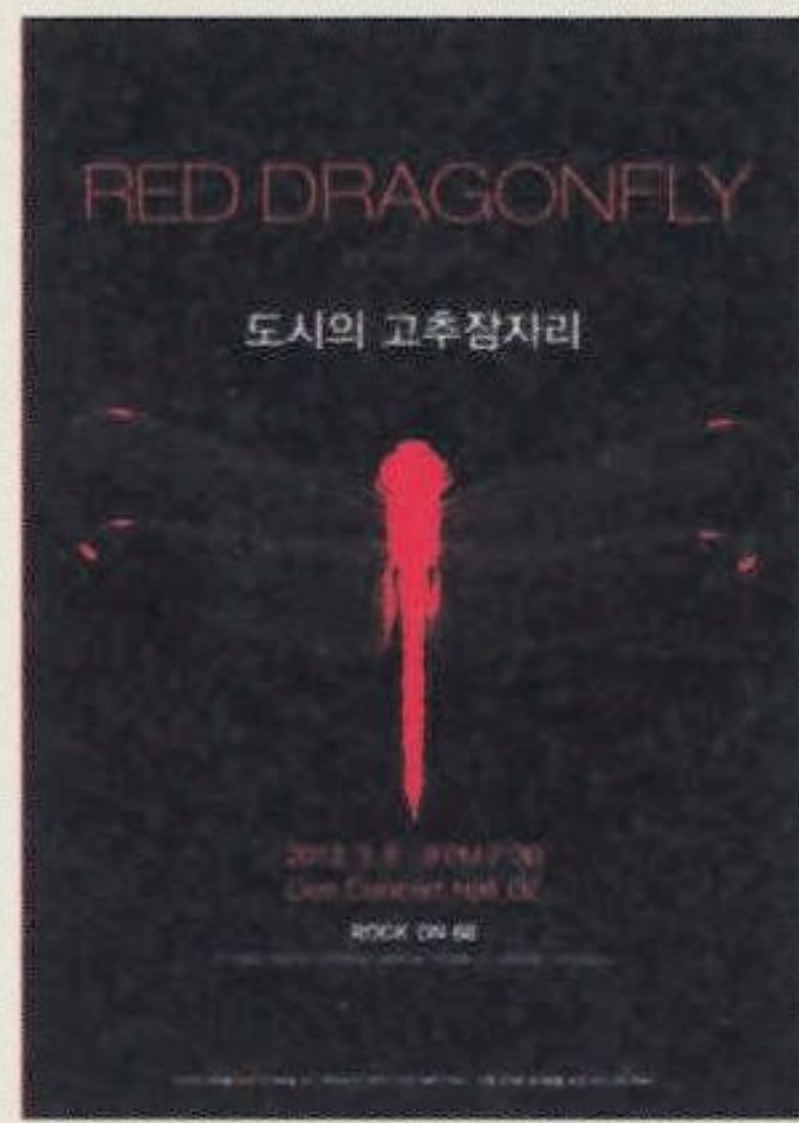
3월 2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예매시 1만원)
문 의 : 잼머스 뮤직아카데미(512-1179)

스트릿댄스 퍼포먼스와 보컬, 기타, 드럼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지는 PRAY ART CONCERT.

목장원과 함께하는 유지나, 류기진 7080 콘서트
3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휴먼콘서트 '도시의 고추잠자리'

3월 8일-9일 **금-토요일** 오후 7:30 라이브홀 오즈
입장료 : 균일 2만원(예매시 5천원 할인)
문 의 : 프로젝트 Rock on 68(010-4271-3335)



음악을 통한 세대간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열정의 장을 만들기 위해 모인 프로젝트 'Rock on 68' 이 마련한 휴먼콘서트.
싱어송라이터 정영주의 자작곡을 통해 도시와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와 고민을 서로 나누고 보듬어 보는 무대를 마련한다.

· 출연/신기연(일렉트릭 기타), 정영주(노래, 작곡), 박진성(베이스기타), 이광혁(드럼), 정주애(신디사이저)

Event

세계악기 감성체험전 '악기나라 소리궁전'
1월 26일(토)-Open Run 영화의전당 비프힐
입장료 : 균일 1만 2천원
문 의 : (주)KnP엔터테인먼트(1599-8879)

무지크바움 후기 낭만 교향곡 감상회

3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7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1부 말러 '대지의 노래' (CD)
· 지휘/브루노 발터 · 연주/빈 필하모닉 관현악단
- ▶2부 브루크너 교향곡 9번(DVD)
-동경 오페라 시티 콘서트 홀 실황 공연
· 지휘/귄터 반트 · 연주/북독일 방송 관현악단

오페라 전용 감상실 '서푼짜리 오페라' 감상회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6:00
(2일, 29일은 오후 7:30), 일요일 오후 5:00
(2일 오후 5:30) 서푼짜리 오페라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서푼짜리 오페라(991-8541,
cafe.daum.net/dreigroschenoper)

-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베르디 전 작품 감상
· 5일(화), 7일(목) 19:30 '오베르토'
· 12일(화), 14일(목) 19:30 '하룻 동안의 왕'
· 19일(화), 21일(목) 19:30 '나부코'
· 26일(화), 28일(목) 19:30 '나부코'
- ▶바그너 탄생 200주년 기념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
· 2일(토) 19:30, 3일(일) 17:30 제1부 '라인의 황금'
· 9일(토) 18:00, 10일(일) 17:00 제2부 '발퀴레'
· 16일(토) 18:00, 17일(일) 17:00 제3부 '지그프리트'
· 23일(토) 18:00, 24일(일) 17:00 제4부 '신들의 황혼'
· 29일(금) 19:30, 31일(일) 17:00 제1부 '라인의 황금'

제119회 저녁에 만나는 아름다운 시

3월 6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예강(010-5516-1867)

- 초대시인/박강우, 배종대, 손순미, 정훈(평론가), 최정란, 이두예

감동이있는 시낭송회 제73회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3월 16일 **토요일** 오후 5: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김옥균(010-6367-0149)

- 초청음악가/소프라노 송영희, 테너 김진호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시마당 제131회 시낭송회

3월 26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시를 짓고 듣는 사람들의 모임(867-2569)

Gallery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 신진작가 지원 프로젝트 靑사진
손이숙展 'I s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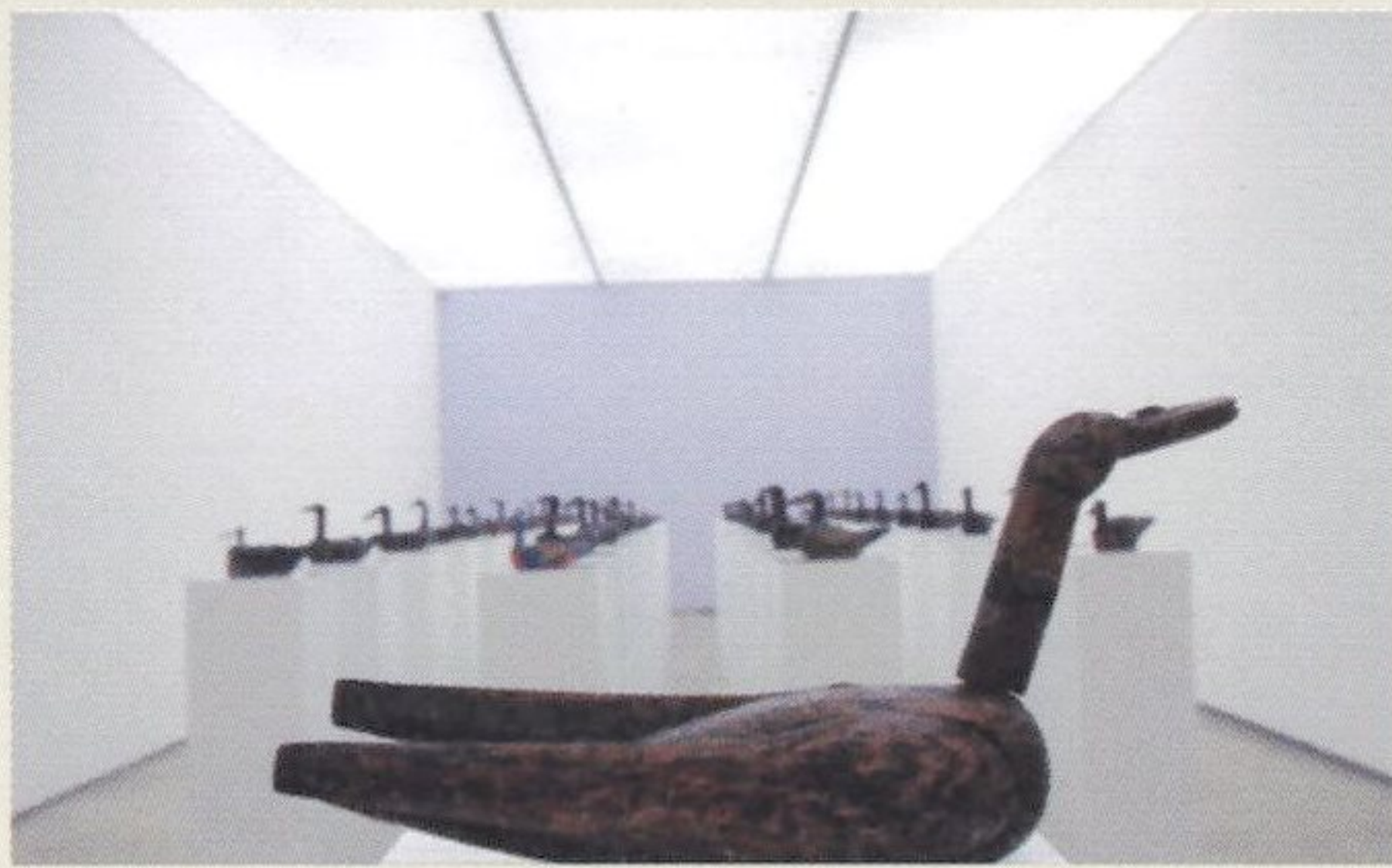
2월 1일(금)-3월 25일(월)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
문 의 :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731-6200)

신미란 '기원전'

2월 2일(목)-3월 12일(화)
부산프랑스문화원 아트스페이스
문 의 : 부산프랑스문화원(746-0342)

바라보다 - 1부 나무기러기, 2부 보자기

2월 15일(금)-3월 19일(화) 조현화랑 부산
문 의 : 조현화랑 부산(747-8853)



골동품 컬렉터로 유명한 '설악의 화가' 김종학 화백이
수십년 모은 작품 중 엄선된 작품들로 마련된 특별전.
나무가 가진 고유의 특성에 섬세함이 조각된 61마리의
나무기러기(목안)와 '무기교의 기교'가 오히려 더 자연
스럽게 조형의 독창성으로 묻어나 재미를 더하는 35점
의 보자기가 1, 2부로 나뉘어 전시된다.

차규선展 '흐드러지다'

2월 27일(수)-3월 17일(일) 갤러리 다운타운
문 의 : 갤러리 다운타운(746-8353)



분청사기기법을 회화로 구현
해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는
작가 차규선 작품전.
한국적인 서정성으로 자신만
의 조형어법으로 표현된 매
화, 도화, 수선화 등 '꽃'을 주
제로 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
인다.

고은사진미술관 연례 기획_부산 참견錄
강홍구展 '사람의 집-프로세믹스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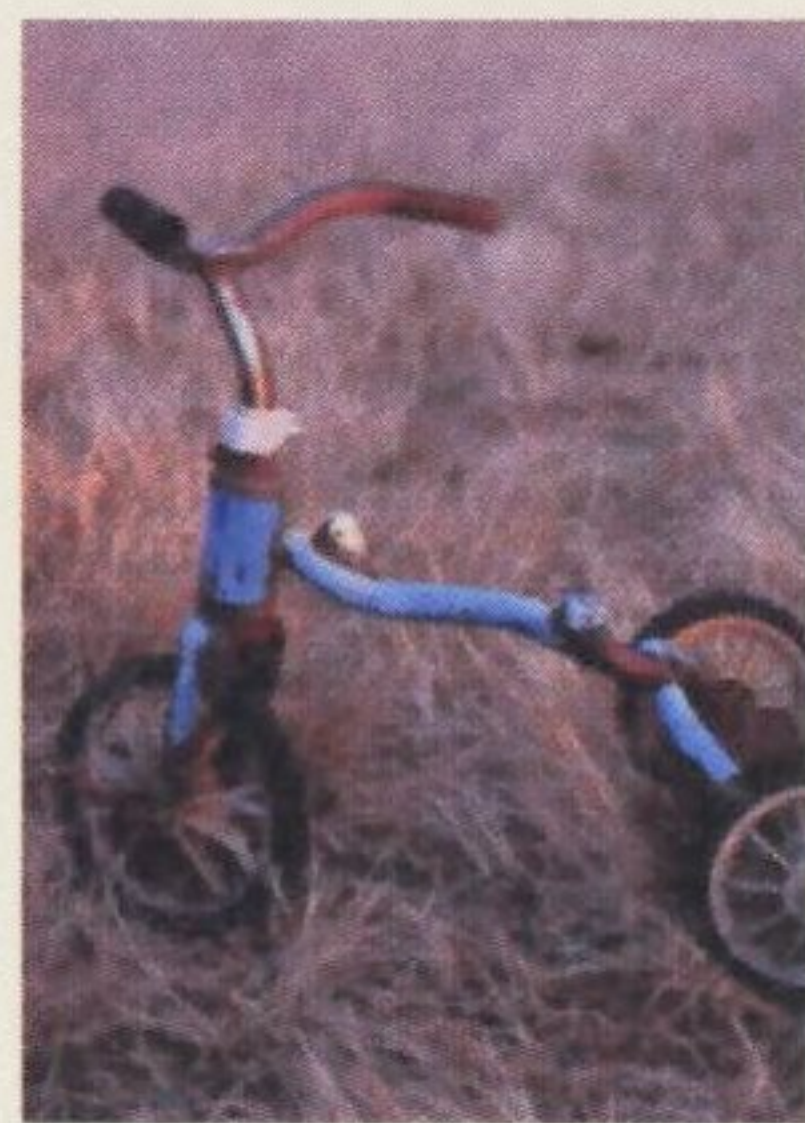
3월 2일(토)-5월 9일(목)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한국의 중견작가를 매년 1인 선정해 그들에게 각자의
시각과 방법으로 '부산'을 촬영하도록 하여 그 결과물
을 전시하는 고은사진미술관 장기 프로젝트 '부산 참견
錄' 첫번째 전시.

'집'이라는 소재로 지속적인 작업을 가져온 작가 강홍
구가 부산의 산복도로에 위치한 집들을 촬영한 신작 40
여점을 선보인다.

고은 컨템포러리 사진미술관 연중기획 '중간보고서'
박진영 개인전 '방랑기'

3월 2일(토)-5월 9일(목)
고은 컨템포러리 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한국사진지평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40대 작가의 성장
중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고은사진미술관 기획전 '중
간보고서' 첫번째 전시회.
도큐멘터리 사진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
의 실험으로 사진의 근원적
문제를 다가가는 작가 박진영의 작품이 소개된다.

김현정 초대개인전 '그녀, 내송?'

3월 4일(월)-3월 29일(금) 갤러리 아인
문 의 : 갤러리 아인(747-2612)



우아한 한복이 주는 고상함과과는 다른 전혀 고상하지 못
한 행동을 하는 '내송'을 주제로, 인물의 누드위에 한지
를 얹게 붙여 표현한 김현정 초대전.

인상을 담은 동양화展 - 김수민, 신재림, 정혜리

3월 4일(월)-3월 16일(토) 갤러리 움
문 의 : 갤러리 움(557-3369)



신재림 작 '피어오르다'

여백의 미를 살리기 보다 화
면을 채움으로써 동양화의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난
젊은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
을 만날 수 있는 갤러리 움
의 신진작가 김수민, 신재림,
정혜리 3인전 '인상을 담은
동양화'展

이영섭 조각전 '회화를 닮은 조각-백제 발굴'

3월 5일(화)-3월 28일(목)
소울아트스페이스 제1전시실
문 의 : 소울아트스페이스(731-5878)

손봉채展

이산(離散)의 꿈-The Dream of Diaspora

3월 5일(화)-3월 28일(목)
소울아트스페이스 제2, 3전시실
문 의 : 소울아트스페이스(731-5878)



봄기획전 '春 - 美'

3월 7일(목)-3월 16일(토) 타워갤러리
문 의 : 타워갤러리(464-3939)

새람 두 번째 개인전

3월 18일(월)-4월 6일(토) 갤러리 움
문 의 : 갤러리 움(557-3369)

봄이 오는 소리展

3월 18일(목)-3월 30일(토) 타워갤러리
문 의 : 타워갤러리(464-3939)

하인상의
생각그림

Metaphortoon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과 무시로 마주한다. 기가 차고 황망하지만 웃음이 입가를 비집고 나오는 건 왜 일까. 뜻하지 않은 웃음은 없기 때문이리라.

메타포투니스트 · 시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90×90 paper on silk screen printing

브로니슬라프 짐펠 RIAS 레코딩 (1954-57)

시벨리우스/ 시마노프스키/ 비에니아프스키 바이올린협주곡/ 슈베르트 /멘델스존/ 슈만/야나체크/ 타르티티: 소나타/ 라트하우스: 목가와 춤

Bronislav Gimpel(violin), RIAS Symphony Orchestra, Martin Krause(pi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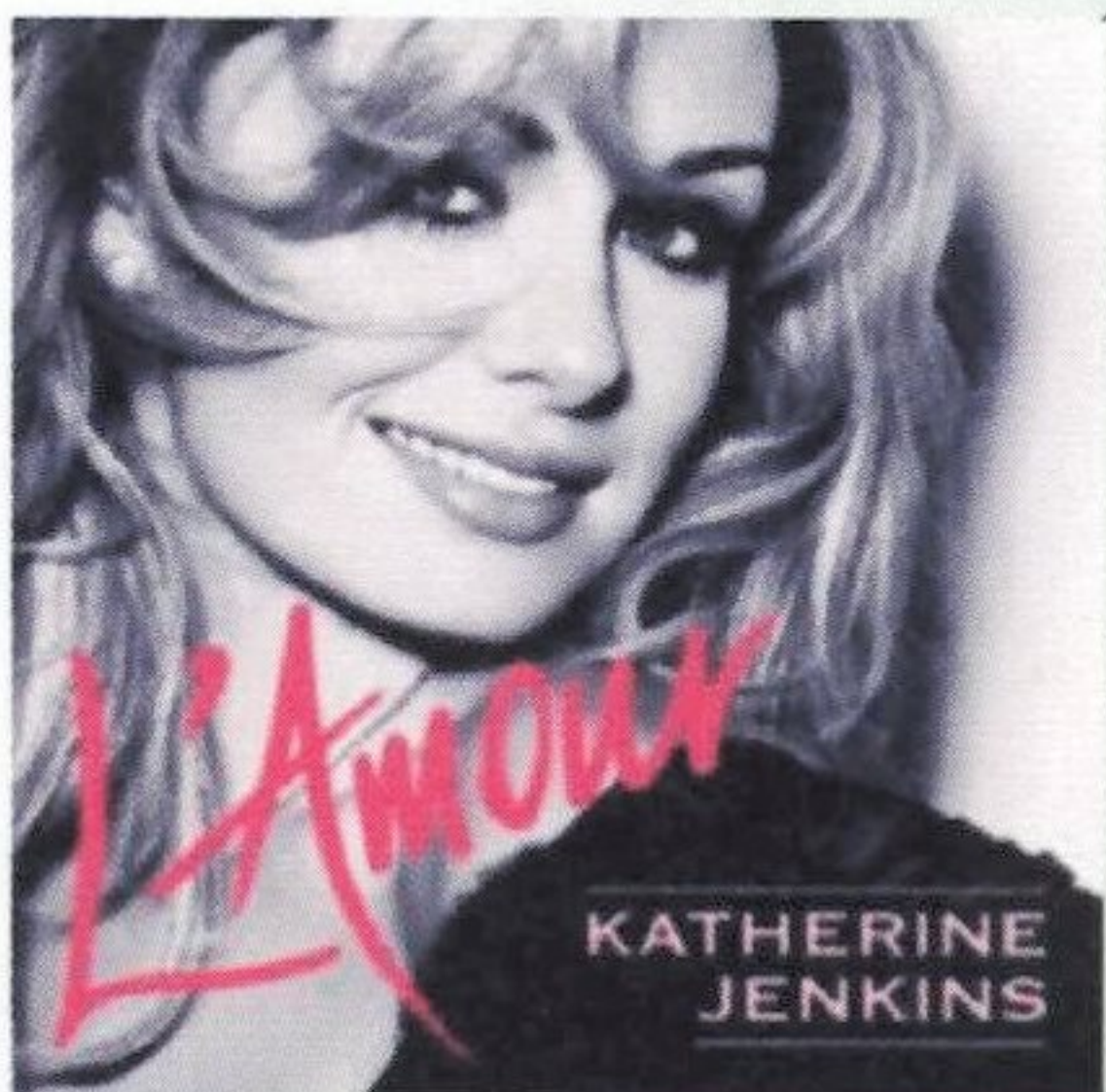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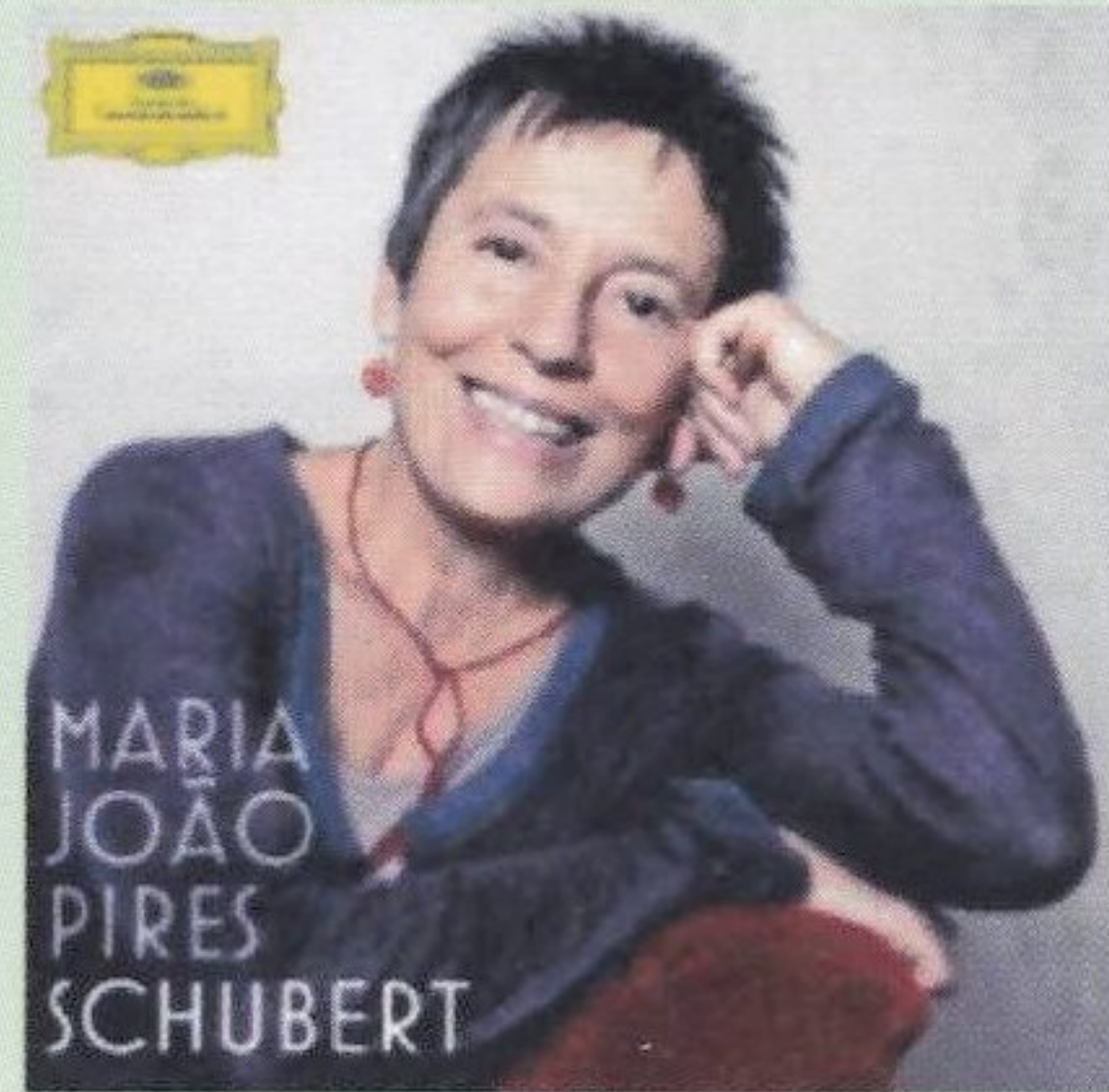
오리지널 마스터를 사용하여 제작된 거장 바이올리니스트 짐펠의 RIAS 녹음 전집

짐펠은 폴란드 태생으로 유대계 혈통의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14세에 골드마르크 협주곡 연주로 화려하게 데뷔한 신동으로, 이탈리아 국왕과 교황 피우스 11세 앞에서 어전 연주를 하였다. 미국 이민 후 LA필하모닉의 콘서트 마스터를 역임하였고, 바르샤바 피아노 오중주단을 창설하여 활동을 펼쳤다. 탁월한 테크닉을 지닌 천부적 재능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강력한 비브라토와 정열적인 연주를 들려주었다. 그의 전성기인 1950년대에 RIAS에서 이루어진 녹음 전곡을 담고 있는 3CD 앨범이다.

슈베르트 : 피아노 소나타 D.960, 845 / 마리아 호아오 피레스

2013년 2월 말 런던심포니와 함께 내한 공연을 펼치게 될 포르투갈의 거장 마리아 호아오 피레스가 연주하는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걸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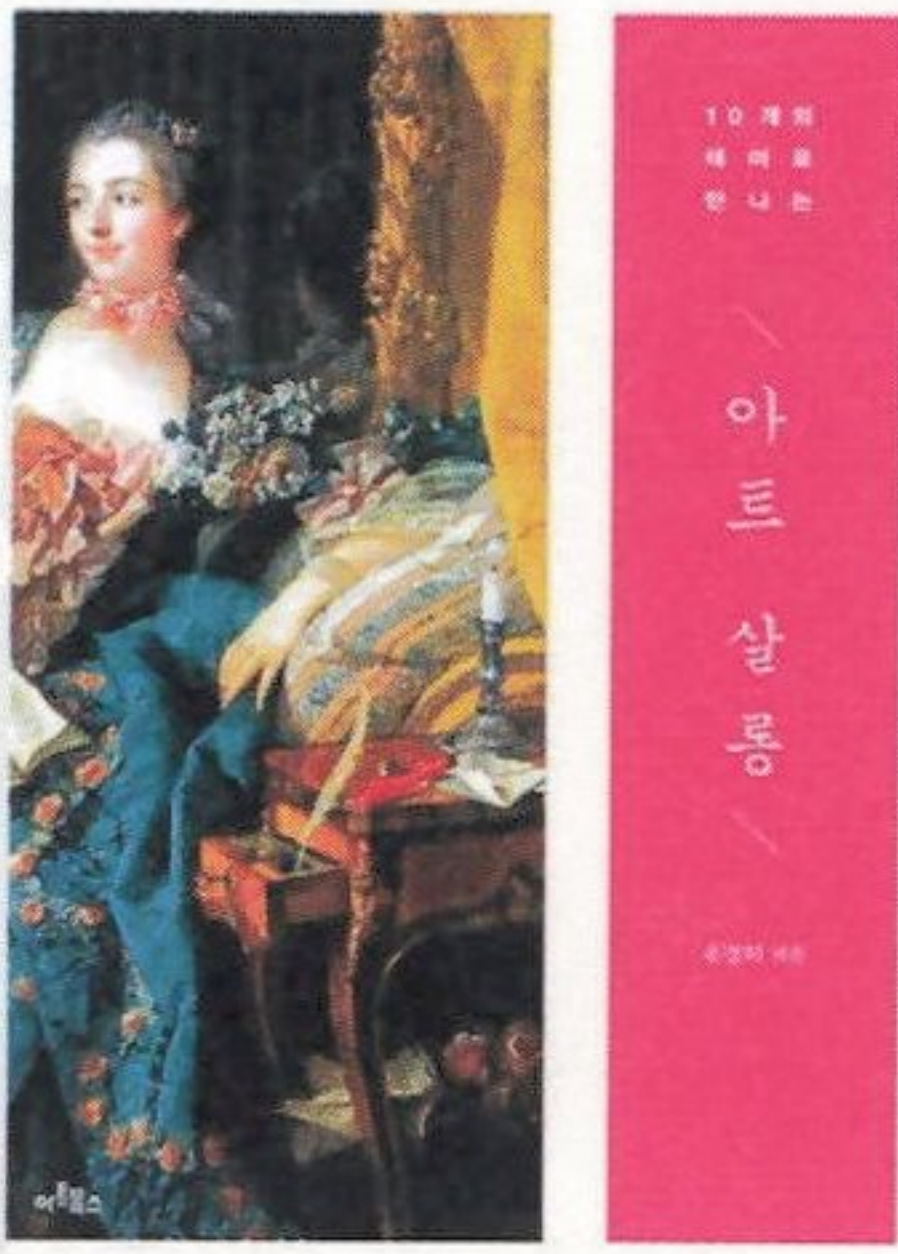
마리아 호아오 피레스는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로 뿐만 아니라 이미 슈베르트 즉흥곡 음반(4575502)을 통해 슈베르트 연주에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큰 인기를 누려왔다. 더불어 이번 음반에서는 피레스에게는 첫 녹음인 A단조 소나타 16번을 비롯해, D.960 소나타 21번을 담고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녀가 추구하는 자연스럽고 순수한 음악의 아름다움이 원숙의 경지에 이른 지금의 새 슈베르트 녹음에서 어떻게 펼쳐내는지 놓쳐서는 안될 음반이다.



라무르 / 캐서린 젠킨스

영국 왕실음악원 출신다운 아름다운 목소리와 빼어난 미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웨일스의 마릴린 먼로' 캐서린 젠킨스의 새 컬렉션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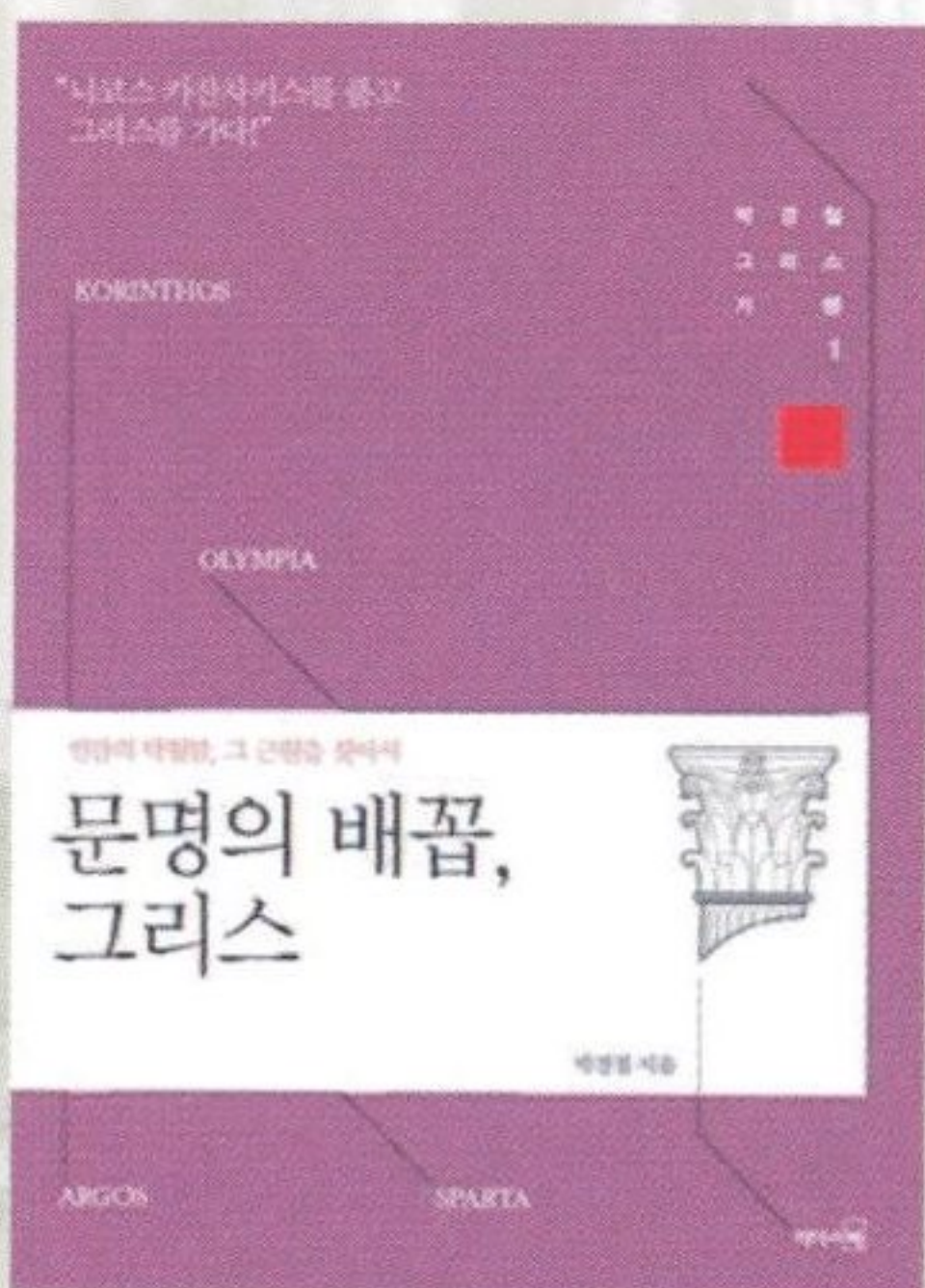
오페라, 팝송,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모두 소화하는 그녀의 투명하고 맑은 목소리로 친숙한 로맨틱 러브송을 모았다. <Time to Say Goodbye>, <Il Canto>, <We'll Meet Again>, <Sweetest Love>,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등 꾸준한 사랑을 얻고 있는 그녀의 베스트라 할 만한 매력적 선곡이다. 감쪽한 용모로 17세에 '웨일스의 얼굴'로 선발되어 모델활동을 하기도 한 캐서린 젠킨스는 2004년 데뷔 이후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10개의 테마로 만나는 아트 살롱

유경희 지음 / 아트북스 / 392p / 1만8천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도슨트 투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과 전시품, 미술관에 전시된 예술작품을 설명해 주는 전문 안내인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특히 예술작품의 경우, 아무리 보는 대로 느끼고 감상하는 것이라지만 그래도 어려운 건 사실.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의 차이는 크다. 시대를 넘어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명화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수많은 힌트를 담고 있어 더욱 그렇다. 미술잡지 기자와 큐레이터를 거쳐, 뉴욕에서 예술행정을 공부한 유경희 씨가 예술작품을 더 가까이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대학에서 미학과 예술론을 가르치고, CEO를 위한 특강 등 대중 강좌를 진행하며 축적해 온 독특한 예술 접근방식이다. 책 속의 글들은 몇 년 전부터 저자가 대중강좌를 해 오던 결혼·패션·카페·여행·요리 등의 테마를 통해 보는 작품세계에 대한 설명이다. 미술 이야기 뿐만 아니라 영화·문학·드라마·인간관계·사회문제 등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배경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는 알 수 없는 코드들을 하나하나 해석하며 감상하다 보면, 그림을 보는 시각이 더 넓어지겠다.



문명의 배꼽 그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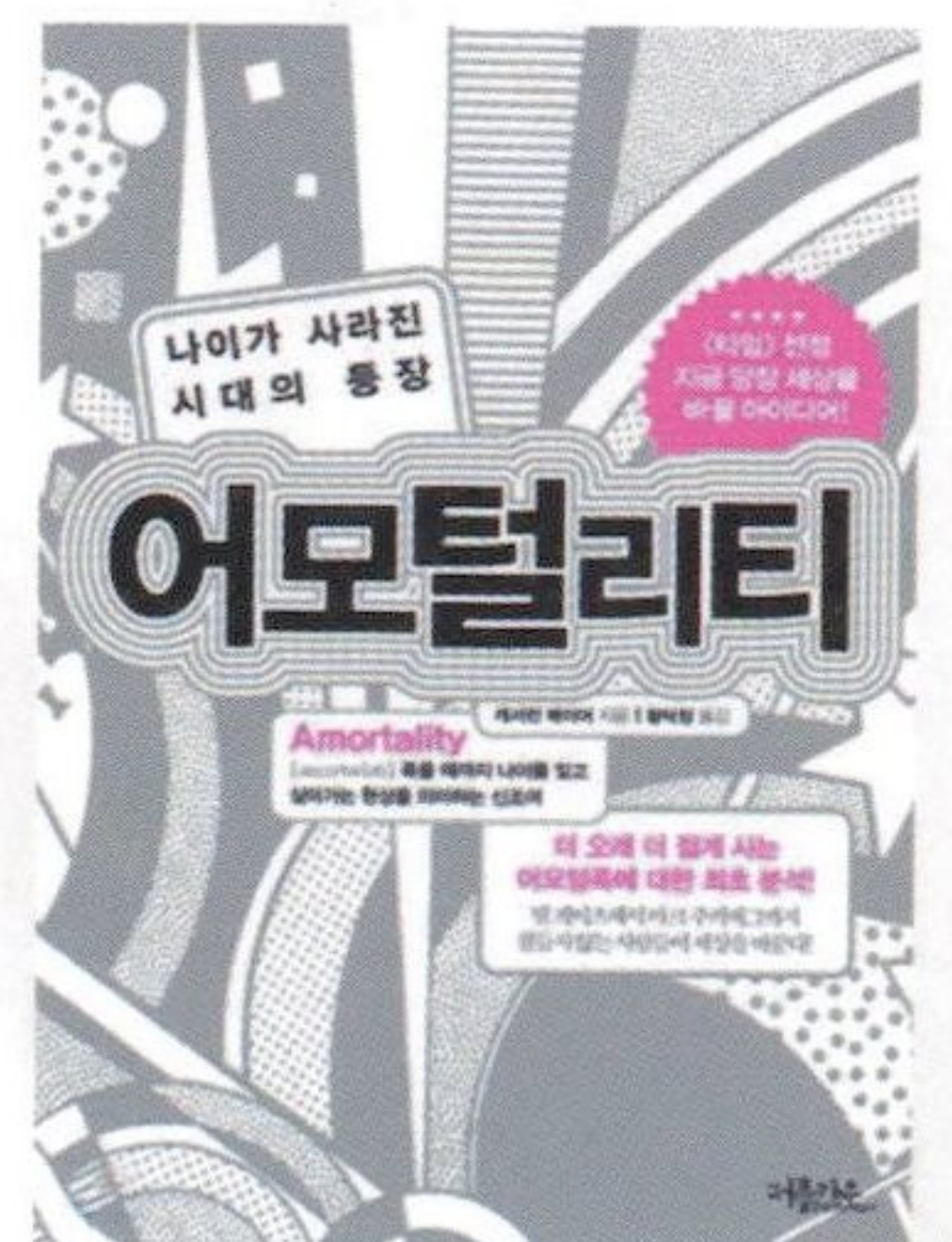
박경철 지음 / 리더스북 / 454p /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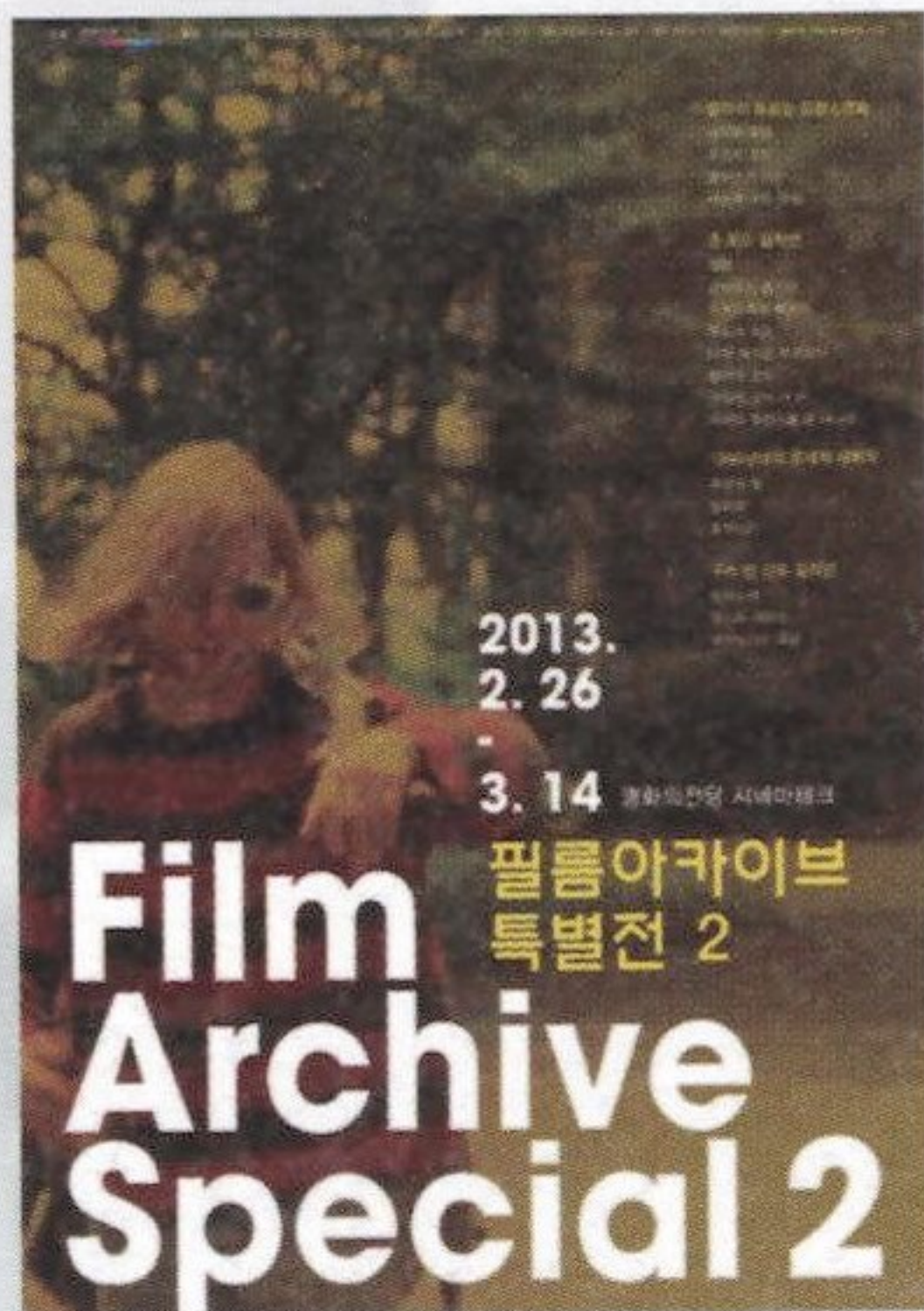
시골의사 박경철이 전해주는 그리스 문명 이야기. 외과의사 출신 경제전문가이자 지식인, 대한민국 청년들의 멘토였던 저자는 활발한 강연과 저술을 통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던 중 저자는 홀연히 그리스로 떠났다. 서양 문명의 발원지인 그리스에서 시작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이란, 이집트와 시리아, 스페인 등지를 여행하며 문명 탐사의 대장정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2년 동안에 걸친 긴 여행의 결과물을 엮은 책을 발표하며 돌아왔다. 문명순례자인 박경철은 특별한 인물과 함께 동행한다. 저자가 가장 좋아하고 경외를 바쳐온 그리스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1883~1957)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생전에 펠로폰네소스를 비롯해 자신의 조국 그리스는 물론 전 유럽과 아프리카, 중국과 일본까지 거의 전세계를 망라한 '위대한 여행자'이기도 했다. 이 책을 통해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근대 이후 세계의 패권을 움켜쥔 서구 문명이 땃줄을 대고 있던 곳, 오늘날의 서구가 자랑스러워하는 문명의 배꼽, 헬라스의 뿌리이자 헬레네의 고향, 펠로폰네소스가 펼쳐진다. 문명의 탄생과 성장, 쇠락의 흐름을 역사적·철학적으로 돌아봄으로써 미래를 제시하는 책이다.

어모털리티

캐서린 메이어 지음, 황덕창 옮김 / 퍼플카우 / 400p / 2만 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던 말이 현실이 됐다. "몇 살부터 중년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기가 힘들어졌다. 손주뻘 되는 10대 청소년과 80대 할아버지가 나란히 스마트폰 매장에 서서 어떤 디자인 어떤 기능의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는 세상이다. 개인의 기호도 더 섬세해졌다. 이런 고객들 앞에서 "나이에 맞는 상품을 권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가는, 팔 수 있는 상품도 못 파는 수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이로 소비자를 분류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이 책의 제목인 '어모털리티(amortality)'는 '영원히 살 수 없는'이라는 뜻의 'mortal'에 부정을 의미하는 'a'를 붙여, '영원히 늙지 않는'이라는 의미로 만든 조어의 명사형이다. 죽을 때까지 나이를 잊고 살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 그 자체다. 어모털리티는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나이를 모르는 주책 같은 것이 아니라, 나이 따위는 잊어버린 채 언제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타임지는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유물일 뿐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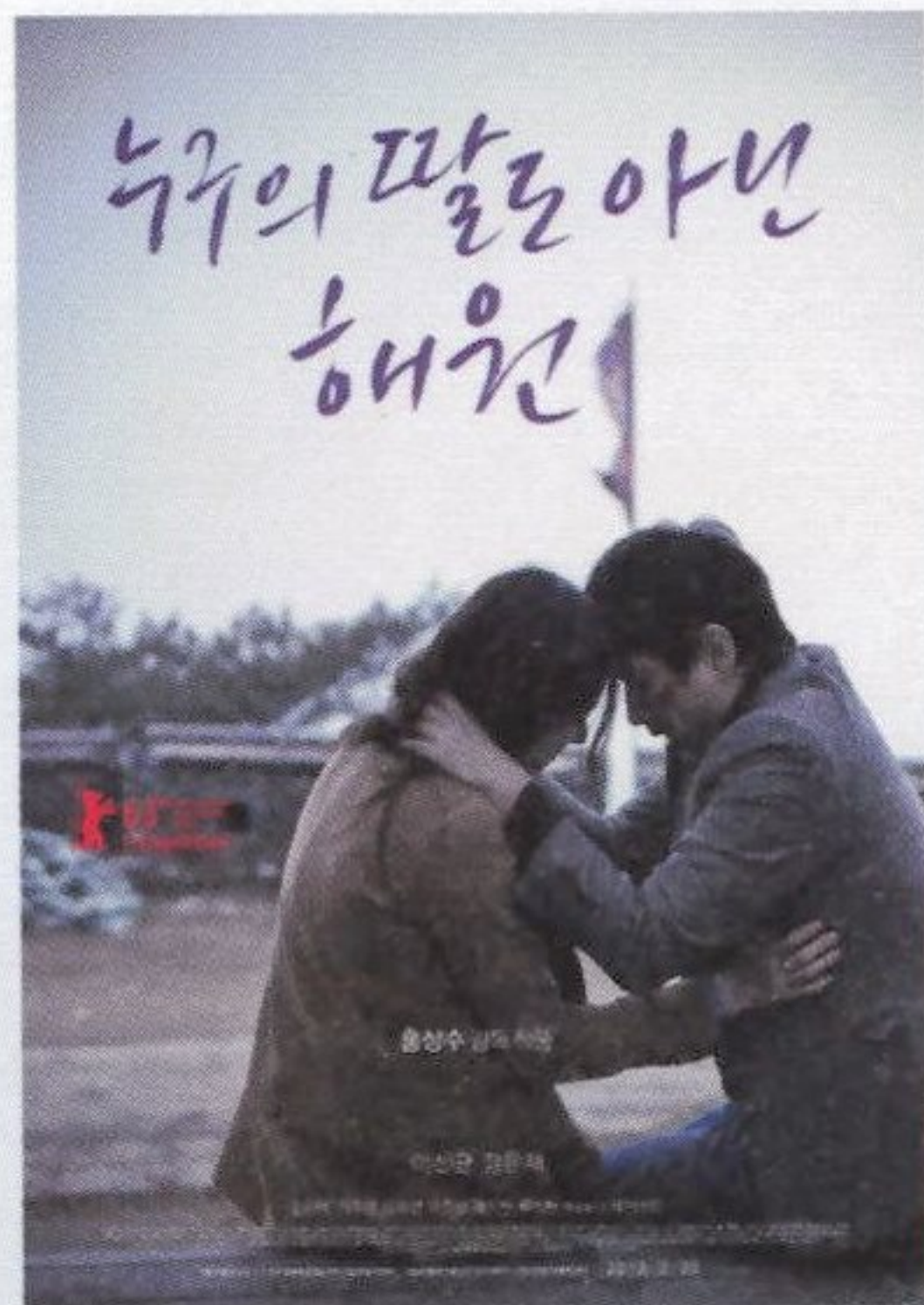




필름아카이브 특별전 2

2월 26일(화)~3월 14일(목)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재)영화의전당이 마련하는 '필름아카이브 특별전' 두 번째 상영회가 3월 14일까지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에서 펼쳐진다. '필름아카이브'는 영화필름을 수집, 보관하는 '영화 창고'를 의미한다. 시네마테크는 지난 2007년부터 '부산필름아카이브'를 설립해 국내외 고전영화 및 독립영화를 수집해오고 있다. 지난해 6월 '필름아카이브 특별전' 첫번째 상영회를 통해 1990년대의 기억을 되살렸다면 (재)영화의전당은 이번 두 번째 상영회에서는 192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각 시대의 영화필름에 새겨진 사회문화적 스펙트럼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영화들을 감상할 수 있다. 1부 '음악이 흐르는 프랑스영화', 2부 '존 포드 걸작선', 3부 '1990년대의 문 제적 데뷔작', 4부 '구스 반 산트 걸작선' 등 총 4부로 나뉘어, (재)영화의전당 필름아카이브에서 수집한 프랑스 음악영화들은 물론이고 한국시네마테크 필름라이브러리에 소장되어있는 존 포드 영화들까지 총 18편의 작품들이 상영된다. 영화상영 후에는 영화평론가 박인호의 쉽고 재미있는 영화해설을 통해 작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상세 일정은 홈페이지(www.dureraum.org)에서 확인 가능.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2월 28일 개봉

지난 2월 15일 제63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월드프리미어를 통해 베일을 벗은 홍상수 감독의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은 홍상수 감독의 열네 번째 장편영화이다.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은 1997년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2007년 '해변의 여인', 2008년 '밤과 낮'에 이어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4번째 영화로, 프레스 상영과 기자회견을 통해 호평을 받았으나 아쉽게도 수상작에는 들지 못했다. 대학생 해원은 학교 선생인 성준과의 비밀스런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내일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는 엄마와 만나고 우울해진 해원은 오랜만에 성준을 다시 만난다. 그날 식당에서 우연히 같은 과 학생들을 마주치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지게 된다. 해원은 더 불안해지고, 성준은 둘이서 어디론가 도망을 가자는 극단적인 제안을 하는데... 영화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은 캐나다로 엄마를 떠나 보낸 여대생 해원이 겪게 되는 슬프고, 때론 기뻐던 며칠 간의 일들을 일기체 형식 속에 담은 작품으로, 홍상수 감독의 전작 '옥희의 영화'에도 출연했던 배우 이선균과 신인배우 정은채가 주연을 맡아 호연을 선보인다.



가족의 나라

3월 7일 개봉

재일교포 2세인 양영희 감독의 자전적인 영화로 알려져 화제가 된 '가족의 나라'는 일본에서 북송당한 이후 병을 치료하기 위해 3개월간 감시자의 동반 아래 25년 만에 재회한 자이니치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양영희 감독은 1959년부터 무려 20년간 이어진 재일교포 북송사업으로, 1971년경 세 명의 오빠와 원치 않는 이별을 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오빠 '성호'는 양감독의 오빠들을 투영한 인물이며, 현재 두 명의 오빠만 북한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영희 감독은 앞서 연출한 두편의 다큐멘터리 '디어 평양'과 '굿바이, 평양'에서 세 오빠를 북한으로 이주시킨 아버지와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조카를 다큐멘터리 속에 담으면서 북한으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영화에서는 영화 '공기인형' '원터풀 라이프'의 이우라 아라타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의 안도 사쿠라, 그리고 '똥파리'의 양익준 감독이 주연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영화 '가족의 나라'는 제62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국제예술영화관연맹상, 제10회 파리시네마영화제 마음을 울리는 영화상, 제4회 오렌부르크국제영화제 그랑프리, 제13회 아시아티카영화제 관객 최우수 작품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연구공간 브로컨스톤 '시민인문강좌'

연구공간 브로컨스톤이 주관하는 시민인문강좌가 3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연구공간 브로컨스톤 회의실에서 열린다. 2008년 작은도서관인 극동스타클래스도서관 개관으로 시작된 연구공간 브로컨스톤의 인문학 강좌는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펼쳐지는 시민 인문학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시민인문강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무료강좌로, 지역, 여성, 공동체라는 세가지 주제로 14차례 강좌가 진행된다. 주요 강좌로는 동아대학교 홍순권 교수의 '역사의 시선과 지역·지역인의 정체성', 동아대학교 김병찬 교수의 '변방이 만들어 낸 부산의 문화', 부산대학교 김인선 교수의 '서양의 여성해방운동과 성혁명', 국제신문 박창희 기자의 '을숙도, 거대한 상실',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김경자 관장의 '열림과 연대의 지역자원활동, 아름다운 사람들' 등이 마련되어 있다. 수강신청은 2월 28일까지 전화(206-0901)와 홈페이지(cafe.daum.net/BrokenStone)에서 접수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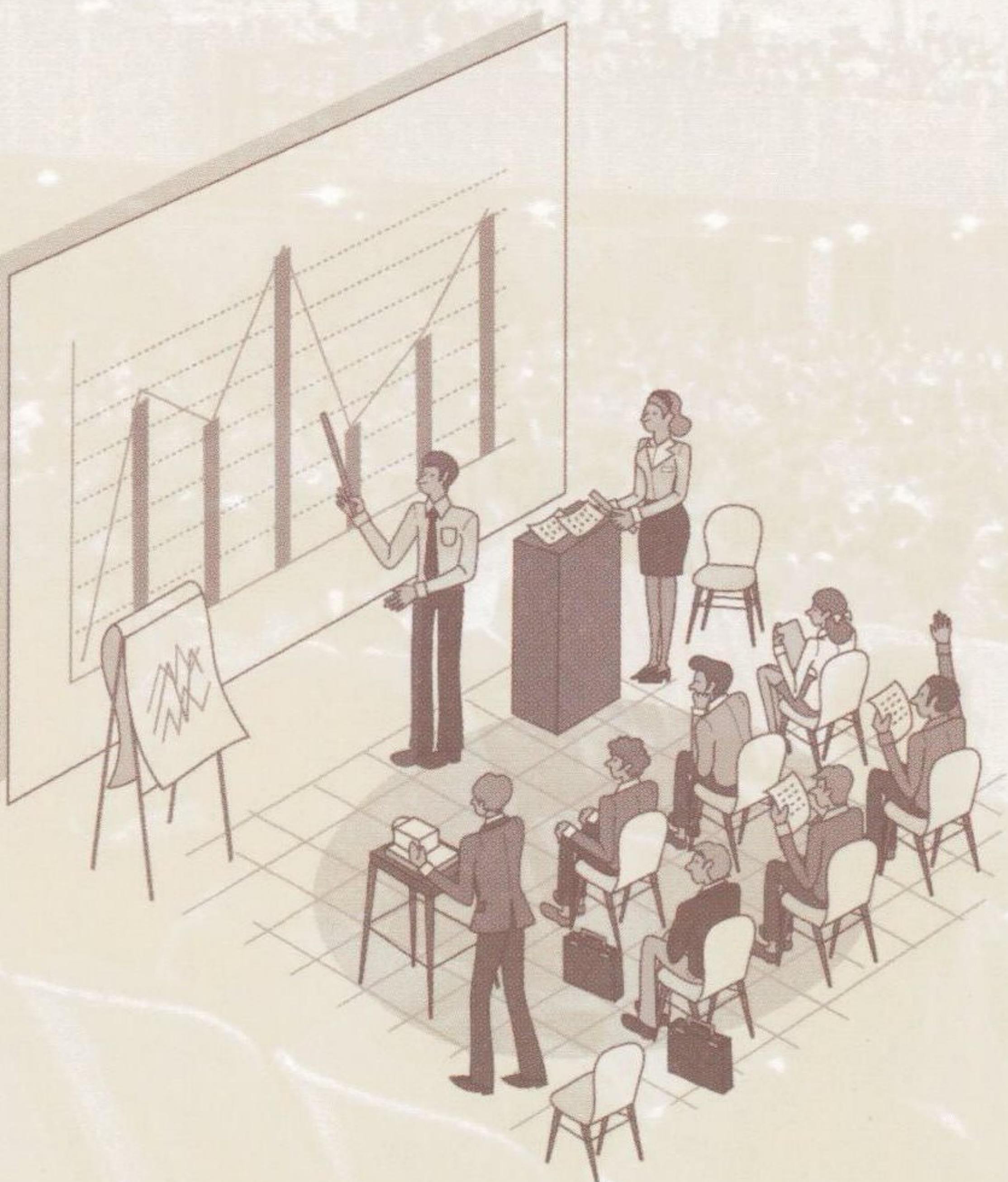
• 문의/연구공간 브로컨스톤(206-0901, cafe.daum.net/BrokenStone)

정세청세 : 2013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 세계와 소통하다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며,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지는 인문 토론행사 '정세청세'가 3월 23일 1회를 시작으로 2013년 일정을 시작한다. '정세청세'는 그 회의 주제에 맞는 'EBS 지식채널-@' 영상과 함께 '정세청세' 기획팀의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영상을 관람하며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자기 경험과 삶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청소년 토론회이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잘 나누지 못했던 자기 안의 내밀한 생각들을 풀어놓고,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우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운명의 주인, 영혼의 선장'으로 거듭난다. 2013에는 3월 23일, 4월 20일, 5월 25일, 7월 20일, 8월 17일, 10월 26일, 11월 16일, 12월 21일 등 모두 8차례 열린다. 14세에서 19세까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는 없다. 참여 신청은 '정세청세' 공식카페(cafe.naver.com/jscs)에서만 받는다.

• 문의/인디고서원(628-2897, indigoground.net)



제1기 힐링 아카데미

부산남구청이 각박한 도시생활에 지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1기 힐링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힐링 아카데미는 지역 주민들의 주요 관심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형식의 강좌로, 3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8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부산남구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주요 강좌로는 최영숙 동의대학교 교수의 '신명나게 살기', 김숙정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의 '미래사회와 교육의 변화', 김미정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의 '아로마테라피로 활력을', 김무숙 학부모코칭 강사의 '노인과 바다의 고기잡이와 삶의 이야기', 김진화 동의대학교 교수의 '지역사회 발전과 평생교육', 김옥임 원예고등학교 교감의 '숲에서의 힐링', 강대민 경성대학교 교수의 '독도 무엇이 문제인가', 피아니스트 강인희의 '클래식음악과 함께하는 힐링타임' 등이 진행된다.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수강가능하며, 3월 15일까지 선착순 100명에 한해 신청받는다.

• 문의/부산남구청 평생교육과(607-4515)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단 3월 공연

본격적인 공연 시즌을 맞아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술단' 3월 공연이 더욱 풍성하게 펼쳐진다.

3월에는 1일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리는 내 사랑 부산 공연 '3·1절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복지관을 찾아가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복지관 순회공연, 교향악단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행복가득 사랑가득 음악회' 등이 펼쳐진다.

| | | | |
|-----------|------------------|---------------|--------------------------------|
| 3월 1일(금) | 10:30 부산시민회관 | 내 사랑 부산 공연 | '3·1절 기념행사' (출연/합창단) |
| 3월 4일(월) | 09:30 부산지방국세청 | 내 사랑 부산 공연 | '모범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출연/교향악단) |
| 3월 4일(월) | 10:00 금곡종합사회복지관 |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 '복지관 순회공연-금곡종합사회복지관' (출연/무용단) |
| 3월 5일(화) | 14:00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 '복지관 순회공연-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출연/무용단) |
| 3월 6일(수) | 10:30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 '복지관 순회공연-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출연/무용단) |
| 3월 7일(목) | 11:00 소정실버대학 |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 '실버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공연' (출연/무용단) |
| 3월 8일(금) | 13:00 동원종합사회복지관 |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 '복지관 순회공연-동원종합사회복지관' (출연/무용단) |
| 3월 13일(수) | 12:30 부민병원 |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 '행복가득 사랑가득 음악회' (출연/교향악단) |

문의_ 부산문화회관(607-6046)



2013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신규단원 모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에서는 부산 음악의 미래를 선도할 패기 있고 우수한 기량의 신규 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분 및 전형내용

가. 모집부문 : 바이올린, 비올라, 더블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트롬본, 하프

나. 응시자격 : 부산 소재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재인제대 포함

다. 응시곡목

○ 자유곡/협주곡 및 소나타 빠른 한 악장(무반주)

○ 지정곡(원서접수시 배부)

※단, 우편 및 이메일 접수자는 이메일 발송

2. 전형일시 및 장소

가. 실기전형 : 2013. 3. 9(토) 14:00 교향악단 연습실

나. 면접전형 : 2013. 3. 14(목) 17:00 문화회관 회의실

※실기전형 합격자에 한함

3. 합격자 발표

가. 실기전형 : 2013. 3. 12(화)

나. 면접전형 : 2013. 3. 15(금)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공고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2. 25(월) 09:00 ~ 2013. 3. 6(수) 18:00 까지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2013. 3. 6(수) 18:00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홈페이지 다운로드), 재학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다. 접수처

○ 방문 : 부산시립교향악단 사무실

○ 우편 :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1 (608-811)

○ 이메일 : younghooncho@hotmail.com

5. 기타

가. 활동특전

○ 연주단원 활동시 소정의 활동비 및 여비 지급

○ 우수단원에게 오케스트라 협연 기회 제공

○ 방학 중 음악캠프 참가

○ 해외 및 타지역 순회연주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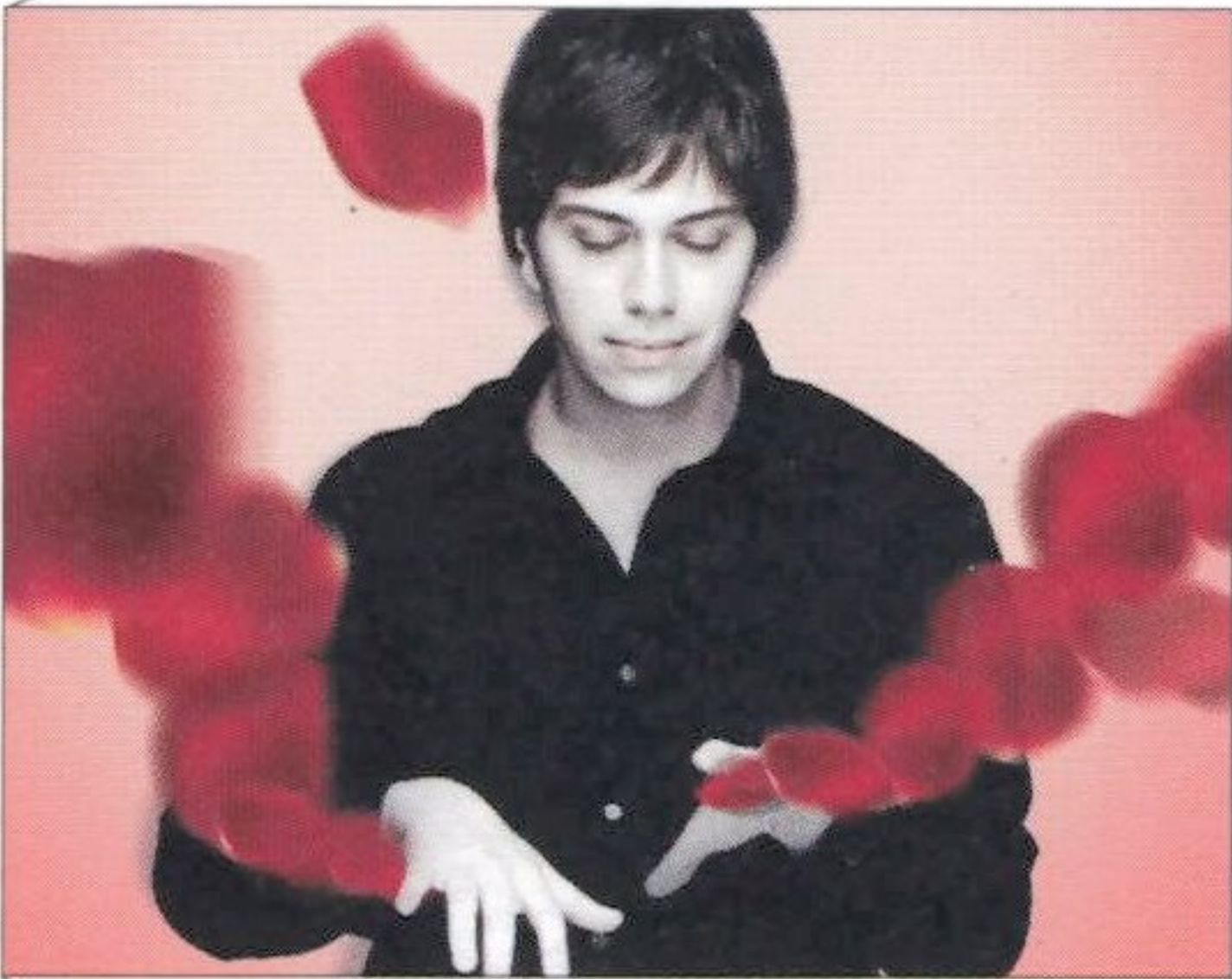
나.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3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설맞이 국악한마당'

명절 음식 준비를 일찍 서둘러 마치고 아이들과 알찬 명절을 보내기 위해 부산문화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한해의 복을 빌고 액운을 쫓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 평소 자주 볼 수 없는 전통 무대 의상과 시조창과 민요, 장고춤, 오고무, 판굿까지 다양한 우리국악을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따뜻한 차와 손수 만든 아기자기한 복조리 선물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사년 내내 간직하겠습니다.

이진주(연제구 연산5동)



스티브 바라캇 부산공연

항상 서울에서 하던 공연을 부산에서 볼 수 있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직도 어제의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관객과의 호흡도 너무 좋았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워서 정말 오랜만에 돈이 아깝지 않는 공연이었어요.

김진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연후기란 게시물)



부산시립극단 '어무이 기사니'

어머니 생신기념으로 토요일에 예약하고 가족 모두 함께 어무이 기사니를 관람하였습니다.

공연의 내용과 스케일에 비해 관람료가 너무 저렴하여 고생하신 스티프와 배우들에게 죄송할 정도였습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신 배우 분들과 스티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자 처음으로 후기를 남깁니다. 사투리 열연에 수고해주신 분들 감사감사합니다 ^^*

배은희(사하구 당리동)

뮤지컬 '레미제라블'

영화를 본 뒤 뮤지컬의 감동을 느끼고 싶어 서둘러 극장을 찾았습니다. 영화를 본 뒤라 기대가 컸던 만큼 감동도 더했습니다. 영화 장면 장면과 뮤지컬 장면을 오버랩시키면서 관람했습니다. 뮤지컬의 스케일과 함께 현장감이 느껴져 마치 내가 그 시대, 그 장소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조승미(남구 대연동)

발칙한 로맨스

요즘 공연들은 자극적인 카피로 잠자는 내 감성을 깨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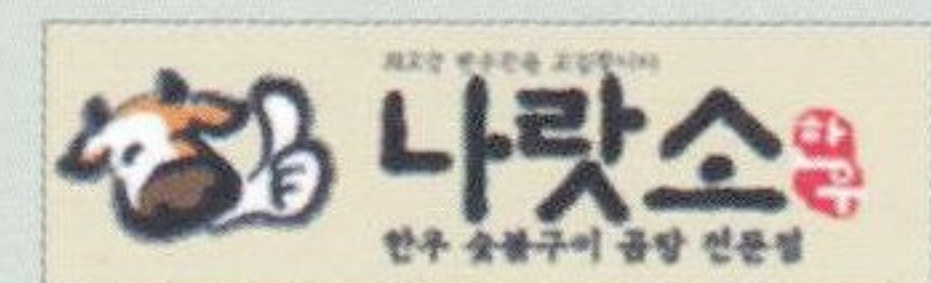
'내숨은 버리고 앙큼하게 즐겨라'는 홍보카피처럼 내숨을 버리고 만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에 기대가 컸다. 10년 전 헤어진 첫사랑에게 당돌하게 만나자고 제의하는 성공한 영화감독 봉필, 못이기는 척 호기심 반 설렘 반으로 첫사랑을 만나러 나온 수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웃음포인트, 절묘하게 아슬아슬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로 하루의 피로를 다 씻어버렸다.

정은미(부산진구 개금동)



공연후기 '100자 토크' 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 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식사권(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보내실곳 bsculture@naver.com
 마 감 수시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지난호정답

| | | | | | | | | |
|---|---|---|---|---|---|---|---|---|
| 스 | 티 | 브 | 바 | 라 | 카 | 김 | 연 | 아 |
| 트 | | 뤼 | | 트 | | 하 | | 편 |
| 라 | | 셀 | | 라 | | 회 | 화 | 전 |
| 빈 | 처 | | 헤 | 비 | 메 | 탈 | | 아 |
| 스 | | 무 | | 아 | | | | 카 |
| 키 | | 에 | 비 | 타 | | 바 | 리 | 데 |
| | | 타 | | | 관 | 우 | | 미 |
| 황 | 진 | 이 | | 고 | | 처 | 칠 | 우 |
| 석 | | | 이 | 희 | 아 | | 광 | 수 |
| 영 | 산 | 회 | 상 | | 악 | 머 | 구 | 리 |

2월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민선(남구 용호1동)
윤신영(연제구 거제3동)
윤지현(서구 초장동)
이정희(해운대구 우1동)
최수진(남구 대연동)

나랏소 식사권 김기영(해운대구 좌동)
이동우(해운대구 좌4동)
이유미(남구 대연1동)
진수민(남구 대연3동)
최미숙(남구 문현4동)

조은극장 초대권 강은주(사하구 하단동)
남지은(수영구 광안1동)
박지훈(남구 대연4동)
박현정(연제구 연산5동)
최지현(금정구 구서동)

큰집 식사권 강대현(연제구 거제4동)
윤나영(사하구 괴정동)
윤미숙(동래구 온천3동)
이지현(서구 서대신동)
황용주(북구 화명3동)

공간소극장 | 051-611-8518
나랏소 | 051-628-8814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가로열쇠]

- 오스트리아의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와 황후 엘리자벳의 유일한 아들로, 왕실의 변화를 추구하다 좌절하고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연인과 동반자살하기까지 드라마틱했던 인생이 펼쳐지는 뮤지컬. 3월 17일과 18일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부산 관객과 만난다.
- 중요무형문화재 가야금 산조와 병창 예능보유자인 우리 시대 최고의 명창. 3월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춘음악회' 협연자로 부산을 찾는다.
- 지구의 중심을 지나면서 지축(地軸)과 직각을 이루도록 자른 단면이 지표와 만나는 선 즉 위도 0도의 선.
- 이란 고지대를 중심으로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지방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통치하던 고대제국이었으나 알렉산더대왕이 통치하던 마케도니아에게 멸망하였다.
- 저명한 인사나 인기배우가 극중 예기치 않은 순간에 등장하여 아주 짧은 동안만 하는 연기나 역할.
- '말씀하시되'의 뜻으로 쓰이는 말. '가로되'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
- 아프리카 북부의 대부분, 홍해 연안에서 대서양 해안까지 이르는 세계 최대의 사막.

[세로열쇠]

-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를 바탕으로 한 운동. 또는 그 경기. 차기, 지르기, 막기 등의 기술을 구사하면서 공격과 방어를 한다.
- 돌로 만든 할아버지라는 뜻으로, 제주도에서 안녕과 질서를 수호하여 준다고 믿는 수호 석신.
- 음악에 맞는 춤을 만드는 일. 또는 그것을 가르치는 일.
- 전라북도 고창군에 있는 사찰로, 백제 위덕왕 24년(577년) 검단선사에 의해 창건된 천년 고찰이다. 대웅전을 병풍처럼 감싼 아름다운 동백 숲으로 유명한데, 500년 수령의 높이 6m인 이 동백나무들은 천연기념물 제184호로 지정되어 있다.
- '삼국지연의'의 적벽대전을 바탕으로 한 판소리.
- 반주 없는 합창.
- 국악과 재즈, 트로트를 넘나들며 특유의 호소력 짙은 보컬과 구성진 해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소리꾼.
- 높은음을 내며 부드럽고 슬픈 음조를 띠는 목관 악기.
- 이탈리아의 작곡가 비발디의 대표적인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4계절의 분위기와 색채를 즐겁고도 섬세하게 표현해낸 표제음악의 걸작.
- 몽골제국의 제1대 왕. 본명은 테무친. 몽골족을 통일하고 중앙

정답을 보내주세요!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3년 3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산(酸)의 부식작용을 이용하는 완화의 한 방법. 렘브란트에서부터 고야, 밀레, 피사로, 드가 등 많은 화가들이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 불교에서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나누는 10가지 경지. 혹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다고 하는 열가지 계율.
- 위선에 찬 러시아 귀족사회와 러시아 정교를 비판하고 말년에 노동, 채식, 금주, 금연의 생활을 역설했던 러시아 대문호. 대표작으로 전쟁과 평화, Anna Karenina, 부활 등이 있다.
-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아프리카 톤즈에서 사랑을 펼쳤던故 이태석 신부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 24절기의 하나. 우수(雨水)와 춘분(春分) 사이로, 양력 3월 5일 경. 겨울잠을 자던 벌레, 개구리 따위가 깨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시기이다.
-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려 그 중량을 겨루는 경기. 용상(籠上), 인상(杠上)의 두 종목이 있다.
- 울격과 같은 외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문장으로 쓴 글.

- 아시아를 평정하는 한편, 서양 정벌로 동서양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다.
- 2006년에 제작된 존 카니 감독의 아일랜드 영화. 선댄스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는 등 전 세계적으로 흥행몰이를 일으켰으며, 주제곡인 '폴링 슬로ולי(Falling slowly)'는 이듬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주제가상을 받았다.
-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희극. 난파로 헤어진 쌍둥이 남매 바이올라와 세바스찬, 바이올라를 남자로 착각하고 사랑에 빠지는 올리비아, 올리비아를 사랑하는 오시오 공작 등 네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로맨틱 코미디극이다.
-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는 뜻으로,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보고 지나감을 이르는 사자성어.
- 20세기 영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으며, 현대 판타지 소설이라는 새 장르를 발전시킨 영국의 영문학자 겸 소설가. 그의 대표작인 '반지의 제왕' 3부작은 판타지 소설의 고전으로 불린다.
- 섬 전체가 화산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화산섬으로, 성인봉(984m) 정상에서 해안을 향해 달려가는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며 오징어와 호박엿이 유명하다.

40th 메모리아 MEMORIA



지휘 전 상철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프로그램

우리동요와 가곡 · 반달 · 고향의 봄 · 따오기 · 파란마음 하얀마음 · 도라지꽃
 특별출연 소프라노 강태경 · 수선화 · 그리운 금강산
 부산시립합창단 남성합창 · 지휘 오세종 · My Way · Vive L'Amour
 한국작곡가 시리즈 V 정애련 · 동개 동개 동개 동 · 웃놀이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특별출연 테너 장원상 반주 이승운 · 실랑의 노래 · 물방아 · 저구를 흘러가는 곳
 우리민요 ·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 도라지 · 신고산타령 · 춤추는 춘향이 · 추천가 · 경북곡타령

피아노 이영옥 안무지도 노금선 합창지도 김양자 기획 최형태



지휘 오세종



테너 장원상



소프라노 강태경



위촉작곡가 정애련



반주 이영옥



반주 이승운



단체출연 부산시립합창단

2013. 3. 30(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1,000원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61~2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10여종의 신선한 육류와
20여종의 샐러드나
무한리필!



오렌지

부산문화회관과 오렌지가 함께하는 2013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이벤트

2013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오렌지 식사권 1매 증정
(200매 선착순)

오렌지 이용금액
(전 메뉴 VAT 10% 포함금액)

| | |
|---------|---------|
| 평일 런치 | ₩11,900 |
| 평일 디너 | ₩14,900 |
| 주말, 공휴일 | ₩15,900 |

※14세 이상 성인 기준가격

영업시간 11:30~22:30

오렌지 아시아드점 Tel. 051)502-010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208 홈플러스 B2층(CGV 맞은편)

오렌지 김해점 Tel. 055)338-0004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131-2 홈플러스 2층
오렌지 창원점 Tel. 055)237-0003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30-3 홈플러스 4층

March 2013 Program Guide

3 2013 March

Ⓜ Grand theater Ⓜ Medium theater Ⓜ Small theater Ⓜ Outdoor Amphitheater

B.P.O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 B.M.D.C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B.M.C Busan Metropolitan Chorus / B.M.T Busan Metropolitan Theater / B.P.Y.O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 B.M.J.C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 Sunday | Monday | Tuesday | Wednesday | Thursday | Friday | Saturday |
|---|---|---|---|---|---|---|
|  |  |  | | | 1 | 2 |
| | | | | | | <p>Ⓜ Choral House Man's Festival Chorus 19:00 Invitation/Soonin Culture Foundation(010-4183-2293)</p> <p>Ⓜ Saturday Regular Stage-The Korean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
| 3 | 4 | 5 | 6 | 7 | 8 | 9 |
| | | | <p>Ⓜ The 166th Regular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Spring Concert' 19:30 10,000/7,000/5,000/B.M.T.O(607-3121-2)</p> | <p>Ⓜ 2013 Spring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30 10,000/7,000/5,000/B.P.O(607-3111-3)</p> | <p>Ⓜ Jeon Jang Soo Classic Guitar Recital 19:30 30,000/20,000/WE MUSIC(031-321-8958, 010-6416-5482)</p> | <p>Ⓜ Founding Concert of Busan Citizen Orchestra 17:00 50,000/30,000/20,000/10,000 Busan Citizen Orchestra(907-8808, 010-3090-1524)</p> <p>Ⓜ Lee Hyun Jeong Cello Recital 19:00 20,000/10,000/Kim Jae Hak(02-586-0945, 011-772-0945)</p> <p>Ⓜ Saturday Regular Stage- Busan Metropolitan Chorus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 | <p>Ⓜ The Dance Story for Children 'The Farting Lady' 11:00 1,000/B.M.D.C(607-3131-2)</p> | <p>Ⓜ The Dance Story for Children 'The Farting Lady' 11:00 1,000/B.M.D.C(607-3131-2)</p> | <p>Ⓜ The Dance Story for Children 'The Farting Lady' 11:00 1,000/B.M.D.C(607-3131-2)</p> | <p>Ⓜ The Concert, Under the Sky Part2 Yesterday 'Lim Chi Hoon' 20:00 30,000/ Busan Cultural Center(607-6057)</p> | <p>Ⓜ Musical 'Rudolf' 15:00 19:00 120,000/100,000/80,000/60,000/SPA(1599-7448)</p> <p>Ⓜ Saturday Regular Stage-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p>Ⓜ Musical 'Rudolf' 15:00 19:00 120,000/100,000/80,000/60,000/SPA(1599-7448)</p> | <p>Ⓜ The 28th Regular Concert of U.K.O 19:30 20,000/U.K.O(011-591-3342)</p> <p>Ⓜ The Dance Story for Children 'The Farting Lady' 11:00 1,000/B.M.D.C(607-3131-2)</p> | <p>Ⓜ The Spring Concert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19:30 Invitation/Busan National University(510-1209)</p> <p>Ⓜ The 30th Anniversary of Busan Nakdong Roraty Club Charity Concert 19:00 10,000/Busan Nakdong Roraty Club(325-6402, 010-3838-1025)</p> <p>Ⓜ The Dance Story for Children 'The Farting Lady' 11:00 1,000/B.M.D.C(607-3131-2)</p> | <p>Ⓜ The 489th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Beethoven Symphony Cycle I' 19:30 10,000/7,000/5,000/B.P.O(607-3111-3)</p> <p>Ⓜ The Dance Story for Children 'The Farting Lady' 11:00 1,000/B.M.D.C(607-3131-2)</p> | <p>Ⓜ The 7th Regular Concert of NeoPhilharmonic Orchestra 19:30 10,000/Busan YMCA(440-3372)</p> <p>Ⓜ The 6th Regular Concert of 'Ensemble Di Mare' 19:30 20,000/10,000/Ensemble Di Mare(010-6595-1742)</p> <p>Ⓜ The Dance Story for Children 'The Farting Lady' 11:00 1,000/B.M.D.C(607-3131-2)</p> | <p>Ⓜ Pianist Hwang Seong Hoon Recital 19:30 50,000/40,000/30,000/Artsbankcoreal(442-1941)</p> <p>Ⓜ 2013 Spring Concert 19:30 30,000/20,000/10,000/Amici Setelle(010-9334-6105)</p> <p>Ⓜ The Dance Story for Children 'The Farting Lady' 11:00 1,000/B.M.D.C(607-3131-2)</p> | <p>Ⓜ The Prenatal Music Concert with Madicampus Invitation/Madicampus(070-8902-2307, 010-7648-4560)</p> <p>Ⓜ Saturday Regular Stage-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Ladies Phil Ensemble'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p>Ⓜ The 1st Ocarina Ensemble Festival 15:00 Invitation/Korea Ocarina Education Association (070-8924-0528, 010-8544-2580)</p> | | <p>Ⓜ The 43rd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2013 Ballet Music Seize 'Swan Lake' 19:30 2,000/B.P.Y.O(607-3111-3)</p> | | | | <p>Ⓜ The 138th Regular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Memoria' 17:00 1,000/B.M.J.C(607-3161-2)</p> <p>Ⓜ 2013 Busan Theatre Festival Opening Ceremony Busan Theater Association(645-3759)</p> <p>Ⓜ 2013 Busan Theatre Festival 'Yang Seok Bong's Bakery' 17:00 20,000/15,000/Busan Theater Association(645-3759)</p> |
| 31 | | | | | | |
| <p>Ⓜ 2013 Busan Theatre Festival 'Yang Seok Bong's Bakery' 17:00 20,000/15,000/Busan Theater Association(645-3759)</p> | | | | | | |

2013년 3월 공연일정

3

2013
March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야외공연장

| Sunday | Monday | Tuesday | Wednesday | Thursday | Friday | Saturday |
|--|---|--|--|---|--|---|
|  <p>3.6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춘음악회</p> |  <p>3.16-17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p> |  <p>3.16-17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p> | | | 1 | 2 |
| | | | | | | <p>2013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축제합창단 '행복한 남성들의 즐거운 합창' 19:00 초대/송인문화재단(010-4183-2233)</p> <p>토요상설무대 - 낙동민속보존회 16:00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p> |
| 3 | 4 | 5 | 6 | 7 | 8 | 9 |
| | | |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66회 정기연주회 명인과 함께하는 새봄 '2013 신춘음악회' 19:30 1만원 7천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3)</p> | <p>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3 신춘음악회' (2013 부산연주인사리즈) 19:30 1만원 7천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 <p>전장수 클래식기타 독주회 19:30 3만원 2만원/WE MUSIC(031-321-8858, 010-6416-5482)</p> | <p>부산시민오케스트라 청림콘서트 '보통사람을 위한 평파레' 17:00 5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부산시민오케스트라(907-8808)</p> <p>이현정 첼로 독주회 19:00 2만원 1만원 예인예술기획(02-586-0945, 011-772-0945)</p> <p>토요상설무대 - 부산시립합창단 16:00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p>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 | <p>부산시립무용단 2013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 -방귀쟁이 머느리 11:00 균일 1천원(단체 사전 예약)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 <p>부산시립무용단 2013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 -방귀쟁이 머느리 11:00 균일 1천원(단체 사전 예약)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 <p>부산시립무용단 2013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 -방귀쟁이 머느리 11:00 균일 1천원(단체 사전 예약)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 <p>부산문화회관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2-Yesterday '임지훈의 추억여행'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p> |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 15:00, 19:00 12만원 10만원 8만원 6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8), SPA(1599-7448)</p> <p>토요상설무대 - 부산시립무용단 16:00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p>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 15:00, 19:00 12만원 10만원 8만원 6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8), SPA(1599-7448)</p> | <p>U.K.O 정기연주회 제28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19:30 균일 2만원 U.K.O(011-591-3342)</p> <p>부산시립무용단 2013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 -방귀쟁이 머느리 11:00 균일 1천원(단체 사전 예약)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 <p>부산대학교 시민과 함께하는 신춘음악회 19:30 초대/부산대학교(510-1209)</p> <p>부산낙동로타리클럽 창립 30주년 기념 자선음악회 19:00 균일 1만원/부산낙동로타리클럽(325-6402)</p> <p>부산시립무용단 2013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 -방귀쟁이 머느리 11:00 균일 1천원(단체 사전 예약)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8회 정기연주회 '라산차오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1' 19:30 1만원 7천5천원/부산시립교향악(607-3111~3)</p> <p>부산시립무용단 2013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 -방귀쟁이 머느리 11:00 균일 1천원(단체 사전 예약)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 <p>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440-3372)</p> <p>양상봉 디 마레 제6회 정기연주회 19:30 2만원 1만원/양상봉 디 마레(010-3863-8081)</p> <p>부산시립무용단 2013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 -방귀쟁이 머느리 11:00 균일 1천원(단체 사전 예약)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 <p>황성훈 피아노 리사이틀 '예술가의 시' 19:30 5만원 4만원 3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p> <p>이미치 세펠레 2013 신춘음악회 19:30 3만원 2만원 1만원/이미치 세펠레(010-9334-6105)</p> <p>부산시립무용단 2013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 -방귀쟁이 머느리 11:00 균일 1천원(단체 사전 예약)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 <p>제4회 메디캠퍼스 태고음악회 19:00 초대/메디캠퍼스(070-8002-2307, 010-7648-4560)</p> <p>토요상설무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16:00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p>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p>제1회 전국 오키리나 앙상블 페스티벌 15:00 초대/한국오키리나지도자교류협회(070-8924-0628)</p> | | | | | | |
| 31 | | | | | | |
| <p>2013 부산연극제 극단 배우창고 '강석봉 베이커리' 17:00 2만원 1만5천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 |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43회 정기연주회 2013 발레 음악 시리즈 1 '백조의 호수'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 | | <p>2013 부산연극제 극단 배우창고 '강석봉 베이커리' 17:00 2만원 1만5천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40주년 기념 및 제138회 정기연주회 'Memoria' 17:00 균일 1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p> <p>2013 부산연극제 개막식 19:00 (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2013 부산연극제 극단 배우창고 '강석봉 베이커리' 17:00 2만원 1만5천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클릭하세요.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바랍니다.

신춘 음악회

인간문화재 **안숙선** 명창과

장세납 **이영훈** 명인이 함께하는 '새봄 맞이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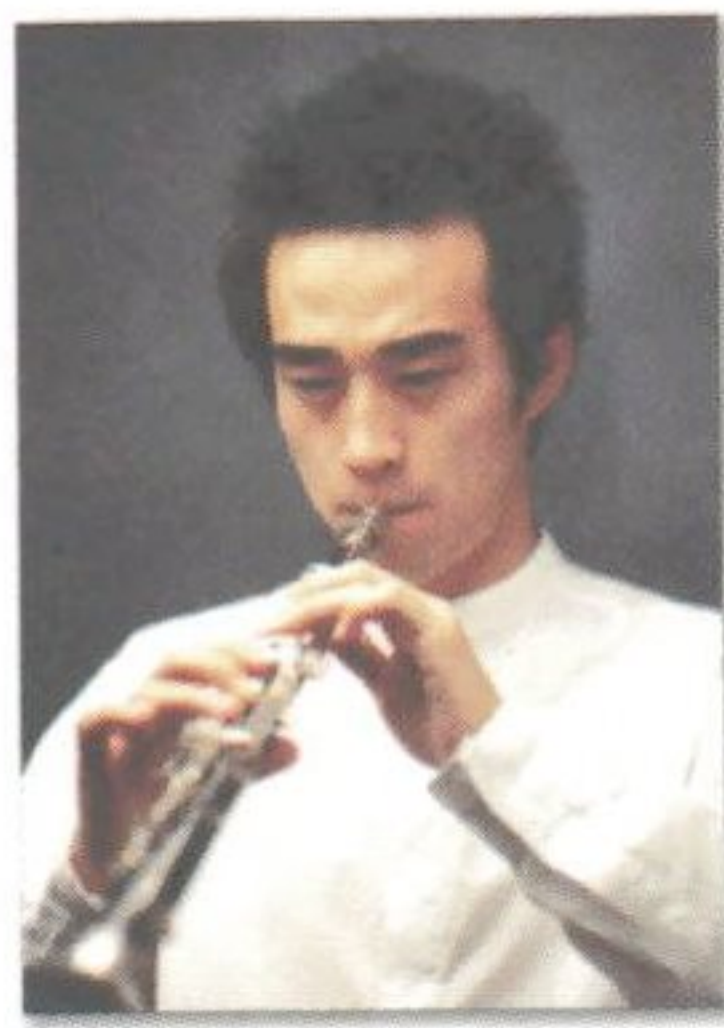
지 휘 김 철 호 (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2013. 3. 6(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창 안숙선



장세납 이영훈

PROGRAM

- ▶ 국악관현악 [왕의 귀환] / 작곡: 백규진 - 위촉곡 초연
- ▶ 국악관현악 [달빛향해] / 작곡: 원일 - 부산초연
- ▶ 국악관현악 [대지의 숨] / 작곡: 정동희
- ▶ 장세납 협주곡 [봄] / 작곡: 김대성 / 장세납: 이영훈 - 부산초연
- ▶ 안숙선 명창과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티켓정보 _ R석 10,000원/S석7,000원/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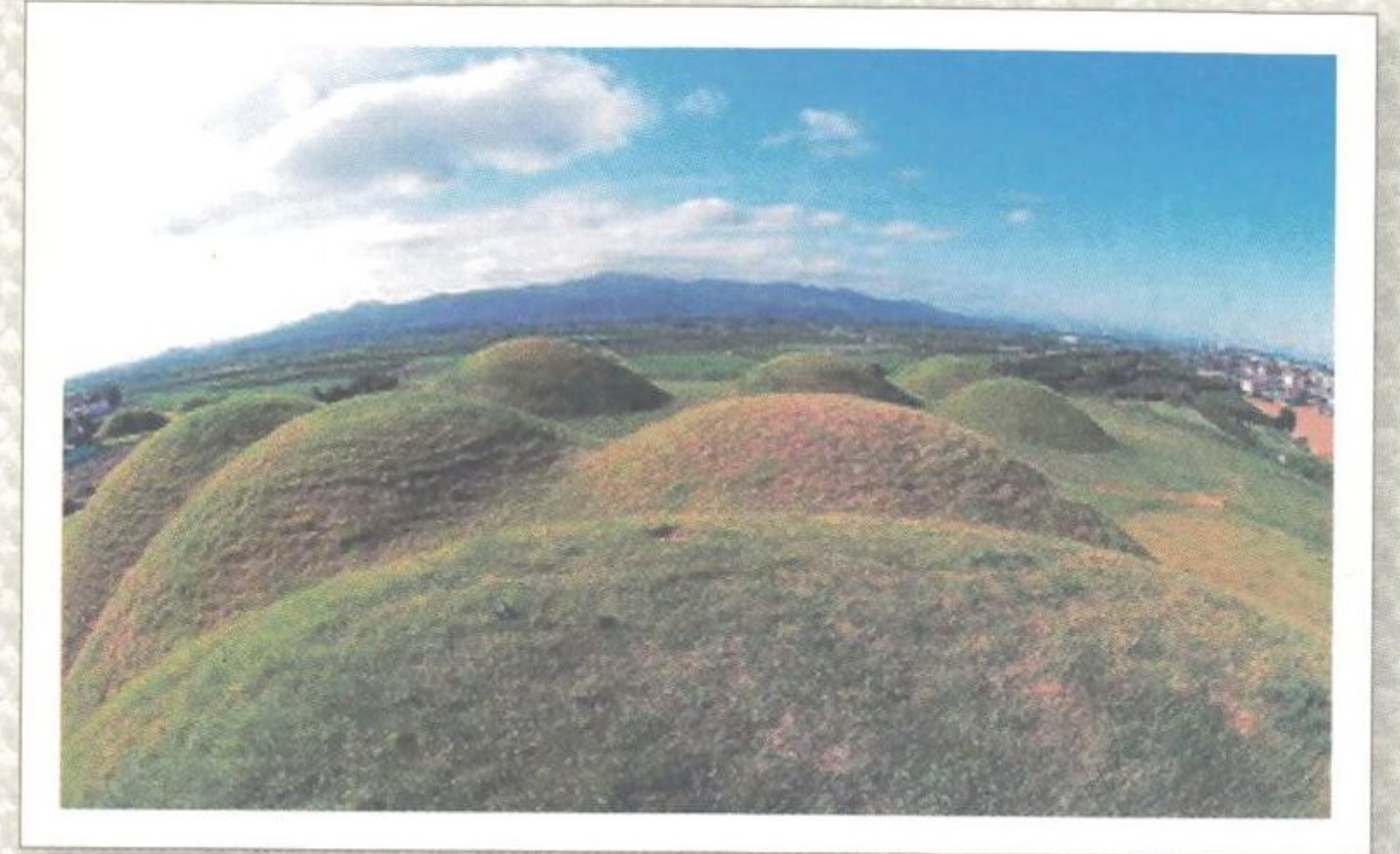
주 최 _ 부산광역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후원 _ BBS 부산불교방송 내일신문

공연문의 _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51) 607-3123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051)607-3100

셔틀버스운행(무료) 출발지: 대연동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복사꽃 만개한 유쾌한 청도

2013년 4월 12일(금)

반시와 미나리, 소싸움으로 유명한 경상북도 청도로 떠나는 아름다운 봄 여행. 복사꽃이 만개한 청도의 봄은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기. 청도의 정신이 담긴 문화유적과 청도의 새로운 명물로 등장한 코미디시장에서 유쾌한 봄을 즐긴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09:30 청도 도착, 청도읍성, 석빙고, 자계서원 등 답사
- 12:30 중식
- 14:00 성수월마을 문화체험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7:00 부산으로 출발

삼성현의 정신문화가 살아있는 경산

2013년 5월 10일(금)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삼성현(원효·설총·일연)의 훌륭한 정신문화가 살아 숨 쉬는 경산으로 떠나는 봄 여행.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400년간 존속한 압독국의 흔적이 남아있는 임당·조영동 고분군을 시작으로 영남대학교 박물관, 계정숲 등에서 경산의 풍광을 즐겨본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0:00 경산도착, 임당·조영동 고분군, 영남대학교 박물관 답사
- 12:30 중식
- 13:30 자인향교, 계정숲, 한장군묘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7:00 부산으로 출발



2013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체함비는 회원 부담)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March Vol·255

culture.busan.go.kr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3. 3.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255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3. 3.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255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 Yesterday

탁성의 절규...
꿈이어도 사랑할래요...

2013. 3. 15. Fri. PM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예매 :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문의 : 홍보마케팅부 051.607.3100 / 공연과 051.607.6057

하늘아래 그 콘서트
yesterday

임지훈의
추억여행

센터점

TODAI
Restaurant

Since 1985

20%
Discount



10%
Discount

MOZART



10%
Discount

센터점
하나돈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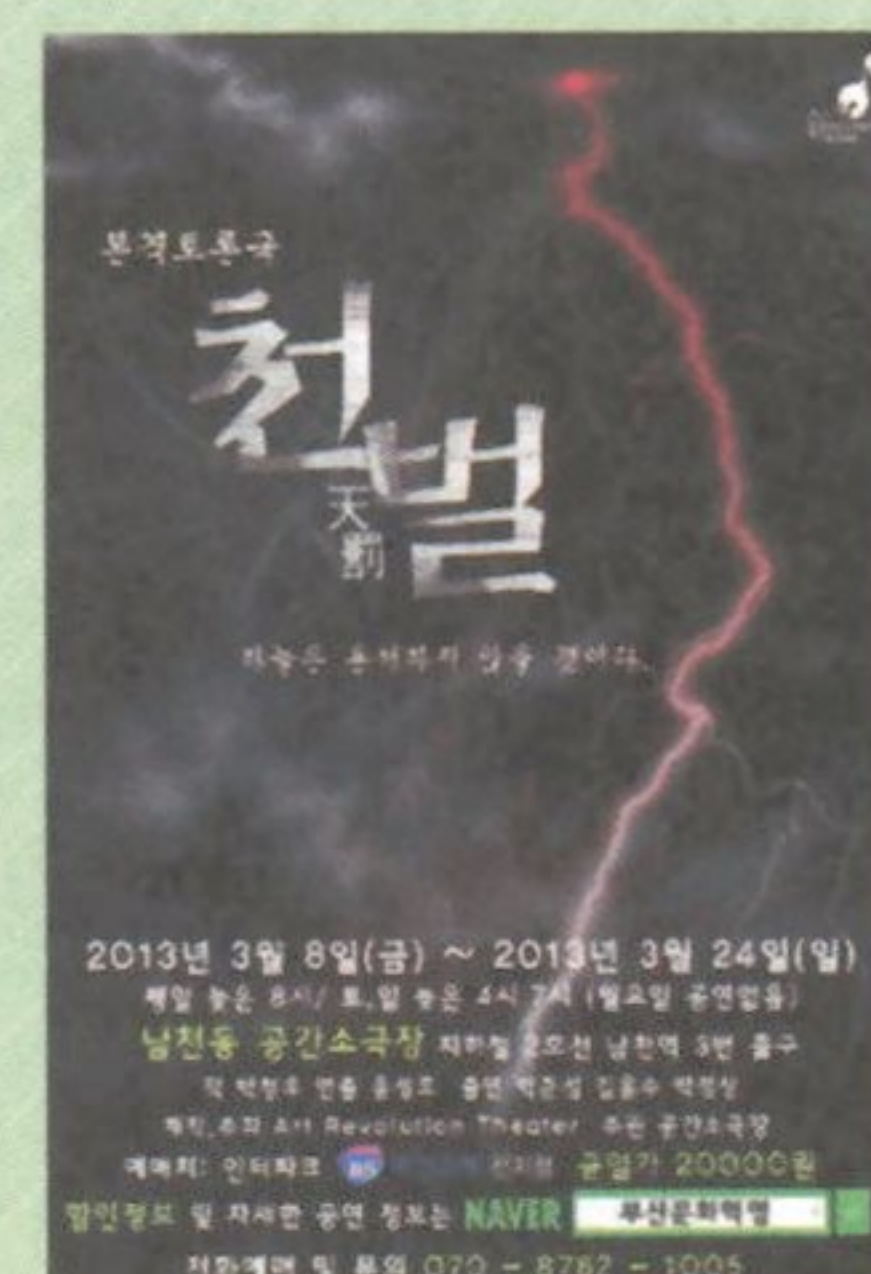
10%
Discount

Since 1981
philharmony



20%
Discount

연극
극적인 하룻밤



30%
Discount

본격 토론극
천벌

토다이 센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행사는 토다이 센터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051)626-145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돈까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밸리 210호
051)747-8244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051)626-2592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극 '극적인 하룻밤'

2013.2.22(금)-3.24(일)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3시, 6시(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본격 토론극 '천벌'

2013.3.8(금)-3.24(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7시(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2만원 장소 : 공간소극장
문의 및 예매 : 611-8518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culture.busan.go.kr

2013년 4월 응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회원명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독 자 의 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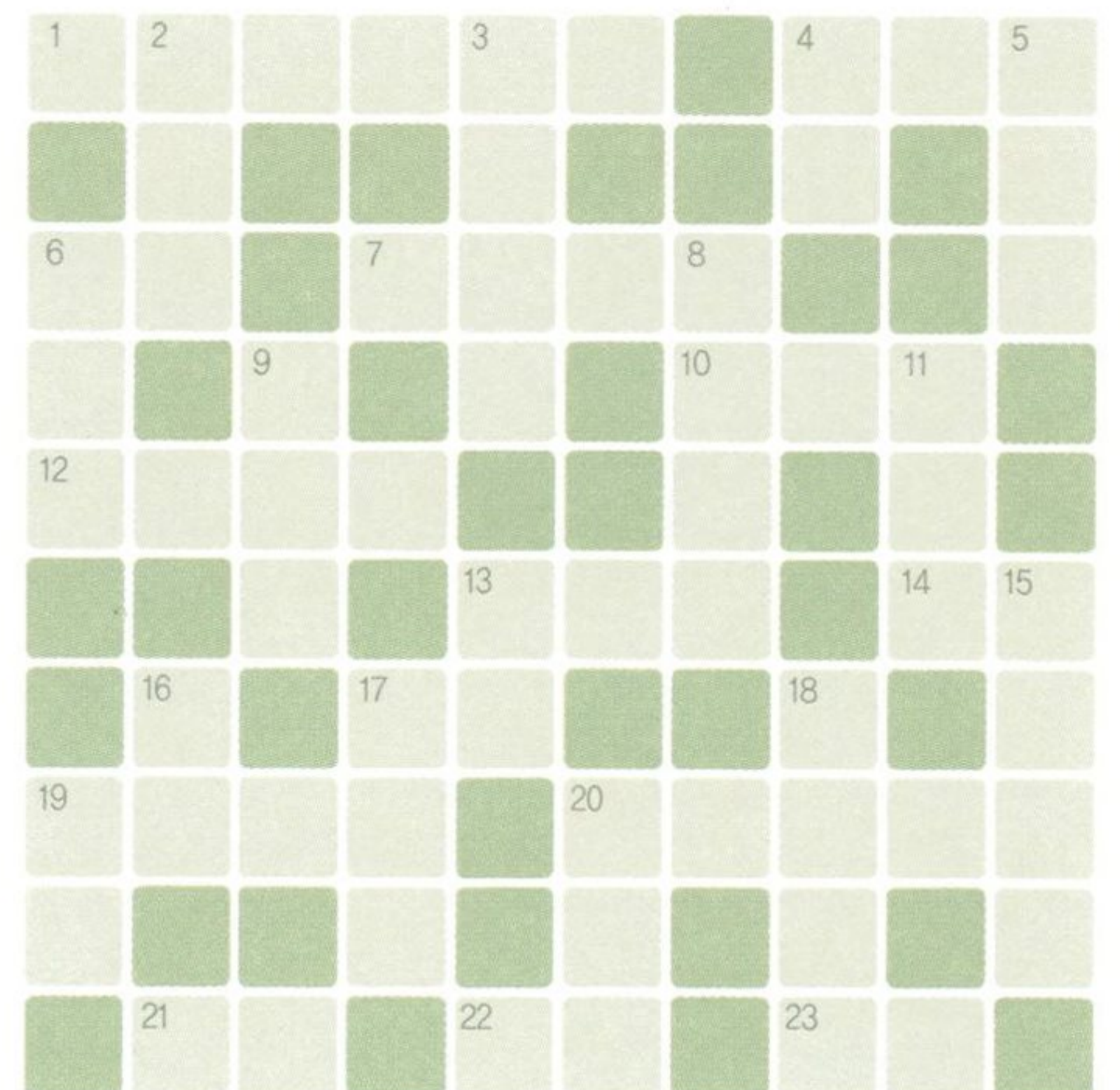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퍼즐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빛 갚는다
?!

광고 하나로 천냥 빛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 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 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 인 / 편집디자인, CI, BI 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8회 정기연주회

LI XINCAO &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BEETHOVEN

SYMPHONY CYCLE I

리신차오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I

2013. 3. 20 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문 의 607-3111~3(부산시향) 607-3100(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서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The new Audi A4 2.0 TDI quattro®

또 한번 드라이빙은 완벽해진다

Winner

24 Hours of
Le Mans 2012



Audi TDI와 풀타임 사륜구동 콰트로 기술로 또 한번 완벽해진 The new Audi A4 2.0 TDI quattro®

모두가 충분하다고 했을 때, The new Audi A4는 또 한번 완벽해졌다.
르망24시간레이스 6회 우승으로 입증된, 아우디 TDI엔진의 파워와 효율성.
그리고 어떤 조건에도 민첩하게 반응하는 풀타임 사륜구동 콰트로의 정교한
드라이빙 감각까지, 이것이 당신의 드라이빙을 더 완벽하게 만드는
The new Audi A4 2.0 TDI quattro이다. www.ucaro.co.kr

전시장

- 남 천 부산 수영구 남천동 299-1 Tel) 051-611-3844
- 해운대 부산 해운대구 우1동 760-3 오션타워 1F Tel) 051-740-5566
- 창 원 창원 마산합포구 신포동 1가 45-2 Tel) 055-245-2233
- 울 산 울산 남구 삼산동 1532-13 Tel) 052-257-3883

서비스센터

- 남 천 부산 수영구 남천동 532-68 Tel) 051-628-0056
- 민 락 부산 수영구 민락동 155-1 Tel) 051-626-0056
- 창 원 창원 마산합포구 신포동 1가 45-2 Tel) 055-245-0999
- 울 산 울산 남구 삼산동 1532-13 Tel) 052-227-2255

아우디공식딜러
유카로오토모빌(주)